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외교학석사 학위논문

역사적 전환기
E. H. 카의 혁명 연구

2018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과

우 희 원

역사적 전환기
E. H. 카의 혁명 연구

지도교수 장 인 성

이 논문을 외교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과
우 희 원

우희원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2월

위 원 장 신 욱 희 (인)

부위원장 박 성 우 (인)

위 원 장 인 성 (인)

국문초록

에드워드 H. 카(Edward Hallett Carr, 1892-1982)는 역사 일반을 다룬 저서 *What is History?*로 역사학계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잘 알려진 역사가이다. 그러나 국제정치학계는 그를 전간기(inter-war period) 이상주의(utopianism) 사조에 대항하여 현실주의(realism) 패러다임을 설립한 국제정치 이론가로만 기억한다. 한편, 그가 남긴 다양한 저서 목록 중 14권에 달하는 초기 소비에트 관련 역사서는 단연 그의 대표적인 연구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카는 자신의 학문 생애 대부분을 러시아 혁명과 이후 초기 소비에트사 연구에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복잡다단한 인물인 카는 생전 다양한 주제의 저서를 저술한 것은 물론, 외교관, 국제정치학자, 역사학자 등 다양한 커리어를 보유하고 있기도 했다. 그로 인해 그간 국제정치학계에서는 국제정치학자로서 카의 일면을, 역사학계에서는 역사 일반 내지는 소비에트사를 다룬 역사학자로서 카의 일면을 각각 배타적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었다. 이 논문은 이러한 학계의 연구 현황에 문제를 제기하고, 카라는 한 인물이 저술한 다양한 주제의 저서들을 학문 분과에 구애받거나 그에 따라 편향되지 않고 다양하게 읽음으로써 카에 대한 이해를 진척하려는 의도 아래 작성된 것이다. 또한 그의 학문 연구 활동이 비롯된 가장 원초적인 문제의식에 주목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문제의식이 다양한 주제의 저서들로 결실을 이루어 가는 모습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카의 학문 연구를 촉발한 가장 최초의 문제의식은 무엇이었는가? 좁게는 역사적 사건으로서 러시아 혁명과 그 이후 소비에트 러시아의 역사, 넓게는 20세기 서유럽이라는 시공간적

배경에서 발생하고 있던 역사적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광의의 차원에서 이해한 카의 문제의식은 그의 저서 대부분이 공유하고 기반으로 삼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기도 하다. 이 논문은 광의의 차원에서 카가 보여준 문제의식, 즉 20세기 서유럽이 겪고 있던 역사적 전환기 경험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어떻게 카의 여러 저서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되어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카 본인이나 그의 저서가 지닌 가장 근원적인 문제의식 혹은 주제 의식에 접근하는 것은 물론, 그의 다양한 저서들이 공통된 주제 의식 위에 어떻게 상호연관성을 가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카라는 인물에 대한 이해를 진전시키는 성과는 물론, 그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20세기 서유럽이 처해 있던 역사적 맥락과 시대적 배경에 접근하는 기회 또한 획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논문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연구 성과로 제시하는 바이다. 첫째, 러시아 혁명으로 본격화된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를 카는 기존 자유주의 시대를 지나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이해했다. 둘째, 그런 점에서 20세기는 역사적 전환기에 해당했고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중심지였던 서유럽 역시 변화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카는 주장했다. 셋째, 이상의 전제에 바탕을 두고 카는 혁명가들의 사상 및 사건으로서 혁명을 연구했고 이와 같은 주제에서 출발하여 마르크스주의의 러시아적 변형을 거쳐 러시아 혁명의 발생과 초기 소비에트사 연구로까지 점차 연구 주제를 확대해 나갔다. 넷째, 카는 러시아 혁명과 초기 소비에트사에 대한 해석에서 도덕적 정당성과 우월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데,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카의 사고에서 도덕과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존 학계의 인식에 비

해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다.

주요어 : E. H. 카, 20세기 혁명, 역사적 전환기, 자유주의 시대, 사회적
민주주의, 대중 민주주의

학 번 : 2015-20135

목 차

제 1 장 역사적 전환기 E. H. 카의 혁명 연구	1
제 1 절 문제 제기	1
제 2 절 자료 및 구성	4
제 2 장 이분법에서 변증법으로 —1990년대 이후 카 연구의 성과와 한계	11
제 1 절 1990년대 이전 연구	11
제 2 절 1990년대 이후 연구	19
제 3 장 혁명가 연구 : 카의 라이트모티프로서 혁명(1)	32
제 1 절 19세기 러시아의 사상 지형	34
제 2 절 마르크스의 혁명 사상	38
제 3 절 마르크스주의의 토착화	42
제 4 장 혁명에 대한 역사적 접근 : 카의 라이트모티프로서 혁명(2)	48
제 1 절 역사적 접근법	48
제 2 절 두 개의 혁명	53
제 3 절 국제정치학적 함의	61
제 5 장 역사적 전환기로서 20세기	66
제 1 절 세계대전과 혁명	66

제 2 절 20세기 새로운 민주주의	76
제 3 절 국민국가의 형해화	87
제 6 장 카의 이상과 도덕	92
참 고 문 헌	100
Abstract	106

제 1 장 역사적 전환기 E. H. 카의 혁명 연구

제 1 절 문제 제기

이 논문은 에드워드 H. 카(Edward Hallett Carr, 1892-1982)의 혁명 연구를 국제정치학계에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카는 20세기 서유럽이라는 시공간에서 역사적 전환기를 직접 체험한 인물로 혁명 관련 방대한 저술과 연구 업적을 남겼다. 카는 자신의 전 학문 생애에 걸쳐 20세기 혁명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혁명 관련 풍성한 연구 업적을 남겼기에 그의 학문 연구상 가장 중요한 주제를 혁명이라고 말하는 데 아무런 어폐도 없다.

하지만 오랫동안 국제정치학계는 카의 중요한 연구 성과라 할 수 있는 혁명 및 혁명가 연구를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했다. 카의 수많은 저서 중 기껏해야 국제정치학과 관련된 일부 저서들을 피상적으로 읽어내는 데 그치고 만 것이다. 즉, 현재까지도 국제정치학계 내에서 카의 혁명 연구라는 특정 주제는 학계 내 그가 지닌 위상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이러한 문제는 물론 국제정치학계만의 것은 아니다. 그동안 카가 남긴 국제정치 관련 연구와 혁명 연구는 한 사람에 의해 진행된 연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간에 배타적인 모습을 띠었다. 국제정치학에서 소비에트사 연구로 카의 연구 주제 및 소속 분과가 일정하게 변화하게 된 원인과 그 과정을 지금까지 국제정치학계, 역사학계 그 어디에서도 전혀 설명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선의 결론은 카의 전체 학문 연구 기간이 세 개의 서로 다른 시기 및 주제로 구분된다는 것 정도였고 각각의 학문 분과는 카의 전체 저서 목록(œuvre) 중 서로 다른 시기에 저술된 일부 저서만을 배타적·편향적으로 다루는 데 만족해야 했다.¹⁾ 그러나

1) 카의 학문 연구 기간을 세 개의 기간으로 구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31년

취사 선택적인 독해는 카 이해의 측면에서 다른 곳보다도 국제정치학계에 더 해로운 영향을 끼쳤다. 카가 국제정치학계에 남긴 영향력이 카 본인의 전체 학문 활동 기간에서 국제정치학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월등하게 커지면서 국제정치학계 내 카에 대한 몰이해는 일과만과로 확대 재생산되었다. 이처럼 일생의 학문 여정과 다양한 저서를 통해 카가 보여준 “라이트모티프” (leitmotif)²⁾로서 혁명이라는 연구 주제가 그동안 국제정치학이 이룩한 카 연구 성과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학계 현실은 이 논문이 비롯된 직접적인 계기이다.

에서 1937년까지 카가 아직은 학자가 아닌 직업 외교관으로서 도스토옙스키나 바쿠닌, 마르크스 등과 같은 문학과 혁명적 사상가들에 대한 전기(傳記)를 저술했던 시기이다. 이 시기 그가 저술한 전기물로는 Dostoevsky 1821-1881(1931), *The Romantic Exiles*(1933), *Karl Marx: A Study in Fanaticism*(1934), *Michael Bakunin*(1937) 이상 4권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카가 학자로서 삶을 시작한 이후 그 초반에 해당하는 1930년대 말부터 1945년까지 당시의 영국 외교사, 유럽 정치, 그리고 국제정치와 관련된 저서를 저술한 시기가 이어진다. 이 시기에는 1939년도에 발간된 국제정치학계의 고전 *The Twenty Years' Crisis 1919-1939*(1939)를 포함하여, *International Relations Since the Peace Treaties*(1937), *Britain: A Study of Foreign Policy from the Versailles Treaty to the Outbreak of War*(1939), *The Future of Nations: Independence or Interdependence*(1941), *Conditions of Peace*(1942), *Nationalism and After*(1945)가 차례대로 출간된다. 마지막으로 1940년대 중후반부터 그가 사망하는 1982년까지는 본격적인 소비에트사 연구서와 혁명 관련 에세이 모음집들이 출간되었던 시기이다. 1947년 *The Soviet Impact on the Western World*를 펴두로 하여, 1956년 *The New Society*, 1964년 *Studies in Revolution*, 1969년 *1917: Before and After*(미국판 제목은 *The October Revolution: Before and After*), 1979년 *The Russian Revolution from Lenin to Stalin 1917-1929*, 1980년 *From Napoleon to Stalin and Other Essays* 등의 저서들, 그리고 1950년에서 1978년에 걸친 기간 동안 총 14권으로 완성된 소비에트사 연구서까지 4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그는 러시아사 그리고 혁명과 관련된 수많은 책을 출간하였다. Michael Cox, “A Brief Guide to the Writings of E. H. Carr,” in E. H. Carr, *The Twenty Years' Crisis 1919-1939: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reissued with a new introduction and additional material by Michael Cox* (New York: Palgrave, 2001), pp. lix~lxiii.; Fred Halliday, “Reason and Romance: the Place of Revolution in the Works of E. H. Carr,” in Michael Cox (eds.), *E. H. Carr: A Critical Appraisal*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0), pp. 258~279 참고.

2) Halliday in Cox. 2000. p.258.

동시에, 그동안 국제정치학계나 역사학계나 양측 모두 카의 저서가 탄생한 배경으로서 20세기 유럽이라는 시공간과 그 역사적 맥락에 대해 무관심했는데, 그 결과 카가 자신의 저서 여러 권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한 20세기라는 시대 배경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이 온전히 전달되지 못했다. 카가 외교관 혹은 학자로 활동했던 20세기 유럽은 “역사적 전환기”라 부를 만한 시기였다. 일찍이 유례가 없던 세계대전이 두 차례나 발생한 것은 물론, 카에 의거하면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세계사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었다.³⁾ 다만, 카가 보기에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나 러시아 혁명이나 20세기적인 전환에서 비롯된 “증상”에 해당했다.⁴⁾

이 논문은 카의 분석과 설명에 근거하여 20세기 서유럽이 처한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즉, 혁명이라는 실제 사건을 서술하기보다도 혁명이라는 사건의 서술과 해석을 통해 카가 당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카의 사고를 이해하는 데 논문은 집중할 것이다.⁵⁾ 20세기라는 급격한 전환과 변동의 시기에 당대 지식인이나 학자 중 하나였던 카가 혁명 연구를 통해 어떤 현실 분석과 새로운 도덕을 제공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동시에, 역사적 전환기로서 20세기 유럽이라는 시공간에서 왜 카가 혁명(가) 연구에 매진했는가를 살펴보는 과정도 함께 진행된다. 그리고 이처럼 카의 학문 연구에서 중요한 배경이 된 20세기적 전환의 내용과 카의 혁명 연구를 살펴보는 것이 특별히 국제정치학계에 줄 수 있는 함의가 있다면 무엇인지도 함께 결론 내리도록 한다.

3) E. H. Carr, *The Russian Revolution* (New York: The Free Press, 1979), p.1

4) E. H. Carr, *The Twenty Years' Crisis 1919-1939* (London: Macmillan, 1939), p.288.

5) 특정 학계에 한정됨 없이 카의 대표 저서로서 가장 널리 알려진 *What is History?*(1961)에서 그는 실제 역사가 혹은 예비 역사가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조언을 제시한 바 있다. “Study the historian before you begin to study the facts.” E. H. Carr, *What is History?* (London: Penguin, 1961), p.23. 이러한 카의 조언대로 이 논문 역시 러시아 혁명이라는 특정 사건,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사실들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카라는 역사가이자 한 인물을 이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제 2 절 자료 및 구성

카의 혁명 연구라 했을 때 이 논문은 첫째, 카가 수행한 혁명가와 혁명적 사상가에 관한 연구, 둘째, 역사적 사건으로서 혁명과 그 역사적 맥락을 분석하고 있는 혁명에 관한 역사적 연구 두 가지를 대상으로 한다. 그 결과 카의 저서 중 본고의 주요한 분석 대상이 되는 저서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카의 저서 중 국제정치학과 관련이 깊은 세 권 *The Twenty Years' Crisis 1919-1939, Conditions of Peace, Nationalism and After*가 있다. 이 중 *The Twenty Years' Crisis*는 이미 그간 국제정치학계에서 술하게 회자되었지만 논문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아온 책의 후반부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다음으로 1942년 작 *Conditions of Peace*는 드물게 종종 *The Twenty Years' Crisis*와 함께 언급되곤 하는데, 카 자신의 설명에 따르면 현실주의적 분석에 치중한 *The Twenty Years' Crisis*와 대조적으로 이상주의적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는 저서이다.⁶⁾ 차후 두 권의 저서가 어떻게 대칭을 이루며,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Nationalism and After*는 카의 저서 중 1990년대 이후 새롭게 주목받게 된 책으로, 이 책을 통해 국제정치와 근대국가의 미래에 대한 카의 진단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카의 학문 활동 기간 중 가장 마지막에 해당하는 시기는 혁명 연구라는 주제와 연관성이 가장 높은 시기이므로 이 시기의 저서 대다수는 이 논문의 분석 대상이 된다. 책 하나하나를 낱권으로 언급하기엔 해당 시기에 발간된 저서의 권수가 많으므로, 대신 여기서는 주요 분석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한다.

첫째, 총 14권으로 저술된 카의 소비에트사 대부분은 논문의 분석 대상으로서 우선순위에서 제외될 것이다. 소비에트사는 물론 가장 대표

6) E. H. Carr, "An Autobiography," in Cox. 2000. p.xix.

적이며 방대한 카의 연구 업적 중 하나이지만 이 논문에서 14권에 달하는 역사서 전체를 세세하게 분석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 할 것이다. 그나마 러시아 혁명을 다룬 처음 세 권을 제외하고 카의 혁명 연구라는 이 논문의 주제와 이후 소비에트 역사의 세세한 전개를 다룬 내용 사이에서 긴밀한 관련성을 찾을 수 없으므로 논문의 우선적인 분석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다.

둘째, 역시 카의 혁명 및 혁명가 연구라는 이 논문의 중점과 일정하게 거리가 있는 German-Soviet Relations Between the Two World Wars, 1919-1939(1952), What is History?(1961), The Twilight of the Comintern, 1930-1935(1982), The Comintern and the Spanish Civil War(1984) 네 권이 있다.

그 외에도 카가 외교관 시절 저술했던 전기(傳記) 4권 또한 이 논문의 분석 대상으로서 우선성을 갖지 않는다. 이러한 선택의 이유는 이 논문의 주안점이 이른 시기 카의 저술 활동이 갖는 동기 및 문제의식을 밝히는 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분명 외교관 시절 저술된 4권의 전기물에도 이후 마지막 시기의 혁명 연구까지 이어지는 카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선행 연구 사례를 소개하는 것으로 대체한다.⁷⁾

이상의 분석 대상을 중심으로,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전개를 따른다. 우선 바로 이어지는 논문의 둘째 장, “이분법에서 변증법으로—1990년대 이후 카 연구의 성과와 한계”에서는 1940년대부터 현재까지 발표된 카에 대한 대표적인 2차 연구들을 정리한다.

카 연구사에서 1990년대는 특기할 만한 시기이다. 1990년대를 거치면서 현실과 이상, 권력과 도덕의 이분법(dichotomy)을 기반으로 하던 카 이해가 “제3의 길”을 전제하는 변증법(dialectic)을 기반으로 하게 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1990년대 이후로 카 이해 방식이 특정 국

7) Kuniyuki Nishimura, “E. H. Carr, Dostoevsky, and the Problem of Irrationality in Modern Europe,” *International Relations*, Vol. 25, No. 4, (Mar 2011), pp. 45-64.; *Politics at its Demise: E. H. Carr, 1931-1939*,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Florida, 2009.

제정치 이론에 대한 전제와 반드시 함께 가면서 혁명 연구에서 엿보이는 카의 문제의식과 20세기 유럽에 대한 그의 분석이라는 특정 주제는 점점 더 국제정치학자들 사이에서 외면받게 되었다. 이처럼 최근까지의 카 연구가 보여준 성과 및 한계를 두루 살펴보면서 잘못된 카 이해 방식을 지적하고 카의 근원적인 문제의식에 닿으려는 본고의 시도를 정당화하는데 첫 장의 핵심이 있다.

논문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장은 혁명을 카의 라이트모티프로 삼고 그의 혁명가 연구와 혁명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각각 개괄한다. 카는 직업 외교관 시절 이미 도스토옙스키, 바쿠닌, 마르크스 등 러시아 문학가 및 여러 혁명가에 대한 전기 4권을 저술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자유주의 시대 서유럽과는 이질적인 지적 분위기를 접할 수 있었던 그는 학자가 되어 본격적으로 서유럽의 자유주의적 분위기와 대립 되는 사상 및 움직임을 자신의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⁸⁾ 이후에도 카는 생시몽, 프루동, 알렉산드르 게르첸(Alexander Herzen), 게오르기 플레하노프(Georgi Plekhanov), 조르주 소렐(Georges Sorel), 레닌, 스탈린 등 반(反)자유주의 및 혁명 관련 다양한 인물들에 대한 글을 계속 써나간다. 논문 제3장은 이처럼 카의 혁명가 관련 글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러시아를 배경으로 마르크스주의의 등장 이전과 이후로 주제를 세분화하여 각각에 해당하는 사상가 내지는 혁명가에 대한 카의 글을 분석한다.

카의 혁명 연구는 또한 20세기 러시아라는 제한적인 시공간 속에서 러시아 혁명을 개괄하지 않고 오히려 프랑스 혁명, 실패한 1848년 혁명, 러시아 혁명으로 이어지는 혁명의 흐름을 광범위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설명한다. 프랑스 혁명과 러시아 혁명은 각각 한 시대의 시작과 끝으로서 자유주의 시대의 등장과 지속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한 다른 시대로의 이행 현상을 카는 여러 저서에 걸쳐 논한다. 따라서 카의 역사

8) Carr "An Autobiography," in Cox. 2000. pp. xvi~xvii. 러시아 문학가 및 혁명가를 통해 서유럽과는 이질적인 지적 풍토를 체험할 수 있었던 기회는 카에게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했다. 왜냐면 카에게는 자유주의라는 서유럽의 특정 사조를 상대화하고 특수화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였기 때문이다.

관 내지는 세계관 속에서 두 개의 혁명은 대단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논문 제4장은 지금 설명한 카의 역사적 접근법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두 개의 혁명에 대해 다룬다. 카의 혁명(가) 연구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나면 그의 학문 연구 생애에서 라이트모티프로서 혁명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일정하게 확보될 것이다. 혁명이라는 카의 문제의식을 복원하였으니 이제 해당 작업이 국제정치학적으로 어떤 함의를 가질 수 있는가가 마지막 쟁점이 될 것이다. 그간 국제정치학계에서 외면받은 카의 혁명 연구가 국제정치학계에 어떤 새로운 쟁점을 던져줄 수 있는지로 제4장을 마무리한다.

이미 논문은 카의 전체 저서 목록을 관통하는 주제로서 혁명을 제시했고 그런 이유로 그의 혁명 연구를 두 장에 걸쳐서 다루게 된다. 다음 단계로, 혁명에 대한 카의 관심이 특정 저서들에서 실제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외적인 차원에서 역사적 전환기로서 20세기를 개괄하고 당대의 변화들을 따라가 밝힌 논문의 제5장 “역사적 전환기로서 20세기”는 카의 대표적인 국제정치학 저서 세 권, *The Twenty Years' Crisis 1919-1939*(1939), *Conditions of Peace*(1942), *Nationalism and After*(1945)에서 어떻게 혁명이라는 카의 연구 주제가 구체화 되고 있는지를 밝힌다.

세 권의 저서 중 1939년도 저서를 제외한 나머지 두 권은 그동안 국제정치학계에서조차 소홀하게 취급되어 온 만큼, 부단한 연구를 통해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카의 새로운 측면들을 밝혀내기에는 최적의 저서들이다. 1939년도의 저서만을 제한적이고 피상적으로 읽어냈던 그간의 국제정치학계 관행에서 벗어나 각 저서 간의 연관성을 고려하면서 세 권을 함께 읽어내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카의 국제정치학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국제정치학 분과에 속하는 카의 연구 저서들조차 혁명이라는 큰 주제에 어떤 식으로 포섭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장은 기존 방식과 달리, 카의 학문 활동 기간을 세 개의 서로 다른 시기로 굳이 구분하지 않는다. 3시기 구분법은 분명 카의 변화무쌍

한 학문 생애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분절하여 준다는 유용성을 갖지만 자칫하면 각 기간이 서로 배타성을 가진다는 식으로 오해를 낳기 쉽다.⁹⁾ 그런 점에서도 이 논문은 3시기 구분법을 강조하기보다는 카의 전 학문 생애가 혁명이라는 하나의 연구 주제에 근간한다고 본다.

제5장의 첫 절은 세계대전과 혁명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카의 해석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The Twenty Years' Crisis*와 *Conditions of Peace*를 함께 읽고 세계대전이라는 병리 증상(symptom)이 어떤 병원(病原)에서 비롯되었는지 카의 분석을 확인한다. 동시에 20세기 유럽에서 광범위한 영향력을 자랑하던 혁명의 움직임이 세계대전이라는 역사적 사건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었는지도 확인하고자 한다.

이어서 역사적 전환기로서 20세기를 국내 차원에서 개괄한다. 그 동안 국제정치학계는 카의 저서가 가진 의도를 20세기 중에서도 전간기(inter-war period)라는 특정한 시기로 제한하고 동시에 국제정치 관련 분야에 한정하여 파악하려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시기에 다양한 주제 의식을 바탕으로 저술된 카의 저서를 통해 전간기 국제정치에 대해 그가 보여준 비판 의식이 다른 분야로도 확대 계승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만이 아니라, 국내적인 차원에서는 카가 무엇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국내정치에 대한 비판이 어떻게 국제적인 차원의 비판 내지는 그의 라이트모티프로써 혁명 연구와 맞닿아 있는지도 밝히도록 한다.

20세기 유럽 국내정치와 관련하여 카는 프랑스 혁명에서 유래한

9) Halliday in Cox, 2000. p.258. 그는 카의 국제정치 연구가 혁명이라는 큰 주제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면서도 바로 다음 문장에 이어서 혁명과 국제정치라는 서로 다른 주제 간에 일정한 연관성이 드러난다고 해서 카의 전체 학문 활동에서 일관성 있는 주제가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져선 안 된다고 적고 있다. 한 인물이 긴 세월 동안 여러 번 시각과 사고상의 변화를 겪는 것은 당연하며 그 변화가 저서에도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첨언을 한 할리데이의 저의는 이해가 가지만 앞서 제기한 주장에서 한발 물러서서 그것을 모호하게 만드는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카의 수많은 생각과 입장 변화를 고려하고서라도 카의 학문적 관심이 일관되게 혁명으로 수렴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민주주의 정치 제도의 하나로서 “자유민주주의” (liberal democracy) 를 문제시하고 변화한 20세기 현실과 호응하도록 기존의 자유민주주의 정체가 변화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프랑스 혁명 이후 개인의 자유와 권리 의식이 확대된 결과 등장한 정체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국내정치 현실과 괴리되어 간다. 카는 시대착오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고수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변화한 현실에 맞는 새로운 민주주의로 전환할 것을 주장한다. 새로운 민주주의는 카의 저서에서 “대중 민주주의” (mass democracy), “사회적 민주주의” (social democracy), “소련식 민주주의” (Soviet democracy) 등으로 다양하게 명명된 바 있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민주주의가 기존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고수한 서유럽에 비해 소비에트 러시아에서 먼저 등장하고 시행되었다는 점을 카는 지적한다.

20세기 역사적 전환기 당시 진행 중이던 혁명과 관련하여, 논문 제5장은 국민국가(nation-state)의 미래에 대한 카의 전망으로 그 마지막을 장식한다. 카는 Nationalism and After라는 1945년도 저서를 통해 향후 국제정치와 국제질서의 전개 과정에서 기존 자유주의 시대의 국가 형태인 국민국가는 도태되고 쇠퇴할 것이라고 보았다. 왜냐면 이미 국민국가는 기능적인 면에서 20세기 변화하는 현실을 감당할 수 없었고 국제협조주의(internationalism)의 제약을 벗어난 채 폭주하여 세계대전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정당성의 측면에서도 약점을 갖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국민국가에 대한 카의 분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개괄하면, 역사적 전환기로서 20세기에 대한 카의 분석도 일정하게 전달 완료될 것이다.

최종 결론에서는 카의 도덕과 이상에 대해 논한다. 국제정치학계는 그간 카를 국제정치 현실에서 권력 현상만을 강조한 현실주의자로 이해하고 그의 도덕과 이상에 대해서는 정당한 관심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나 본문 전체를 통해 카의 20세기 혁명 연구를 접하고 나면, 그가 현실에서 권력만큼이나 도덕 내지는 이상의 측면을 중시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지막 결론을 통해 카에게 도덕의 측면이 대단

히 중요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의 이상과 도덕이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제 2 장 이분법에서 변증법으로—1990년대 이후 카 연구의 성과와 한계

제 1 절 1990년대 이전 연구

카에 대한 평가는 1939년 처음 출간되어 국제정치학에 큰 영향력을 끼친 저서 *The Twenty Years' Crisis 1919-1939*(이하 TTYC로 약칭)이후 오랜 기간과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새롭게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그의 사상 및 이론이 미친 파급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체계적으로 카에 대한 연구사가 정리되고 제시된 적은 없었다. 2001년에 마이클 콕스(Michael Cox)가 편집·증보하여 재출간한 TTYC에서 카가 쓴 1차 문헌을 비롯하여 카를 다룬 많은 논문 및 저서들이 소개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제목 그대로 매우 개략적인 “안내”에 불과할 뿐이고 그마저도 2차 문헌들의 나열에 불과할 뿐, 전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¹⁰⁾ 그 결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카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바뀌어 갔는지, 현재까지 카에 대한 이해가 어디까지 진척되었는지, 거기에 따른 한계는 무엇인지 밝혀주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카에 대한 평가는 국제정치학 내에서 TTYC가 지닌 독보적인 위상으로 인해 대체로 현실주의(realism)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채 진행되어왔다. 이때의 현실주의란, 국제정치에서 권력(power)의 요소가 중요하다는 의미에서의 현실주의다.¹¹⁾ 즉, TTYC에서 일면 카가 강조한

10) Michael Cox, “A Brief Guide to the Writings of E. H. Carr,” “A Guide to the Secondary Literature on E. H. Carr,” E. H. Carr, *The Twenty Years' Crisis 1919-1939: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reissued with a new introduction and additional material by Michael Cox* (New York: Palgrave, 2001), pp. lix-lxxi.

11) 카가 현실주의의 선구자로서 마키아벨리를 원용하고 있는 부분을 참고하면, 힘의 정치(power politics)로서 국제정치를 파악하는 현실주의와는 다른 맥락의 현실주의를

현실 정치상의 힘의 요소는 그 뒤로도 카를 철저한 현실주의자로서 자리 매김하도록 일조하였다.

이러한 카에 대한 평가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카에게 정치 혹은 정치적이라는 것은 인간사 중에서도 이미 힘과 힘의 충돌이 포함된 영역을 가리켰다. 한편, 카가 “정치는 어떤 의미에서 언제나 힘의 정치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같은 문단 안에서 이미 한발 물러서서 힘이라는 요소만으로는 정치를 정의할 수 없으며, 다만 힘이 언제나 정치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하는 것에는 아무런 논리적 비약이나 무리가 없다고 썼을 뿐이다.¹²⁾ 그렇다면, 카를 이해할 때 그가 국제정치에서 힘의 요소만을 강조했다고 보는 것은 분명한 오류이다. 실제로 카가 힘에 경도된 철저한 현실주의자라는 인식이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보편적이지 않다는 점을 글의 말미가 되기도 전에 확인할 수 있다.

1939년 TTYC가 처음 출간된 이후로 1990년대 이전까지의 시기에 제기된 카에 대한 비평은 카가 제시한 힘과 도덕의 이분법적인 관계, 그리고 그의 특징적인 도덕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의 도덕관은 쉽게 말하자면 상대주의(relativism)적이고 도구주의(instrumentalism)적인 도덕관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카의 도덕관은 1990년대 이전까지 카에 대한 주요 비판들에서 반복되었으며 또한 구심점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해당 시기에 제기된 카에 대한 비판은 대표적으로 한스 모젠소, 마이클 J. 스미스(Michael J. Smith), 윌리엄 폭스(William T. R. Fox), 헤들리 불과 마틴 화이트, 그리고 카가 이른바 “이상주의자” 들이라고 지칭했던 영국 내 레너드 울프(Leonard Woolf), 알프레드 짐머른(Alfred Zimmern), 노만 에인절(Norman Angell), 아놀드 토인비(Arnold Toynbee) 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¹³⁾ 이들이 카에 대해 행한

확인할 수 있다. 즉, 현실주의란 당위적 내지는 “희망적 사고”(what ought to be)에 대비되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what is)을 직시하려는 사고 혹은 태도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현실주의는 때로 국가 중심적 국제정치 패러다임으로서 이해되기도 한다. 이처럼, 현실주의는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데, 글의 뒤편에서는 서로 다른 의미의 현실주의가 혼용되고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E. H. Carr, *The Twenty Years' Crisis 1919-1939* (London: Macmillan, 1939), p.62 참고.

12) Carr. 1939. p.97.

비판의 핵심은 앞서 말한 카의 상대주의적이고 도구주의적인 도덕관에 있었다.

카에 대한 비판을 제기한 학자 중 우리가 주요하게 살펴볼 인물은 모겐소이다. 1990년대 이전 시기뿐만 아니라 이후 시기까지, 카에 대한 2차 문헌에서 모겐소는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모겐소라는 학자가 고전 현실주의(classical realism)에서 카와 함께 갖는 위상과 권위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도 모겐소의 카 비평은 출간 시기(1948년)와 장소(미국) 덕분에 두 가지로부터 거리 두기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첫째, 모겐소의 비평문은 1940년대 후반에 출간되어 1990년대 이후 강화된 이론 기반의 카 독해 경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모겐소의 논문은 1948년 이전까지 출간된 카의 저서 4권, 즉 TTYC 외에도 *Conditions of Peace, Nationalism and After, The Soviet Impact on the Western World*(1947)를 폭넓게 비평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것은 이 비평문이 가진 또 다른 강점이 되는데, 왜냐하면 1939년 저서 외에 카의 다른 저서들을 폭넓게 읽으려는 움직임이 1990년대에 들어선 이후에야 국제정치학 내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상주의자” 들과 비교해 보아도, 그들 대부분이 1939년의 저서만을 읽고 카를 평가했던 것에 비해 모겐소는 좀 더 다양한 카의 저서들을 접한 뒤 그를 평가할 수 있었다. 이 점에서도 모겐소의 비평문은 훨씬 높은 가치를 지닌다. 둘째, 모겐소의 경우 미국이라는 공간에서 전쟁이라는 영국의 현실 정치 맥락으로부터 일정하게 거리를 두고 카를 평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의 비평문은 또한 높은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모겐소 역시 카의 도덕관이 가진 문제점을 자신의 비판에서 핵심으로 삼았다. 카에 대한 모겐소의 평가는 “비르투 없는 마키아

13) Peter Wilson, “Carr and His Early Critics: Responses to The Twenty Years’ Crisis, 1939–46,” in Michael Cox (eds.), *E. H. Carr: A Critical Appraisal*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0), pp. 165~197.; “The Myth of the ‘First Great Debate’ ,” in Brian C. Schmidt,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First Great Debate* (New York: Routledge, 2012) pp. 16~31.

벨리(Machiavelli without vertu)” 라는 표현에 압축적으로 담겨있다.¹⁴⁾ 먼저 카에 대한 모겐소의 위와 같은 결론이 어떤 과정을 거쳐 도출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겐소의 분석에 따르면 카는 현실주의자이자 동시에 이상주의자로서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현실주의자로서 카는 당시 서구 “국제정치 영역에서 나타난 정치적 사고의 쇠퇴” 를 냉철하게 비판했다.¹⁵⁾ 즉, 냉철한 현실주의자로서 당시 국제정치와 관련된 서구 정치사상 및 외교 정책의 문제점을 그 핵심에서 정확히 분석하는 데 카는 성공적이었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모겐소도 카를 칭찬한다.

반면, 이상주의자로서 카의 노력과 성취에 대해서 모겐소는 대단히 비판적이었다. 모겐소는 카가 제시하는 현실(주의)과 이상(주의)의 새로운 타협(compromise)을 도덕에 대한 매우 안일한 시각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시하였다. 모겐소는 이 글에서 분명하게 “초월적인 윤리 기준” 을 가지고 권력 현상을 분석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렇지 않으면 권력이라는 이상향에 함몰되어 버리고 마는데, 카 역시 초월적인 윤리 기준 없이 안일하게 현실과 이상을 접목하려 했기 때문에 결국 모겐소가 우려한 대로 권력이라는 이상향에 빠져 “정치적 낭만파”(political romantics)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¹⁶⁾

결국 “비르투 없는 마키아벨리” 라는 표현에는 카는 초월적인 도덕 기준을 외면한 권력 추구자라는 모겐소의 평가가 담겨있다.¹⁷⁾ 모겐소는 카의 저서 네 권에서 다루고 있는 각각의 제재들(유화정책, 강력한

14) Hans J. Morgenthau, “The Political Science of E. H. Carr,” *World Politics*, Vol. 1, No. 1 (Oct 1948), p.134.

15) Morgenthau. 1948. p.128.

16) Morgenthau. 1948. p.134.

17) 모겐소의 비평문이 가진 내적 논리로 보거나, 마키아벨리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비르투의 의미 등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해석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르투 없는 마키아벨리” 라는 평가에 담긴 의미는 마키아벨리의 비르투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가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카에 대한 모겐소의 평가가 압축적으로 담겨있는 표현인 만큼, 마키아벨리의 비르투와 함께 모겐소의 진의가 무엇이었는지 재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여겨진다. Niccolo Machiavelli, *The Prince* (Illinoi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0), pp. 96~105. 참고.

집산주의적 국가의 상정, 강대국에 의한 약소국들의 희생, 소련이 주는 매력)이 카의 권력 지향적 태도를 노정한다고 보았다.¹⁸⁾ 물론 모겐소가 보기에 카가 처음부터 무조건적으로 권력에 경도된 인물이었던 것은 아니다. 모겐소는 같은 글에서 카를 한때는 새로운 이상과 도덕을 찾아 나섰던 “정치적 도덕주의자” (the political moralist)로 평가하기도 했다.¹⁹⁾ 그러나 결과적으로 카는 권력이라는 이름의 이상향으로 다시 도피해 버리고 마는데 모겐소가 보기에 그 원인은 카의 도덕관이 보여준 빈약한 철학적 기반에 있었다.

카의 도덕관에 대한 비판은 모겐소의 평가에서만 나타나지 않는다. 일찍이 울프, 에인절, 짐머른 등도 카의 도덕관에 대해 2차 대전이 진행 중이었던 당시 영국의 현실적인 맥락에서 우려와 반감을 표시했으며, 이후에는 화이트, 불, 폭스, 스미스의 글에서도 같은 맥락의 비판이 반복된다. 그중에서도 특히 영국 내 “이상주의자” 들에게 카의 도덕관이 충격적이고 위협적으로 느껴졌던 것은 그것이 전쟁 수행 중이던 당시의 영국적 맥락에서는 자칫 적국에 대한 옹호와 영국의 전쟁 목표 자체에 대한 회의로 전개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이다.²⁰⁾ 카에 대한 영국 내 비판이 이처럼 당시 전쟁을 수행 중이던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제기되고 있었을 때, 모겐소의 카 비평은 전쟁 현실에 미치는 파급력이라는 측면보다는 국제정치(학)에서 초월적 윤리의 부재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와 관련 카의 한계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모겐소의 카 비평이 카에 대한 학계의 완결적인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모겐소의 카 평가에서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지점이 몇 군데 존재하기 때문이다. 첫째, 카의 권력 지향성을 드러낸다고 모겐소가 제시한 각 저서의 제재들이 어떻게 카의 권력 지향성을 보여주며, 둘째, 모겐소가 착목한 특정 제재는 과연 그 저서들이 지닌 핵심적인 주제로서 이해될 수 있는가?

대표적으로 유화정책, 집산주의적 국가(a collectivist state)에 대

18) Morgenthau. 1948. p.130.

19) Morgenthau. 1948. p.134.

20) Wilson in Cox. 2000. pp. 166~174.

한 지향, 소련에 매료된 것과 같은 예들은 반드시 카가 권력의 요소를 강조하고자 했기 때문에 자신의 저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집산주의적 형태의 국가나 소련이 카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그것이 카에게는 19세기와는 다른 20세기의 표준이자 지향점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태도에서 카의 권력 지향적 태도를 읽어냈다면 어떤 근거로 그런 독해가 가능한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유화정책의 경우, 카의 해석이 맞건 틀렸건 간에 카 스스로는 권력이 유일하게 작용한 사례가 아닌 국제정치 영역에서 힘의 요소와 도덕의 요소가 조화를 이룬 사례로 이해했다.²¹⁾ 이러한 본인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유화정책이 카의 권력 중심적이고 권력 지향적인 태도를 드러낸다면 어떤 점에서 그런 것인지 모겐소는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의 비평문은 이런 점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Nationalism and After에 대한 모겐소의 평가 또한 약소국가의 희생이 필연적이라거나 당연하다는 식의 논조를 이 저서의 핵심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반박될 수 있다. 분명 카는 국제정치 현장에서 약소국의 보호와 보존을 당연하고 필수적인 의무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그런 현상이 카로 하여금 Nationalism and After라는 저서를 쓰게 한 동기는 아니었으며 저서의 핵심적인 주제 또한 여기에 있지 않다. 약소국이 국제정치의 현장에서 언제나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 거기서 작용하고 있는 힘의 관계와 영향력을 인정하는 태도이지만, 저서의 핵심에서 벗어나 있는 현상과 그에 대한 카의 입장이 권력에 대한 그의 태도를 결정짓는 데 얼마나 크게 기여할지 의심스럽다.

모겐소의 비평에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결국 자신이 카를 독해한 방식에 대해 스스로 충분한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21) 유화정책에 대한 카의 입장과 관련하여 1939년도 초판과 이후 판본 사이에서 발견되는 차이에 대해서는, Michael Cox, "From the First to the Second Editions of The Twenty Years' Crisis: A Case of Self-censorship?," Carr. 2001. pp. lxxii-lxxxii.; William T. R. Fox, "E. H. Carr and Political Realism: Vision and Revision,"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11 No. 1 (Jan 1985), pp. 1~16 참고.

것이다. 왜 모겐소가 카의 저서에서 특정 제재들을 놓고 카가 권력으로 회귀했다고 보았는지는 그의 비평문 안에서는 찾을 수 없고 이 단계에서는 이제 모겐소라는 인물을 이해하는 또 다른 차원으로 문제가 비화 된다. 즉, 모겐소는 카가 20세기 유럽 정치사상의 위기를 포착해 낸 것에 대해서는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예리함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카가 새로운 20세기적 도덕과 이상을 제시하는 데 결과적으로 실패했으며, 카 스스로 힘의 요소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오히려 힘의 요소만이 존재하는 비현실의 세계로 빠져버렸다고 혹평했다. 그렇다면 모겐소가 보기에 20세기 당시 필요했던 이상과 도덕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하면 그것을 현실에서 구현해 낼 수 있었을지 질문해 봄 직하다. 그러나 이것은 모겐소 자신도 짧은 분량의 카 비평문에서 절대로 다룰 수 없었던 내용이며 이 글의 주제와도 동떨어진 것이다.

모겐소의 비평이 가진 마지막 문제점은 엄밀하게는 카가 가진 분석 틀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모겐소에 따르면 카는 국제정치에서 새로운 도덕과 이상을 탐색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그 이후에는 힘이라는 요소에 함몰되고 말았다. 그 결과 오히려 힘의 요소만이 존재하는 비현실(utopia)에 빠져버렸는데, 이러한 지적은 울프가 행한 카 비판과도 일맥상통하는 지점이다.

울프는 국제정치에서 특정 현상들을 현실 혹은 이상으로 규정하려는 태도 자체가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 좌우된다고 지적했다.²²⁾ 즉, 카가 현실이라고 규정한 내용이 보는 사람에 의해 구애받지 않으면서 언제나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울프의 지적을 모겐소의 비평과 연결해 보면, 카가 국제정치에서 중요하다고 역설한 힘의 작용과 그에 부수한 현상들이 사실은 카가 만든 레토릭의 결과물이며 결과적으로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현실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이 된다.

22) Leonard Woolf, "Utopia and Reality," *The Political Quarterly*, Vol. 11 No. 2 (Apr 1940), pp. 170-172, pp. 174-176.

이러한 문제는 카가 1939년 저서에서 현실과 이상, 도덕과 힘이라는 이분법에 지나치게 의존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며, 모겐소의 카 평가가 한 편에 위치하는 힘의 요소와 또 다른 한편에 위치는 도덕 내지는 이상 사이에서 극단적인 전환을 보여주는 이유도 애당초 카의 이분법이 양극단적인 선택지만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실과 이상, 도덕과 힘이라는 이분법은 1939년 저서에서 강력한 레토릭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카를 이해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하기도 했다. 왜냐면 카를 이해하는 데 힘과 도덕, 현실과 이상이라는 극단적인 두 가지 선택지만을 가능케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는 이상을 추구하다 실패하고 권력으로 회귀한 현실주의자라는 모겐소의 평가에 무조건 동의할 수 있거나 반드시 그리해야만 하는가? 카에게는 모겐소가 강조하였던 초월적인 윤리 기준이란 것이 아예 부재하였는가? 이상의 질문에 대한 답은 1948년 모겐소의 카 비평문이 처음 인쇄된 후 70년이 다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완의 상태로 남아있으며, 모겐소의 결론에 의문을 제기해 보는 것은 시간이 오래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지금까지 1990년대 이전의 카 연구사를 모겐소를 중심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개괄했다. 첫째, 카의 도덕관이 가진 한계점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 부분은 1939년 책이 출간된 이후, 소위 “이상주의자” 들과 모겐소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서는 스미스, 불 등이 공통으로 지적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둘째, 카의 이분법이 가진 한계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현실과 이상, 현실 정치에서 힘과 도덕이라는 이분법으로 인해 카는 주로 국제정치 현실에서 힘에 경도된 현실주의자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의 도덕관은 문제적이고 그가 새롭게 제시한 도덕과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체로 빈약하며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에는 심지어 그가 나름대로 도덕과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히게 되었다. 즉, 카가 제시한 이분법은 이른 시기 그를 평가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했지만 이후 이분법을 구성하고 있는 힘과 도덕, 그리고 카의 현실과 이상이 각각 동등하게 주목받지는 못하였다. 이

러한 상황에서 1990년대가 되어서야 카의 사상에서 힘과 현실 이외의 측면들이 일정하게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제 2 절 1990년대 이후 연구

카에 대한 평가는 1990년대를 기점으로 급격한 변동을 겪는다. 그 변동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TTYC에서 비롯된 전간기(inter-war period) 국제정치 논의에 관한 편견을 극복하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해당 저서가 유명해진 데에는 전간기 다채로웠던 국제정치적 논의들을 카가 “이상주의”(utopianism)라는 이름으로 평가절하하고 그 대안으로서 현실주의를 제시했다는 데 있다. 시간이 지나 카의 책이 국제정치학 분야의 고전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전간기 국제정치를 다룬 당대의 다른 많은 학자와 논객들은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인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여겨져 외면받게 되었다.

이러던 상황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변화하게 되는데, 현실주의적 국제정치관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도의 발로로서 국제정치학사 안에서 수정주의(revisionism)가 대두하게 된 것이다.²³⁾ 즉, 그동안 외면

23) 전간기 국제정치 논의와 제1차 대논쟁을 다룬 연구서와 논문은 여기서 일괄적으로 소개한다. David Long and Peter Wilson (eds.), *Thinkers of The Twenty Years' Crisi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Brian C. Schmidt (eds.),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First Great Debate* (New York: Routledge, 2012); Wilson in Cox, 2000. pp. 165~197.; Lucian M. Ashworth, “Did the Realist-Idealist Great Debate Really Happen? A Revisionist Hist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Relations*, Vol. 16, No. 1 (Apr 2002), pp. 33~51.; *A History of International Thought* (New York: Routledge, 2014); Jeremy Weiss, “E. H. Carr, Normal Angell, and Reassessing the Realist-Utopian Debate,” *The International History Review*, Vol. 35, No. 5 (Aug 2013), pp. 1156~1184.; Peter Lamb, “The British Left in the Problems of Peace Lectures, 1926-38: Diversity that E. H. Carr Ignored,” *The International History Review*, Vol. 36, No. 3 (Sep 2014), pp. 530~549.

받고 있던 전간기 “이상주의적” 사고를 일정하게 복원하여 당대의 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림으로써 국제정치학사의 기존 서사를 완전히 새롭게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다. 수정주의자들은 카가 이상주의자라고 비판, 평가 절하하였던 울프, 짐머른, 에인절 등의 논의를 재검토하고 거기서 일정한 의의를 찾으면서 동시에 이들에 대한 카의 일방적인 매도를 비판하고자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전간기의 다양한 국제정치적 논의들을 현실주의와 이상주의라는 단순한 이분법으로 파악하려는 태도 자체를 지양하였다. 그 결과 현재 국제정치학사에서 전간기는 더 이상 현실주의 대 이상주의의 논쟁이 벌어졌던 시기로 단순하게 이해될 수 없으며 당시 진행되었던 다양한 양상의 국제정치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대두하였다. 따라서, 카는 전간기 국제정치적 논의를 지나치게 단순화했으며, 일정하게 왜곡해서 보여주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두 번째 특징은 1990년대 이후로 카를 현실주의가 아닌 다른 이론적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하여 파악하려는 시도가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비판이론(critical theory), 더 나아가서는 구성주의(constructivism) 측에서도 카를 해당 분야의 선구적인 학자로 평가하고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변화는 국제정치학에서 TTYC 뿐만 아니라 카의 다른 저서들이 주목받으면서 나타나게 된 현상이다. 대표적으로 Conditions of Peace(1942), Nationalism and After(1945), 그 외에도 The New Society(1951), What is History?(1961) 등과 같은 카의 다른 저서들을 읽으면서 일부 국제정치학자들은 카의 현실주의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그 결과 카를 현실주의로부터 일정하게 거리를 두고 이해하려는 시도가 등장·가능하게 되었고, 실제로 1939년도 이외의 저서에서 드러나는 카의 사고가 1990년대 이후 등장한 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뒷받침해 주었다.

현재 카는 현대 국제정치학에서 현실주의의 설립자이자 동시에 비판이론, 심지어는 구성주의와도 관련성을 가질 수 있는 학자로 이해되고 있다. 전체 그림을 그리자면 그렇지만 비중으로 놓고 보았을 때는 여전

히 현실주의 패러다임에서 카를 다루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만큼 현실주의자로서 카의 위상은 여전히 굳건하다. 한편 현실주의가 아닌 다른 이론을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국제정치학 내에서 카의 영향력이 언제나 특정 이론적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한 채 회자되고 있는 현 상황에 주의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실주의 이외의 이론적 패러다임에서 제기된 주장에 맞서, 카를 여전히 현실주의자로 파악하는 사람들도 최근 다양한 수식어를 통해 카의 현실주의가 가진 독특한 측면을 부각하려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상주의적 현실주의” (utopian realism), “역사적 현실주의” (historical realism), “비판적 현실주의” (critical realism) 등이 그것이다.²⁴⁾ 물

24) Paul Howe, “The Utopian Realism of E. H. Carr,”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0, No. 3 (Jul 1994), pp. 277~297.; Ken Booth, “Security in Anarchy: Utopian Realism in Theory and Practice,” *International Affairs*, Vol. 67, No. 3 (Jul 1991), pp. 527~545.; David Goldfischer, “E. H. Carr: A ‘Historical Realist’ Approach for the Globalization Era,”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8, No. 4 (Oct 2002), pp. 697~717.; Robert G. Kaufman, “E. H. Carr, Winston Churchill, Reinhold Niebuhr, And Us: The Case For Principled, Prudential, Democratic Realism,” *Security Studies* Vol. 5, No. 2 (Dec 1995), pp. 314~353.; Milan Babik, “Realism as Critical Theory: The International Thought of E. H. Carr,”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 15, No. 4 (Dec 2013), pp. 491~514.; Daniel Kenealy and Konstantinos Kostagiannis, “Realist Visions of European Union: E. H. Carr and Integration,”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41, No. 2 (Dec 2012), pp. 221~246.; Konstantinos Kostagiannis, “Mind the Gap between Nationalism and International Relations: Power and the Nation-State in E. H. Carr’s Realism,” *International Politics*, Vol. 50, No. 6 (Nov 2013), pp. 830~845.; Whittle Johnston, “The Relevance of E. H. Carr’s Realism in the Post-Cold War World,” W. David Clinton (eds.), *The Realist Tradition and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2007), pp. 161~190.; Charles Jones, “E. H. Carr: Ambivalent Realist”, Francis A. Beer and Robert Hariman (eds.), *Post-Realism: The Rhetorical Turn in International Relations* (East Lansing: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1996), pp. 95~119.; Richard Falk, “The Critical Realist Tradition and the Demystification of Interstate Power: E. H. Carr, Hedley Bull, and Robert W. Cox,” Stephen Gill and James H. Mittelman (eds.), *Innovation and*

론 여전히 강경하게 카를 힘에 경도된 현실주의자로 보고 있는 예외적인 시각도 있다.²⁵⁾ 그러나 국제정치학에서 다루는 카의 저서가 다양해지고 카의 사상이 가진 비(非)현실주의적 요소들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올바른 카 독해라고 보기에 실질적으로 부족함이 많은 주장이다. 그럼에도 현실주의라는 틀은 여전히 카에 대한 많은 이들의 평가를 선형적으로 좌우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이론적인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하여 카를 이해하려는 태도 자체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국제정치학 내에서 필요한 실정이다.

이처럼, 1990년대부터 제기되기 시작한 카에 대한 새로운 주장들은 이론 중심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카를 국제정치 안에서 특정한 이론과 연관하여 보여주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의미이다. 이상주의를 재검토하는 수정주의적 입장에서든 카는 현실주의자이며, 따라서 그가 현실주의라는 특정 이론과 굳건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는 여전히 도전받지 않는다. 비판이론이나 구성주의 또한 특정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하여 카를 재해석하려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다. 다만 비판이론가와 구성주의자들도 각각 동원하는 이론이 무엇인가에서만 차이가 날 뿐이다.

그렇다면 특정 이론적 입장을 전제하는 태도나 더욱 근원적으로 카를 이론가(theorist)로 보는 태도는 올바른 것인가? 이처럼 국제정치학 내에서 카를 이론가로서 이해하고 특정 이론과 긴밀하게 연결하려는 태도에 대해 이 논문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왜냐면 이미 특정 이론을 전제로 한 채 카를 이해하는 방식은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카를 이해하려 한다면 카의 저서들이 담고 있는 본바탕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의 카 연구사는 한 마디로 이론적 패러다임 간의

Transformation in International Studi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pp. 39~55.; 전재성, “E. H. 카의 비판적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 『한국정치학회보』 제33집 제3호, pp. 391~408.

25) John Mearsheimer, “E. H. Carr vs. Idealism: The Battle Rages On,” *International Relations*, Vol. 19, No. 2 (Jun 2005), pp. 139~152.

논쟁과 각축으로 요약된다. 물론, 실질적으로 다양한 이론적 패러다임 간 의견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카에 대한 논의가 더 이상 현실주의 진영에 의해서만 독점되지 않고 그 외에도 다양한 이론 진영에서 진행되게 되었다. 카의 저서에 담긴 사고를 비판이론이나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새롭게 볼 수 있다는 지적은 그동안 발굴되지 않고 있던 카의 다양한 측면들이 부각 되는 기회를 제공했다. 여기서는 비판이론과 구성주의에서 새롭게 해석한 카를 개괄하는 것에 초점을 둘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카의 이분법이 위치한다는 점도 미리 언급한다. 다만 1990년대 이후에는 카의 이분법에 대해 어떤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 있는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카의 사상에 비판이론이란 명칭을 처음 부여한 사람은 로버트 콕스(Robert W. Cox)였다. 그는 비판이론과 문제해결이론(problem-solving theory)을 구분하면서 카의 현실주의는 비판이론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다.²⁶⁾ 그의 논문은 문제해결이론과 구분되는 비판이론의 정의와 특징을 설립하고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었으므로, 카와 그의 사상 자체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지는 않다. 다만,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카 사상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카는 사회와 국가, 그리고 국제 관계로 이어지는 연속성과 상호연관성을 예민하게 감지한 인물로서, 카의 이러한 특징은 그의 저서 *Nationalism and After*에서 강하게 드러난다. 다음으로 카는 역사적 접근법에 기반하여 각 시대별 역사적 맥락을 중시함으로써 그의 사상은 현실주의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비판이론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카의 사상은 비코(Giambattista Vico)적 세계관 그리고 역사적 물질주의(historical materialism)와 함께 비판이론에 포함될 수 있다.²⁷⁾

콕스에 의해 카의 이론은 국가(nation-state) 중심적인 현실주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비판이론으로서 새롭게 이해될 수 있는 여건이 마

26) Robert W. Cox, "Social Forces, States and World Orders: Beyo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10, No. 2 (Jun 1981), pp. 126~155.

27) Cox. 1981. p.127, p.131, p.138.

련되었다. 콕스의 카 이해는 비슷한 시기(1986년) 스미스(Michael J. Smith)의 카 이해와 비교했을 때 대단히 획기적이었다. 스미스는 카의 현실주의가 막스 베버의 현실주의와 비교했을 때, 힘의 요소를 강조한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국가주의적 신념에서는 두 사람의 현실주의가 차이점을 보인다고 보았다.²⁸⁾ 강력한 국가적 지도자를 염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카는 베버와는 다른 현실주의를 보여주었다는 것인데, 얼핏 스미스의 요지와 비판이론으로서 카의 특징이 일맥상통할 수 있는 지점으로 보이기도 한다. 스미스의 분석에서 카의 이론은 여전히 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제한적이고 상대적인 도덕관을 한계점으로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국가 중심성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는 개연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미스의 분석은 콕스의 비판이론적 카 해석과 상통한다기보다는 모겐소적인 카 비평의 연장선에서 있다. 즉, 스미스의 결론도 모겐소의 결론처럼 카는 다른 그 어떤 요소보다도 권력 내지는 힘 그 자체에 몰두하였으며 힘이 가진 편재성(遍在性)과 절대적인 영향력으로 인해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는 것과 그런 현실에 적응하는 것을 강조하는 데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²⁹⁾ 즉 모겐소의 표현처럼 스미스의 분석에서도 카는 힘의 요소만이 존재하는 비현실로 빠져버린 것이다.

스미스와 콕스의 카 이해를 비교해 보았을 때, 1980년대 이미 콕스에 의해 카에 대한 전혀 다른 이해의 실마리가 드러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스미스는 저서 제목 *Realist Thought from Weber to Kissinger*가 명시하듯이 카를 “현실주의 사상가” 중 하나로서 파악한 반면, 콕스는 비판이론의 프레임에서 카를 이해했고 그 결과 두 사람의 카 해석은 일견 접점이 발생하는 듯 보이지만 서로 전혀 다른 곳을 맞추고 있다. 카의 이론을 비판이론적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는 이후 1990년대 앤드류 링클레이터(Andrew Linklater)에 의해 계승되었다. 링클레이터는 카를 현실주의자로 파악하는 기존 시각에 맞서 본격적으로 비판이론적 측면에서 카를 분석한 학자였다. 그 역시 카의 저서

28) Michael J. Smith, *Realist Thought from Weber to Kissinger*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86), p.69.

29) Smith. 1986. p.77.

중 Nationalism and After에 착목하여, 이 저서에서 드러나는 새로운 형태 내지는 확장된 단위의 정치 공동체(political community)에 대한 카의 이론을 환기(喚起)시켰다.³⁰⁾ 1980년대 후반까지도 견재했던 모겐소식의 카 이해와 그리고 링클레이터 이후 카 이해에서 나타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논조를 비교해 보면, 1990년대 링클레이터의 비판이론적 해석을 카 연구사에서는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bifurcation)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Nationalism and After라는 카의 1945년도 저작에 대해서 링클레이터가 해석하는 방식과 모겐소가 해석하는 방식은 극단적인 차이를 보여준다. 모겐소는 이 저서에 담긴 카의 저의를 권력 지향적이라고 파악한 반면, 링클레이터는 이 책이 국제정치학 분야에서 유례가 없었던 책이라고 높이 평가한다. 어떤 점에서 위의 책이 혁신적이었는가 하면, 바로 정치 단위의 확장과 변화에 대한 카의 선견지명 때문이었다. 이처럼, 1990년대가 들어서면 카에 대한 평가가 이전과는 확연히 차이를 보임을 이 한 가지 예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링클레이터의 예와 같이 비판이론적 관점이나 다른 이론적 관점에서 해석한 카는 이전까지 카 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카의 새로운 측면들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다.

비판이론 외에 구성주의 측에서도 카를 새롭게 보려는 움직임이 미미하게나마 포착되고 있다. 티모시 던(Timothy Dunn)을 시발점으로 하여, 벤둘카 쿠발코바(Vendulka Kubalkova)가 사실상 거의 유일하기는 하다. 후자의 경우는 카를 20세기 후반 본격화되기 시작한 탈실증주의(post-positivism), 더 나아가 반(反)실증주의(anti-positivism) 움직임의 선구자로 이해하고 있다.³¹⁾ 쿠발코바의 해석은 링클레이터의 새

30) Andrew Linklater, "The Question of the Next Stage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 Critical-Theoretical Point of View,"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1, No. 1 (Mar 1992), pp. 77~98.; "The Transformation of Political Community: E. H. Carr, Critical the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3, No. 3 (Jul 1997), pp. 321~338.

31) Vendulka Kubalkova, "The Twenty Years' Catharsis: E. H. Carr and IR,"

로운 해석처럼 현실주의와는 전혀 다른 이론적 입장에서 카에게 접근한다. 하지만 쿠발코바는 링클레이터와는 전혀 다른 측면을 주목하며 역시 현실주의 만이 아니라 다각도에서 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탈실증주의라는 해석의 틀을 제외하고 쿠발코바의 카 이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카에 대한 변증법적인 접근과 이해이다. 쿠발코바는 지금까지 카에 대한 기존 연구 중에서 극소수에 해당하는 마르크스주의적 해석을 시도한다.³²⁾ 쿠발코바는 카의 1939년 저서를 이해하는 데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전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이 학계에서 본격적인 논증과 검증의 대상이 되지는 못했던 점이나 쿠발코바의 주장과 근거가 탄탄하고 치밀하게 제시되지 못한 관계로 현재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밝힐 만한 시점은 아니다.

그렇다면 아직은 한계가 분명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카의 1939년 저작에 대한 변증법적 접근을 눈여겨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쿠발코바의 변증법적 접근이 앞서 링클레이터의 새로운 접근과 일정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공통점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1939년의 저서에서 사용된 카의 이분법을 변용시켜 가면서 카에 대한 자신들의 이해를 쇄신해 나갔다는 점이다. 더 정확히는 이 두 사람이 카의 이분법에서 상정 가능한 현실주의와 이상주의를 초월하는 “제3의 길”을 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즉, 1990년대 이전까지 카가 현실과 이상, 힘과 도덕의 이분법상

Vendulka Kubalkova, Nicholas Onuf, and Paul Kowert (eds.), *International Relations in a Constructed World*, (New York: M. E. Sharpe, 1998), pp. 25~57.; Sean Molly, “Dialectics and Transformation: Exploring The International Theory of E. H. Carr,”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tics, Culture and Society*, Vol. 17, No. 2 (Dec 2003), pp. 279~306도 함께 참고할 것.

32) 카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해석을 시도한 인물로는 쿠발코바를 제외하고 크리스 브라운(Chris Brown)이 유일할 듯하다. 그의 다음 저서를 참고. Chris Brow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New Normative Approaches* (Oxford: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2).

현실과 힘이라는 한쪽 측면에서 부각 되어 현실주의자로서만 이해되었다면, 1990년대 이후부터는 이러한 이분법을 초월한 “제3의 길”, 즉 비판이론가 아니면 구성주의자, 더 정확히는 탈실증주의자로서 이해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카 해석에서 일대 전환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경향은 TTYC에서는 전혀 상정되지 않았던 이분법의 초월, 변증법으로의 전환, ‘정반합’에서 새로운 제3의 길인 ‘합’(synthesis)의 상정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다시 말해, 1990년대 이후 비판이론가나 구성주의자들은 카를 새롭게 해석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TTYC에서 활용된 이분법에 일정한 수정을 가했다. 사실은 제3의 길이 숨겨져 있었다, 내지는 제3의 길이 상정되어야만 한다는 식으로 말이다. 이러한 현상은 물론 1990년대 이후 국제정치학 내에서 현실주의도 이상주의도 아닌 제3의 새로운 이론적 패러다임이 등장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즉, 1990년대 새롭게 등장한 비판이론이나 구성주의 측은 현실주의가 장악하고 있는 국제정치학의 판도를 바꾸고 스스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실주의 설립자로 알려진 카에 대한 논의를 일신했다.

이것이 정당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할 수 없다. 1990년대 이후 국제정치학계의 변화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새롭게 등장한 이론 진영의 카 이해가 올바른 것인가는 여전히 학계가 규명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1939년도의 저서에서 현실과 이상을 초월한 제3의 길이 제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필연적으로 쿠발코바의 주장인 카에 대한 변증법적 해석 내지는 마르크스주의적 해석이 정당한가 아닌가 더 깊이 있게 논의가 진행된 후에야 완전히 해소될 것이다. 현재까지, 1990년대 이후 비판이론이나 구성주의적인 카 해석 모두에서 사용하는 “제3의 길”이라는 표현은, 각자의 패러다임에 입각한 카 독해를 정당화하려는 하나의 수사적 의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며, 이러한 표현의 사용은 같은 시기 변화된 국제정치학계의 현실이 크게 반영된 결과이다. 즉, 현시점에서 지금까지의 카 연구사를 평가내려보자면, 1990

년대 이후 새로운 카 해석에 대한 검증 절차가 요구되고 있으며, 1940년대 이래로 카 이해를 규정해 온 이분법에 대한 학계의 완결적인 입장이 도출된 것 또한 아니라고 정리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카를 이해하는 스펙트럼은 대단히 다채로워졌다. 1990년대 이전 시기부터 상존해온 모겐소식의 권력, 국가 중심의 현실주의적 해석이 한 편에 있고, 1990년대 이후 국가 중심적 분석에서 탈피한 비판이론적 접근법과 카의 사상에서 탈실증주의적 측면에 주목한 구성주의적 접근법이 다른 한 편에 위치한다. 그뿐만 아니라, 카의 이론을 기본적으로는 현실주의적이라고 파악하면서도 현실주의에 포섭될 수 없는 다른 특징들을 같이 주목하고 있는 절충적인 입장도 존재했다. 이처럼 최근에는 카를 이해하는 데 최소 3개, 4개의 서로 다른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여기에 더해 특정한 이론적 틀에 입각한 카 이해를 거부하는 학자들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카의 이른 시기 저작 활동에 주목하여 카의 문제의식을 근대 유럽의 비합리성(irrationality)에 대한 폭로에서 찾거나, 외교관으로 활동했던 카의 개인사적인 배경으로부터 카의 현실주의를 새롭게 이해하려는 시도 등이 그 예이다.³³⁾

그 결과 카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1990년대 이후 대단히 어렵고 복잡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문제는 그것이 필요 이상으로 복잡해져 버린 데 있다. 그 이유는 전적으로 카에 대한 독해에 이론적 패러다임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데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 또한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1940년대 이래로 카가 사용한 이분법은 언제나 카의 이론에서 문

33) Kuniyuki Nishimura, "E. H. Carr, Dostoevsky, and the Problem of Irrationality in Modern Europe," *International Relations*, Vol. 25, No. 4 (Mar 2011), pp. 45~64.; Keith Smith, "The Realism that Did Not Speak Its Name: E. H. Carr 's Diplomatic Histories of The Twenty Years' Crisi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Feb 2017), pp. 1~19. 카의 이론을 보수주의(conservatism)와 급진주의(radicalism) 사이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Peter Wilson, "Radicalism for a Conservative Purpose: The Peculiar Realism of E. H. Carr,"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30, No. 1 (Jan 2001), pp. 123~136 참고.

제점으로 지적되거나, 카를 이해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그런데 1990년대 이래로도 이분법에서 비롯된 문제는 제대로 극복되거나 결론지어지지 못했다. 카를 비판이론이나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새롭게 바라본다고 하여 이분법의 틀에서 비롯된 문제들이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비판이론이나 구성주의 측은 카가 제시한 이분법을 변증법으로 변형시켜 가면서까지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했지만, 충분한 정당성을 가진 해석은 아니었다. 카는 자신의 1939년도 저서에서 이분법을 제시하면서 결코 이분법의 초월이나 제3의 길을 상정한 적이 없었다. 더 근본적으로는 카를 변증법론자라거나 마르크스주의자로서 이해할 수 있는가 여부가 걸려있는 문제이지만, 이에 대해 긍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은 어려울 듯하다.³⁴⁾

이분법과 관련하여 이 글에서 언급하고 넘어갈 사안은 우선 두 가지다. 첫째, 카가 의존한 이분법의 틀이 갖는 문제점은 1940년대에 이미 많은 지적이 나온 대로, 철학적 기반의 미비에서 나온 것이며 이에 대한 모겐소 등의 비판은 정당한 것이었다. 둘째, 그러나 카에 대한 평가가 그가 1939년 작 단 한 권에서 사용한 도식적 틀에 의해 좌우될 필요는 없다. 아울러 이분법적 틀이 가진 문제점 하나로 카라는 학자의 중요성과 그의 1939년 저서가 가진 의미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카가 1939년 작 외에도 다른 많은 저서를 썼던 것을 고려하면, 그의 다른 저서나 거기에 나타난 그의 전체적인 사고의 틀을 1939년 작 한곳에서 사용된 도식을 적용하여 재단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이다. 물론, 그 전에 카의 다양한 저작을 섭렵한 깊이 있는 카 이해가 시도된 적이 있었는가 질문해 봐야겠지만 말이다.

34) 카는 자전적 글에서 자신이 마르크스주의자인가 자문하는데,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하고 있다. E. H. Carr, "An Autobiography" in Cox. 2000. pp. xiii~xxii. 카는 자신이 마르크스로부터 일정하게 영향을 받았다는 점은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지만, 마르크스와 일정하게 사고방식이나 인식 등에서 공통점을 보여줄 뿐 이것만 가지고 그를 마르크스주의자로 생각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카가 차후 진행한 소비에트 혁명사 연구 또한 마르크스주의적인 혁명에 대한 열정과 관심의 발로는 아니었다. 카의 혁명 연구는 마르크스주의의 영향력이 아닌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것이 그 연구의 목적과 카의 의도를 파악할 때 더욱 유용하며 정확하다.

또한 1939년도 저서 안에서도 카가 현실과 이상, 힘과 도덕의 이분법을 중요한 틀로 동원하고 있다고 하여, 카가 양극단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한 것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으며 우리의 카 이해에서도 양극단 중 하나를 택해야 할 이유는 없다. 실제로 카 자신도 양극단 중 하나를 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현실과 이상, 힘과 도덕의 이분법에 대한 입장을 대단히 모호하게 제시·처리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반대로, 어쩌면 카는 그런 모호한 입장을 실제 현실에서 가능한 최선으로 생각하고 당연시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리는 카가 이해하고 제시한 현실과 이상, 힘과 도덕의 양 측면을 두루 살펴보아야 한다.

다시 1990년대 이래로, 카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다양한 스펙트럼을 두루 살펴봐야 하는 수고로운 상황을 상기해 보자. 이러한 복잡성은 카의 활발한 저술 활동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지만, 그간 학계의 노력이 카 사상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측면도 적지 않다. 특히 1990년대 이래로 비판이론과 구성주의에서 카를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카에 대한 논의에서 이론적 패러다임과 연관성을 가진 독해 내지는 해석들이 주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자칫하면 카에 대한 논의가 국제정치학 안에서 그가 현실주의자인지, 구성주의자인지, 아니면 비판이론가인지 하는 의미 없는 논쟁으로 변질된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무엇이 카를 이해하기에 더 적합한 이론인가 하면, 사실 그 어떤 이론적 틀도 카를 이해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특정 이론은 카의 사상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한 요소들을 부각해서 보여줄 수는 있어도 카의 전체 사고에 깔린 핵심적인 문제의식을 포착해내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한다는 걸 최근까지의 카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카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국제정치 이론가로서 인정하거나 명시했던 적은 결단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카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최근까지 논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카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무엇이었는가?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답은 지금까지도 제시된 바가 없다. 우

선, 이상과 현실, 힘과 도덕의 이분법은 아니었다. 무엇이 카로 하여금 긴 시간 동안 대단히 이질적으로 보이는 주제들(러시아 혁명가와 문학가, 국제정치, 영국 외교사, 20세기 초 유럽사, 소비에트사 등)에 대한 글을 쓰게 만든 것이었을까? 이처럼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는 공통적 문제의식이라는 것이 애당초 카에게 존재하고는 있었던 것일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 역시, 카의 전체 사상을 관통하는 문제의식으로 들어갔을 때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는 국제정치학계 차원에서 현재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제 3 장 혁명가 연구: 카의 라이트모티프로서 혁명(1)

이제부터 논문은 본격적으로 E. H. 카의 라이트모티프(leitmotif)로서 혁명에 대한 글을 소개·분석한다. 지금까지 국제정치학계는 카의 이론적 소속처에 관한 소모적인 질문에만 몰두한 채 정작 카가 자신의 전체 학문 생애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논의했는지 놓쳐왔다. 카의 전체 학문 생애를 관통하는 근원적이고 반복적인 연구 주제로서 이 논문은 혁명 혹은 혁명가를 제시하는 바이다.

카는 학자가 되기 이전, 직업 외교관으로 일하던 시절부터 러시아 문학가, 혁명적 사상가에 관한 관심을 구체화하여 책으로 출간하였다. 그 결과물이 도스토옙스키, 바쿠닌, 마르크스, 알렉산드르 게르첸(Alexander Herzen) 등에 대한 전기(傳記) 4권이다. 1930년대 출간된 4권의 전기물은 본격적인 학문 활동을 시작하기 전 러시아와 소비에트에 대한 카의 관심이 어떻게 촉발되고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저서들이다. 실제로 카는 자전적 글에서도 자신을 역사가로 이끈 사건으로 러시아 혁명을 꼽았으며, 자신이 외교관 시절 수행했던 19세기 러시아 문학가와 혁명가 관련 연구 및 저술을 통해 마침내 자유주의적인 기존 서유럽 사회를 상대화할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³⁵⁾ 이후 학자가 된 카는 1940년대에 들어서도 생시몽, 프루동, 게오르기 플레하노프(Georgi Plekhanov), 조르주 소렐(Georges Sorel), 윌리엄 갤러처(William Gallacher) 등 다양한 혁명가에 대한 에세이를 서술하기를 멈

35) E. H. Carr, "An Autobiography," in Michael Cox (eds.), *E. H. Carr: A Critical Appraisal*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0), p.xv, p.xvii. 카의 개인사에 관해서는 다음 평전도 참고할 것. Jonathan Haslam, *The Vices of Integrity: E. H. Carr 1892-1982* (London: Verso Books, 2000). 이 책은 한국에서도 번역된 바 있다. 조너선 해슬럼 저, 박원용 역, 『E. H. 카 평전: 사회적 통념을 거부한 역사가』 (서울: 삼천리 2012).

추지 않았다. 즉, 이미 학자가 되기 이전 이른 시기부터 카는 19세기 러시아라는 시공간에서 발견한 반(反)자유주의적 사상과 움직임에 매료되어 학자가 된 이후에도 같은 주제에 관한 탐구를 멈추지 않은 것이다. 외견상 카는 직업 외교관, 국제정치학과 교수, 역사학자 등의 다양한 직업을 거쳐간 것은 물론 국제정치, 영국 외교사, 러시아사 등 다양한 주제의 글을 서술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의 학문 및 저술 활동은 결과적으로 혁명 내지는 혁명가라는 하나의 관심사가 확대·발전해 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전제 아래 이 글은 카의 다양한 저서들에 그의 핵심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의식으로서 혁명이 어떻게 서술되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국제정치학계에 소개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본고는 학계에 보편적으로 알려진 3시기 구분법, 즉 카의 학문 생애를 서로 다른 세 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각각의 시기에 저술된 저서들을 분별하고 서로 배타적으로 취급하는 태도를 배격한다.³⁶⁾ 대신 카의 학문 생애는 혁명(가)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수렴하고 그가 저술한 저서들의 대부분도 혁명이라는 라이트모티프와 불가분적으로 혹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3시기 구분법은 자체적으로 갖는 이점이 있을지는 모르나 결정적으로 카를 이해하는 데 그의 핵심 문제의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방해한다. 따라서 더 이상 카의 학문 생애나 저서를 3개의 서로 다른 시기 혹은 주제로 구분하지 않고 여러 저서가 공유하는 공통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의식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 카의 다양한 저서들을 학문 분과나 관련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폭넓게 살펴봄으로써, 카의 근원적인 문제의식은 혁명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탐구해야 할 차례임을

36) 이러한 3시기 구분법은 다음 글들을 참고. Michael Cox, "A Brief Guide to the Writings of E. H. Carr," in E. H. Carr, *The Twenty Years' Crisis 1919-1939: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reissued with a new introduction and additional material by Michael Cox* (New York: Palgrave, 2001), pp. lix~lxiii; Fred Halliday, "Reason and Romance: the Place of Revolution in the Works of E. H. Carr" in Cox. 2000. pp. 258~279.

자각할 수 있다. 우선 이 논문은 혁명이라는 카의 중요한 학문적 주제를 그가 수행한 혁명가 연구와 실제 역사적 사건으로서 혁명을 분석하고 있는 역사적 연구 두 가지로 구분하여 각 주제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장을 할애한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카가 그의 전 학문 생애에 걸쳐 다양한 저서에서 혁명 혹은 혁명가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 1 절 19세기 러시아의 사상 지형

카의 혁명가 연구는 19세기 러시아의 사상 지형 및 해당 시기 사상가들에 관한 연구에서부터 시작된다. 일찍이 1930년대 직업 외교관으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19세기 문학과 혁명적 사상가에 대한 글을 쓴 바 있었던 카는 1940년대에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다른 시대 다양한 국적의 혁명가들에 관한 글쓰기를 이어나간다. 이러한 1940년대 혁명가 관련 카의 글들은 1950년 *Studies in Revolution*이라는 제목 아래 한 권의 책으로 출판된다. 이 책의 한 장인 “Some Nineteenth-Century Russian Thinkers”를 통해 우선 19세기 러시아의 사상 지형에 대한 카의 분석을 확인한다.

카는 19세기 러시아 사상 지형을 혁명의 발전 과정에 따라 1840년대, 1860년대, 1870년대, 1880년대 이후의 시기로 세분화하여 서술하고 큰 틀에서 같은 시기를 서유럽 지향적 사고(western)와 러시아 국수주의(Slavophile)라는 두 개의 대립적인 입장이 등장한 시기로 결론짓는다.

1840년대 러시아의 혁명적 사상은 미하일 바쿠닌(Mikhail Bakunin), 알렉산드르 게르첸(Alexander Herzen), 비사리온 벨린스키(Vissarion Belinsky) 세 인물에 의해 대변된다. 해당 시기는 러시아 혁명이 발생하기 직전의 시기와 비교했을 때 러시아의 혁명 사상이 여전히 서유럽 혁명 사상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있던 때였다. 위의 세 명 중 바쿠닌과 게르첸은 실제로 서유럽으로 이주한 망명가들이었고 그곳에서 서유럽의 혁명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19세기 러시아적 요소들을

접목해 나간다. 다시 말하자면 해당 시기 동안 서유럽에서 탄생한 혁명 사상이 러시아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러시아적인 요소가 서유럽의 혁명 사상에도 주입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아직 러시아 혁명과 70여 년이나 동떨어진 시기인 만큼 1840년대 러시아 사상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자세한 카의 분석을 접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같은 시기 벨린스키에 의해 유물론(materialism)을 기반으로 하는 혁명적 움직임이 확립되고 이후 1860년대로 이어진다는 점이 눈에 띈다.³⁷⁾

이후 1860년대와 관련하여서 카는 1840년대 혁명 사상을 계승한 세 명의 인물에 대한 소개를 이어나간다. 그들은 니콜라이 체르니셴스키(Nikolay Chernyshevsky), 니콜라이 도브롤류보프(Nikolay Dobrolyubov), 드미트리 피사레프(Dmitry Pisarev)이다. 이 중 체르니셴스키는 카에 의하면 러시아 혁명 사상에서 고전에 해당하는 장편 소설 *What is to be Done?*을 저술한 작가이자 문예 비평가로 소개되고 있으며, 그의 글은 방대하여 총 10권 분량의 전집으로도 간행된 바 있다고 한다. 그의 협력자이기도 했던 도브롤류보프는 자유주의적인 부르주아지(bourgeoisie)를 비판한 것으로 유명하며 마지막 피사레프의 경우는 이반 투르게네프(Ivan Turgenev)의 소설 *Fathers and Sons*의 한 등장 인물을 혁명적 유물론자로 재해석하며 유명세를 얻는다. 이 이상으로 각 인물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해당 장에 제시되지 않았지만 장기적인 혁명의 과정 및 흐름에서 1860년대를 정리하자면, 해당 시기는 이후 1870년대 실천적 혁명가들을 탄생시킨 시기로서 중요성을 지녔다.³⁸⁾

1870년대는 러시아 혁명 사상의 측면에서 자세한 서술이 불가능한 시기이다. 왜냐하면 해당 시기에는 혁명과 관련된 철학적 혹은 이론적 논의가 약화하고 실천적 움직임이 중심이 되어 대중에 대한 선교 사업 아니면 테러 둘 중 하나의 형태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³⁹⁾ 혁명적 움직임

37) E. H. Carr, *Studies in Revolution* (New York: Grosset & Dunlap, 1964), pp. 89~90.

38) Carr. 1964. pp. 90~91.

39) Carr. 1964. p.91.

임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던 1870년대를 지나 1880년대에 이르면 1917년 러시아 혁명 전까지 러시아 국내 차원에서 혁명 사상의 발전 과정상 그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된다.⁴⁰⁾

1880년대에 이르면 1870년대 나로드니키(Narodniki)가 시행했던 “인민 속으로” (going to the people) 전략이 실패함에 따라 혁명 사상의 혁신이 화두로 떠오른다. 동시에 혁명 활동의 일환으로서 시행되고 있던 테러리즘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등장하였다. 해당 시기의 중요한 혁명가로서 러시아에서는 게오르기 플레하노프가 있다. 그는 1883년 최초로 러시아에 마르크스주의를 도입한 인물이었다.⁴¹⁾ 이후 1890년대가 되면 레닌의 첫 번째 저서 *On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in Russia*가 출간되면서 러시아의 혁명 사상은 본격적으로 서구식 부르주아 자본주의화와 함께 그것을 넘어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대한 지향성까지 내포하게 된다.⁴²⁾

1890년대까지 이상의 발전 과정을 거처온 러시아 혁명 사상은 그 전체 과정을 다시 한번 서구 지향적 태도와 러시아 국수주의적 태도 사이의 긴장과 대립이라는 측면에서 개괄할 수 있다. 이러한 긴장과 대립은 19세기 러시아의 혁명적 사상가들은 감히 초극할 수 없었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했다.⁴³⁾

1840년대 들어 러시아에서는 이반 키리엵스키(Ivan Kireevsky)와 알렉세이 호미야코프(Alexey Khomyakov)에 의해 국수주의 사상이 태동하게 되었다. 같은 시기 대표적인 러시아의 혁명적 사상가들은 러시아의 미래는 철저하게 서구적인 자유민주주의화를 실현함으로써 개도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서구 지향적 태도에 반발하여 러시아 국수주의가 발생하게 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였다. 러시아 국수주의자들은 러시아의 역사와 문명이 지닌 고유한 가치를 설파하고 그것이 서구적 기준으로는 재단되지 않는 독자성을 보유한다는 점을 강조했다.⁴⁴⁾

40) Carr. 1964. p.92.

41) Carr. 1964. p.92.

42) Carr. 1964. p.92.

43) Carr. 1964. p.93.

44) Carr. 1964. pp. 93~94.

1840년대 탄생한 러시아 국수주의는 1870년대가 되면 변질과 퇴보를 겪게 된다. 1840년대에 이어 1870년대 러시아 국수주의자들을 제2세대로 규정할 때는 이 시기가 되면서 러시아 국수주의는 천박한 러시아 민족주의의 형태로 바뀌게 되고 그런 현상이 니콜라이 다닐롭스키(Nikolay Danilevsky)나 도스토옙스키의 글에서도 드러나고 있다고 보았다.⁴⁵⁾

러시아 내 서구 지향성과 그 반대 극단에 있는 러시아 국수주의는 국가와의 관계 내지는 혁명에 관한 입장에서는 다소 불분명한 관계성을 보여준다. 양극단 중 어느 입장에 속하더라도 당시 러시아 지식인 중 관료주의적이었던 제정 러시아에 대해 불만을 품지 않은 사람은 없었으며, 국수주의자 제1세대는 국가를 악으로 취급하기도 했다.⁴⁶⁾ 그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한 태도는 혁명에 대한 러시아 사상가들의 태도 또한 좌우했다. 마르크스가 혁명에 대하여 국가 권력의 탈취와 적극적인 활용을 전제하는 자코뱅적인 이해를 대표한다면, 바쿠닌은 국가 권력의 철저한 배제와 폐지를 지향하는 아나키스트적 혁명 이해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⁴⁷⁾

이상과 같은 카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19세기 러시아 사상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카는 19세기 러시아 사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소비에트 정권이 보여준 특출난 성격들을 이해하려면 19세기 러시아 사상이라는 배경 지식 없이는 불가능하다.”⁴⁸⁾ 소비에트 정권의 여러 가지 특징만이 아니라 사실은 볼셰비키(Bolshevik)의 러시아적 기원 및 성공 원인 등도 19세기 러시아의 사상 지형과 특히나 러시아 국수주의의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서는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카의 결론이다.

결국, 러시아 혁명의 발생과 이후 소비에트 정권의 성립은 서유럽적인 혁명 사상이 러시아라는 토양과 만나 발생한 역사적 사건이자 현상

45) Carr. 1964. p.95.

46) Carr. 1964. p.101.

47) Carr. 1964. p.101.

48) Carr. 1964. p.103.

이었다. 그런 이중적인 성격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카는 19세기 러시아 사상 지형을 통해 러시아 혁명과 소비에트 정권의 러시아적 특징을 이해하고자 하였고 거기에 일정한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19세기 러시아의 배경과 맥락 속에서 서유럽에서 탄생한 혁명 사상으로서 마르크스주의가 러시아에 유입되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는 시공간을 이동하여 19세기 서유럽의 가장 중요한 혁명적 사상가로서 마르크스에 대한 카의 분석을 개괄한다.

제 2 절 마르크스의 혁명 사상

카는 1934년 마르크스에 대한 전집을 출간한다.⁴⁹⁾ 하지만 책을 출간했을 당시에는 그도 마르크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고백한 바에 따르면 오히려 마르크스에 관한 전기를 출간한 이후에 마르크스에 관한 관심과 공부가 심화 된 결과 점차 그의 사상을 서유럽의 부르주아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⁵⁰⁾

마르크스와 그의 사상에 대한 카의 분석은 카와 마르크스주의의 관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는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간 대립 및 체제 경쟁이 첨예화되었던 냉전 시기 소비에트사를 저술하면서 친소비에트적이라는 평가를 넘어 공산주의자라는 오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렇다면 카는 실제로 마르크스주의자였는가? 카는 마르크스주의를 어떤 관점에서 파악했는가?

카와 마르크스 두 사람은 모두 자유주의 시대의 계승자들이었다.

49) 카는 이 책의 결과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불만족했고 1938년 재판을 찍어낸 이후로 책의 재출간 요청에 절대로 응하지 않았다. Carr, "An Autobiography," in Cox. 2000. p.xviii. 그로 인해 카의 마르크스 전기는 국내 번역본으로는 물론 영문 판본으로조차 접하기 어려운 책이 되고 말았다. 그나마 1960년대 일본에서 재출간된 번역본이 남아있었기에 그 내용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했다. E. H. 카著, 石上良平訳, 『カール・マルクス, その生涯と思想の形成』(東京: 未來社, 1965).

50) Carr, "An Autobiography," in Cox. 2000. pp. xviii~xix.

그러나 카를 마르크스주의자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카와 마르크스 사이에서 일정하게 세계관 내지는 사유 방식상의 공통점이 발견된다고 해도 카를 마르크스주의자로 볼 수는 없다.⁵¹⁾ 왜냐하면 스스로 마르크스주의자임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마르크스주의와 분명하게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해서 냉전이라는 시대적 배경 아래 외압에 의해 혹은 외압을 의식하고 그랬던 것은 아니다. 그는 사상가로서 마르크스의 위대함과 마르크스적 사고가 세계사에 미친 영향력을 인정하는데 언제나 주저함이 없었다.⁵²⁾ 흥미로운 것은 마르크스에 대하여 실제 카가 분석하고 있는 내용이다.

카에 의하면 마르크스는 프랑스 혁명이 남긴 세 가지 유산으로서 자유와 평등에 대한 강조, 역사상 진보에 관한 믿음, 생산성에 대한 높아진 강조점을 모두 계승한 혁명가였다.⁵³⁾ 동시에 그는 대중 사회의 확대라는 역사적 현실 속에서 대중을 프롤레타리아(proletariat)라는 혁명의 전위대로 승격시킨 장본인이었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 성립할 새로운 사회에서 생산력 증대와 계급 없는 사회가 실현될 것이라는 이상을 새로이 제시하였다. 이 모든 요소가 함께 작용하여 그는 19세기 서유럽 출신으로서 서유럽의 자유주의적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대항하는 가장 철두철미한 혁명적 사상가가 되었다.⁵⁴⁾ 서유럽의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근저에서부터 위협한 혁명적 사상가가 사실은 프랑스 혁명의 가장 투철한 계승자였다는 카의 관찰과 분석은 그것이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도그마적 해석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51) 마르크스주의는 대단히 다층다면적인 사상이기에 마르크스주의에 담긴 의미를 정확히 정리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자본주의의 종말, 프롤레타리아 혁명론 및 영구혁명론, 계층 없는 사회라는 이상향을 주장하는 이데올로기적인 마르크스주의는 이 글에서 배제하고자 한다. 카 또한 “당신은 마르크스주의자입니까?”란 질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긍정하면서도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부정하는데, 그가 자신의 정체성으로서 마르크스주의를 부정했던 이유도 이데올로기화된 마르크스주의로부터 거리를 두기 위함이었다고 생각된다. Carr, “An Autobiography,” in Cox. 2000. pp. xxi~xxii.

52) Carr, “An Autobiography,” in Cox. 2000. p.xxi.

53) E. H. Carr, *The October Revolution: Before and After* (New York: Alfred A. Knopf, 1969), p.5.

54) Carr. 1969. p.5; Carr, “An Autobiography,” in Cox. 2000. p.xxi.

유럽의 자유주의 시대를 가장 강렬히 비난했으면서도 동시에 그 시대의 유산을 일정하게 계승하고 있다는 점은 카와 마르크스 사이에서 발견되는 유사점이기도 하다. 카와 마르크스는 실은 출신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19세기 서유럽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이때 19세기 서유럽이라 하면 일명 “자유주의 시대”에 속하는 시공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일정한 틀 안에서 카와 마르크스는 자신이 속한 시공간의 체계와 전통을 상대화하면서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일정하게 제시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카의 사고는 절대로 자유주의 시대의 테두리 안을 벗어나지 않았다. 자신을 “신념과 낙관주의로 가득 찬 위대한 빅토리아 시대 중에서 대낮이 아닌 저녁놀 속에서 성장”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대목이나 카의 유고 당시 타마라 도이처(Tamara Deutscher)가 작성한 회고록 속 묘사를 보아도 카는 이 점을 스스로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주변 사람도 그것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여겨진다.⁵⁵⁾ 카가 20세기적 도덕으로 새롭게 제시한 사회적 가치의 예로서 사회적 책임 의식, 사회적 평등, 개개인을 위한 복지 제공 등은 19세기의 서유럽과는 전혀 이질적인 공간이나 거리감 있는 시대 속에서 발견된 것들이 아니었다. 사회적 민주주의를 20세기 새로운 민주정체의 이상으로 제시했을 때도 그의 방점은 민주주의에 찍혀있었지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데 있지는 않았다.

이상의 이유에서 카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체제를 근본에서부터 번복하려고 시도한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사고의 소유자였다기 보다는 기존 체제를 시대에 알맞게 변화시키려는 온건한 수정주의자 정도로 이해될 수 있다. 온건한 수정주의자로서 그는 여전히 자신이 속한 구시대의 유산을 일정하게 계승하고 있었다. 바로 이런 점이 마르크스와 카가 공유하는 지점이었다. 동시에 바꿔 말하자면 이 외에는 카와 마르크스 사이에서 공통점을 크게 발견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카

55) E. H. 카 저, 김택현 역, 『역사란 무엇인가』 (서울: 까치, 2010), p.14; Deutscher. 1983. p.84.

는 마르크스주의자라고 할 수 없다. 동시에 그는 철저한 사회주의자도 아니었다. 다만 그의 혁명 연구는 사회에 방점이 찍혀있는 점만은 분명하다. 급격한 현실 변화와 개인주의 및 자유주의의 효용성 상실이 상호 영향을 주며 동시에 진행 중이었던 20세기에 그는 역사의 방향이 사회 단위를 강조하는 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으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강조점은 그대로 그의 도덕 및 이상과 연결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카의 분석을 보면 동시에 마르크스 혹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카의 입장도 명확해질 수밖에 없다. 그는 1934년 마르크스 전기를 저술할 때부터, 열렬한 마르크스주의자나 그 반대에 있는 비판자 그리고 중간 지대에 속하는 유사 마르크스주의자까지 그 어떤 기존의 입장에도 속하기를 거부하면서, 전기를 통해 하나의 사상은 그 시대적 배경이 연원이 됨을 명확히 하고 마르크스주의가 탄생하게 된 시대적 배경에 주목하겠다는 책의 방향성을 밝히고 있다.⁵⁶⁾ 또한 그가 “서유럽의 프롤레타리아는 서구식 부르주아 자본주의에 의해 탄생한 세력일 뿐 다음 단계에 속하는 세계 혁명의 견인 세력으로서 이해할 수는 없다”⁵⁷⁾고 입장을 제시한 점이나 마르크스주의가 가진 강점으로서 어떤 “사고나 행동에 숨겨져 있는 기원을 밝히고 그 사고와 행동 주변으로 논리 및 윤리의 형태로 덧씌워진 허울을 폭로”⁵⁸⁾하는 기능을 꼽고 있다는 점을 보건대 마르크스주의를 절대로 이데올로기 내지는 도그마로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카가 제시한 마르크스주의의 강점은 당시 서유럽 사회의 주요한 사상, 제도, 지배 계급에 대하여 적용되었고, 카는 서유럽 사회에 대한 자신의 비판 의식을 통해서 마르크스를 이해했다.⁵⁹⁾

또한 그의 마르크스주의 이해는 마르크스주의 자체에 대한 이해보다도 러시아 혁명이라는 사건과의 연관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특징을 갖

56) E. H. 카. 1965. p.8.

57) Carr, “An Autobiography,” in Cox. 2000. p.xxii.

58) Carr, “An Autobiography,” in Cox. 2000. p.xviii.

59) Carr, “An Autobiography,” in Cox. 2000. pp. xviii~xx

는다. 그런 점에서 카가 이해하는 러시아 혁명 및 러시아 공산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관계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카는 19세기 러시아 사상을 서술하면서 러시아 고유한 사상적 전통이 볼셰비즘과 러시아 공산주의에 일정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지적한다.⁶⁰⁾ 그는 19세기 러시아의 자생적인 혁명 세력으로서 나로드니키가 현실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하고 플레하노프, 레닌을 거쳐 마르크스주의가 알맞게 변형·정착된 이후에야 러시아 혁명 사상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고 기술했지만 동시에 러시아의 독자성과 고유성에도 중점을 둔다.⁶¹⁾

마르크스주의는 러시아에서는 산업화가 진행 중이던 1880년대 이후에야 비로소 뿌리내릴 수 있었고, 기존에는 소작농이 중심이 되었던 혁명 사상을 프롤레타리아 중심으로 바꾸어 놓는 계기와 결과를 가져왔다.⁶²⁾ 결과적으로 러시아 혁명이 러시아 내 자생적인 혁명 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은 레닌과 볼셰비키에 의해 성공하면서 마르크스주의가 실제 혁명 과정에 미친 영향력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점을 과도하게 강조하면, 러시아 혁명은 마르크스주의적인 혁명 논리로 단순하게 설명되고 말 것이다.⁶³⁾ 그러나 카는 러시아 혁명과 같은 중대한 역사적 사건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도식적인 원인 분석을 거부하고 혁명의 과정에서 마르크스주의가 러시아라는 전혀 다른 시공간적 배경과 역사적 맥락에서 어떻게 수용되었는지, 어떻게 실제 혁명을 현실에서 이끌어 냈는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어 다음 절에서는 러시아 혁명의 발전 과정에서 마르크스주의가 수용될 수 있도록 기여한 대표적인 혁명가 플레하노프와 레닌을 소개한다.

제 3 절 마르크스주의의 토착화

60) Carr. 1964. p.104.

61) Carr. 1964. p.92.

62) Carr. 1964. p.92, p.106.

63) Carr. 1964. p.106.

서유럽에서 탄생한 혁명 사상으로서 마르크스주의가 러시아라는 전혀 다른 역사적 배경과 맥락 속에서 러시아 혁명으로 결실을 맺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불가촉의 역사 흐름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일 것이다. 이 과정을 순전히 역사적 우연의 작용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⁶⁴⁾ 마르크스주의가 러시아적 현실 조건과 조화를 이루도록 그것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대표적인 혁명가 게오르기 플레하노프와 블라디미르 레닌 때문이다.

플레하노프는 러시아 마르크스주의의 아버지에 해당하는 사람이다.⁶⁵⁾ 그는 1882년 공산당 선언(*Communist Manifesto*)을 러시아어로 번역한 바 있고 망명 생활을 거치면서 점차로 마르크스주의에 동화되어 갔다.⁶⁶⁾ 이후 그는 상당 기간 나로드니키의 혁명 전략에 대항하여 마르크스주의적 혁명 사상이 러시아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는 소작농이 혁명의 주도 세력이 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나로드니키의 주장에 대하여, “소작농은 태생부터가 전혀 혁명에 적합한 세력이 아니며,” “소작농 집단은 겨우 썩디 부르주아(*petty bourgeois*) 계층으로 변화하는 데 그칠 것이며,” “혁명은 결국 노동자들의 권력 쟁취로 완결될 것”이며, “이러한 과정의 완결은 부르주아 민주주의라는 조건 아래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 이유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혁명이 가장 우선적이고 즉각적으로 실현해야 할 목표”라고 주장했다.⁶⁷⁾ 이러한 플레하노프의 판단은 비테(*Sergei Witte*) 총리의 산업화 정책 아래 러시아 자본주의가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소규모 마르크스주의자 집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기도 전인 1880년대에 진행되었다는 점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⁶⁸⁾

또한 플레하노프는 마르크스주의의 중요한 철학적 기반인 유물론적 역사관의 기원을 다룬 저서 *In Defense of Materialism*의 저자로서

64) 우연 사관과 관련하여 카는 *What is History?*를 통해 강도 높은 비판을 보여준 바 있다. E. H. Carr, *What is History?* (London: Penguin, 1961), pp. 87~108.

65) Carr. 1964. p.105.

66) Carr. 1964. pp. 106~107.

67) Carr. 1964. p.107.

68) Carr. 1964. p.108.

업적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⁶⁹⁾ 즉, 그는 실제 마르크스주의와 그 철학적 기반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그런 점에서 그는 혁명을 행동에 옮기는 실천가이기보다는 혁명과 관련된 이론을 제시하고 정밀화한 지식인이라는 카의 평가는 설득력 있게 들린다.⁷⁰⁾

이처럼 카가 제시하는 플레하노프의 개인적 특성은 이후 러시아 혁명의 진행 과정에서 플레하노프가 경험해야 했던 고충이나 그에 대한 국내적 비판의 기원이 되었다. 플레하노프는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로서 프롤레타리아 혁명 노선의 철저한 실현을 주장한 반면 레닌은 이러한 멘셰비키(Menshevik)의 주장에서 벗어나 프롤레타리아와 소작농의 연합을 통해 러시아에서 자유민주주의화와 사회주의 혁명을 앞당기고자 했다.⁷¹⁾ 이러한 그의 “이론가” 적인 특성은 스탈린에 의해 비판의 대상이 되었는데, 스탈린은 실제로 “혁명에서 더 이상 이론가의 역할은 필요치 않다”고 지적하면서 플레하노프의 지나치게 이론적인 입장이 러시아 현실에 조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언급했다.⁷²⁾ 이러한 전개는 플레하노프가 지닌 친서구적 특징에서도 비롯되었는데, 카는 플레하노프의 경우 서구 지향적인 인물(westerner)에 해당했고 그 결과 레닌의 노선과 혁명 직전 러시아의 분위기로부터 점점 더 괴리되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⁷³⁾

말년에 가까워질수록 플레하노프는 러시아 국내정치의 전개 과정에서 배제되어 가지만 철저한 마르크스주의자로서 러시아에 사회주의를 보급한 그의 기여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카는 평가한다. 다만, 역사의 전개가 레닌과 그의 노선에 더욱 우호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을 뿐이다. 따라서 러시아 혁명가에 대한 소개는 레닌과 그의 혁명 사상을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카는 자신의 1950년도 저서에서 레닌을 다루는 장에 “뛰어난 건축가”(master builder)라는 부제를 달았다. 즉, 레닌에 대한 카의 평가

69) Carr. 1964. p.109.

70) Carr. 1964. p.114.

71) Carr. 1964. p.115.

72) Carr. 1964. p.114.

73) Carr. 1964. pp. 114~115.

는 레닌은 혁명을 통해 기존 임시 정부를 무너뜨린 파괴자라기보다는 혁명이 일어나도록 조건을 구축한 창조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⁷⁴⁾ 그가 행정가이자 정부의 수장, 그리고 정치가로서 전면에 등장한 것은 혁명 정부가 세워지고 난 이후였다. 이후 그는 내전을 승리로 이끌며 소비에트 정권을 확고히 하고 러시아의 국제적 지위와 권위를 되찾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다하였다.⁷⁵⁾ 이런 점에서 그가 혼란스럽고 불안정했던 소비에트 수립 전후 시기 지도자로서 국내외적으로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겼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카는 레닌에게 역사적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물론, 그뿐만 아니라 레닌을 특별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가 레닌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레닌이 국내외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보여준 유연한 현실 적응력과 현실의 역동성을 즉각적으로 파악하여 그것과 조화를 이루는 그의 현실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⁷⁶⁾ 대외 정책의 예에서 보았을 때, 레닌은 초기 소비에트 정부의 세 가지 서로 다른 정책 기조로서 철저한 평화주의, 세계 혁명 그리고 국가 이익을 절묘하게 절충하였다. 세 가지 서로 다른 대외 정책 기조는 당시의 초기 소비에트 정권의 입장에서는 동등하게 중요성을 지녔다.

우선 초기 소비에트 정권의 철저한 평화주의는 국내외적인 의미를 동시에 지녔다. 국내적으로는 내전에 의해 피해를 겪은 인민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이었고, 국외적으로는 신생 사회주의 국가로서 다른 국가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지 않기 위함이었다.⁷⁷⁾ 그런 의도에서 1917년 레닌이 발표한 “평화 법령”(decree on peace)에서는 당시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의식하여 사회주의적 색채를 덜어내고 철저하게 윌슨적인 용어와 어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카는 분석했다.⁷⁸⁾ 그러나 소비에트의 초기 평화 정책은 두 번째 정책 기조인 세계 혁명과 충돌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 동시에 세계 혁명 기조는 세 번째 기조인 소비에트의 국가적 이

74) Carr. 1964. pp. 134~135.

75) Carr. 1964. p.135.

76) Carr. 1964. p.142, pp. 148~49.

77) Carr. 1964. p.143.

78) Carr. 1964. pp. 143~144.

익 추구와도 충돌을 낳았다. 이처럼 서로 다른 정책 기조 간의 잠재적인 긴장 관계를 놓고 레닌은 카가 칭찬한 바 있는 훌륭한 현실 감각을 보여주었다. 레닌은 당시 위태로운 초기 소비에트 정권을 지켜내기 위해 현실적으로 국가 이익의 추구를 대외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동시에 소비에트가 대외적으로 국가적 이익을 추구해서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살아남는 것이 세계 혁명으로 선순환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서로 다른 정책 기조 간의 충돌을 피한 것이다.⁷⁹⁾ 이러한 레닌의 정책 기조는 이후로도 소비에트 러시아의 대외 정책에서 기본 전제로 자리 잡게 된다.⁸⁰⁾

카는 레닌의 대외 정책뿐만 아니라 그의 사상 또한 높이 평가한다. 레닌의 사상은 국가에 대한 그의 이론에 초점이 놓여 있었는데 그 점이 잘 반영된 그의 저서가 *State and Revolution*이었다.⁸¹⁾ 마르크스가 저술할 당시에나 그의 사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활동하는 동안에도, 마르크스주의 안에서 국가의 존폐 여부는 중요한 논쟁거리였다. 마르크스는 혁명 연구 초기에는 윌리엄 고드윈(William Godwin)의 영향을 받아 국가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⁸²⁾ 그러나 연구와 저술 활동을 지속하면서 공산당 선언을 작성할 무렵에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성공·유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고려에 의해 “프롤레타리아가 지배층으로서 체계화된 구조가 곧 국가”라는 식으로 국가에 대한 태도를 수정하고 이러한 노선은 이후 그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으로 이어진다.⁸³⁾ 그러나 이런 식의 주장은 이후 국가의 필요성과 존재 의의를 놓고 마르크스주의자들을 양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쪽은 국가를 완전히 폐지하는 무정부주의로 분화하였고 다른 한쪽은 국가를 동원하여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국가사회주의로 분화하였다.⁸⁴⁾ 실제로 독일 사회민주당(German social-democratic party)이 1914년 국가에 적극적으로 포용 되는 노

79) Carr. 1964. pp. 144~147.

80) Carr. 1964. p.148.

81) Carr. 1964. p.138.

82) Carr. 1964. p.138.

83) Carr. 1964. pp. 138~139.

84) Carr. 1964. p.139.

선을 택함으로써 마르크스주의로부터 일정하게 이탈하게 되는데 이는 당시 *State and Revolution*을 저술하고 있던 레닌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겨 레닌은 마르크스주의가 국가 승배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게 된다.⁸⁵⁾

국가와 계급의 소멸, 동시에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옹호했던 레닌은 이후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권은 기존 국가 기구와는 다르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기구는 엄밀한 의미에서 기존의 국가 기구와 다르며 그 기능도 국가의 기능과 다르다는 것이다.⁸⁶⁾ 그리고 1917년 러시아에 설립된 소비에트 기구야말로 레닌이 보았을 때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국가 형태를 띠지 않는 대안적 기구였다. 레닌은 러시아의 소비에트 기구야말로 노동자 계급을 대표하며 자발적인 자립(自立), 자치(自治) 기구이자 뜻이 맞는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만든 느슨한 형태의 연합(federation)으로서 국가 그 자체와 국가에서 비롯된 군대, 관료제 등의 폐단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보았다.⁸⁷⁾ 물론 이는 레닌이 당시 막 탄생한 소비에트 러시아에 걸은 기대에 불과했고 레닌 이후 소비에트 러시아의 역사는 관료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이어졌다.⁸⁸⁾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에 대한 레닌의 새로운 해석은 소비에트 러시아라는 당시 신생 정치 조직의 설립을 정당화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으며, 또한 소비에트의 이상이자 지향점으로서도 의미를 지녔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사상적인 측면에서도 기존 국가에 대한 대안적인 정치 조직을 탐구하고 실험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별히 카가 레닌의 많은 저서 중 *State and Revolution*을 소개했던 이유도 프롤레타리아 독재 기구를 기존 국가 기구의 대안으로서 설득력 있게 설명하여 소비에트 조직의 보존과 유지에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레닌의 업적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일 것이다.

85) Carr. 1964. p.139.

86) Carr. 1964. p.140.

87) Carr. 1964. p.140.

88) Carr. 1964. pp. 140~142.

제 4 장 혁명에 대한 역사적 접근: 카의 라이트모티프로서 혁명(2)

제 1 절 역사적 접근법

카의 혁명 연구는 역사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혁명 연구를 본격적으로 개괄하기 전 역사적 접근법에 대한 소개가 필수불가결하다. 역사적 접근법에 대한 소개는 그의 1956년 작 *The New Society*의 첫 번째 장 “The Historical Approach”에서 상세하게 제시되고 있다. 해당 저서는 20세기적 전환의 내용을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정리하고 있는데 그보다도 앞서 제일 첫 번째 장에서 카가 역사적 접근법의 정당성을 확립하려고 했다는 점과 관련하여 그의 저의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 카가 적용했던 역사적 접근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국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국내적 차원에서도 전환기로서 유럽의 20세기가 분명하게 인지될 수 없다.

*The New Society*의 첫째 장은 근대 시기의 특징과 근대인에게 역사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준다. 이 장에서 카는 프랑스 혁명(그리고 미국 독립혁명과 산업혁명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혁명 과정)을 한 시대의 시발점으로 간주하고 있다.⁸⁹⁾ 프랑스 혁명에 기원을 두고 있던 기존 시대는 20세기에 들어서 당시 유럽이 마주했던 경제, 사회, 사상, 정치 등의 각 분야별 변화와 그 결과 출현하게 된 “새로운 사회”(the new society)로 인해 위기를 맞게 되었다.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역사적 과정의 서술에서 그 출발점이 프랑스 혁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새로운 사회와 대척점에 있는, 혹은 새로운 사회가 극복하려는 기존 시대의 특성과 내용물이 결과적으로는 프랑스 혁명에서부터 발생하고 있

89) E. H. Carr. *The New Society* (Boston: Beacon Press, 1966), p. 1.

기 때문이다.

카의 자유주의 비판은 국내적 차원에서는 “자유민주주의” (liberal democracy)에 대한 비판을 핵심으로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카의 저서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편 원리로서 제시된 정치사상이자 개념이 아니다. 20세기에 들어 한계를 노정하기 시작한 자유민주주의는 카에게는 프랑스 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그 영향력이 잔재하고 있는 특정한 시공간(18, 19세기 서유럽)에서 발생, 유지된 정치 원리, 사상이자 제도였다. 우선 자유민주주의의 역사적 맥락과 그 특수성을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카의 분석 및 비판의 대상을 더욱 분명히 하고 20세기 유럽에 대한 카의 해석에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카가 분석, 비판하고자 하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제도 및 정치 원리는 프랑스 혁명의 산물이었다. 즉, 자유민주주의는 프랑스 혁명 그 이후의 시대라는 역사적 맥락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정치 제도이자 사상이며,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에 앞서 그 탄생의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맥락을 분석하는 과정은 카에게는 반드시 우선할 수밖에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비판의 대상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정치 원리, 제도를 더욱 분명하게 이해하여 비판 내용을 명확히 포착하기 위해서도 카의 역사적 접근법과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즉, 역사적 접근법에 대한 이해는 카의 국내적 자유주의 비판을 이해에서 필수 사항에 해당한다. 다만 카의 역사적 접근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의할 점이 있다.

첫째, 카의 역사적 접근법은 역사가 무엇인지를 논하는 원론적인 차원을 넘어서 해당 접근법을 통해 카가 제시하고자 한 바가 무엇이었는가의 측면에서 더욱 중요하다. 카의 역사적 접근법에서는 일정한 시대 개념과 시대적 변화가 중심이 되고 있다. 그러나 카의 역사적 접근법이 기반하고 있는 시대 개념은 전 인류사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역사 서술 단위로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그가 시대 개념을 활용하고 있는 기간은 고작해야 자신이 한때 몸담았던 기존의 “자유주의 시대”에 불과

하다.⁹⁰⁾ 카의 일차적인 관심은 역사적 접근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학문적 삶에서 체험한 자유주의 시대의 전환이라는 현실을 설명하는데 있었다. 따라서 카의 역사적 접근법은 그 자체로는 철학적 기반이 대단히 취약하다는 점을 미리 지적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일정하게 약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약점 때문에 카가 사용한 역사적 접근법이 정당성 내지는 편의성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니다.⁹¹⁾ 여기서 카가 역사적 접근법과 시대 개념을 활용하고 있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따지는 것이 주안점이기 때문이다.

둘째, 자유주의 시대가 카의 저서에서 완결적인 역사 서술 단위로 제시되고 전면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는 대략 나폴레옹 등장 이후부터 스탈린의 등장 이전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 카에게서 이 이상으로 다른 시기의 역사에 시대 개념을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즉, 시대 개념은 어디까지나 카에게 20세기 당시 변화하는 현실을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에 해당할 뿐, 시대 개념을 절대화하고 보편화하는 것이 그의 역사적 접근법이 가진 의미이자 의도라고 할 수는 없다. 각 시대 간의 관계라던가 시대의 변화를 이끄는 동력이나 원인은 무엇이며 그 시대가 사회와 개인에 대해 갖는 구속력은 무엇일지 등, 그의 역사적 접근법에 관해 제기될 수 있는 원론적인 차원의 질문들은 끝이 없지만 카의 저서를 통해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한다면 그것은 헛수고다.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원론적인 차원의 질문은 카의 저서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다. 카의 역사적 접근법이 가진 의도와 목적은 이처럼 원론적인 일반론에 있지 않았다.

카가 제시한 역사적 접근법은 그 자체만으로 많은 의혹을 불러일

90) 자유주의 시대라는 명칭을 카가 직접 사용한 것은 아니다. 카는 종종 “빅토리아 시대”(The Victorian Age)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E. H. 카 저, 김택현 역, 『역사란 무엇인가』 (서울: 까치, 2010), p.14. 그러나 카가 언급한 빅토리아 시대는 그 특징이나 포함 시기로 보았을 때 이 논문에서 언급한 ‘자유주의 시대’와 일맥상통한다.

91) 이러한 특징은 철학에 대한 카의 태도와 통하는 듯하다. Tamara Deutscher, “E. H. Carr—A Personal Memoir”, *New Left Review*, Vol. 0, No. 137 (Jan 1983), p.84.

으키지만, 역사적 접근법을 채택한 카의 의도만은 여전히 분명하다. 20세기에 발생한 서구 정치 제도 및 사상의 위기가 민주주의 자체가 지닌 태생적 한계라기보다는 특정 시공간적 맥락에서 탄생한 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서 자유민주주의에 발생한 문제임을 분명히 하고 그에 대한 변화의 움직임과 대응책을 포착·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즉,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 제도 내지는 원리를 상대화하는 것이 우선 카의 역사적 접근법이 지닌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 접근법을 통해 자유민주주의가 보유한 특수한 역사성과 맥락성을 이해하고 나면 20세기 당면한 문제의 원인과 특성을 포착하는 것은 한결 쉬워질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이미 쇠락하고 있는 특정 시대의 정치 제도였으며, 20세기에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변화의 움직임은 기존의 시대가 갖고 있던 특징들에 전면 반(反)하는 것들이었다. 비록 쇠퇴기에 접어든 기존 시대는 카의 저서에서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지만, 자유주의의 시대로 불려도 카의 의중과 크게 괴리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카의 저서는 공통적으로 자유주의 시대의 붕괴와 그에 대한 반동을 다루는 것을 주제 의식으로 갖고 있었다.

역사적 접근법의 적용은 그의 또 다른 저서 *From Napoleon to Stalin and Other Essays*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책은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광범위한 시기 동안 카가 쓴 다양한 주제의 에세이를 묶어 놓은 것이다. 다양한 주제의 에세이를 한 데 묶어주는 공통적인 문제의식이 카는 바로 역사적 접근법이라며 서론을 통해 밝히고 있다.⁹²⁾ 이 책에서도 카의 역사적 접근법은 결국 하나의 완결적인 시대와 그 시대의 종언을 보여주려는 목적을 지닌다. 그런 의미에서 책 제목에서 언급된 나폴레옹과 스탈린이란 두 인물이 상징하는 바는 분명하다. 나폴레옹과 스탈린은 각각 특정 시대의 시작을 연 인물과 끝을 마감한 인물이며 두 인물이 활동했던 사이의 기간에 유럽에서는 국내적으로 자유주의의 발흥과 흥기, 이어서 자유주의 사조와 대조를 이루는 사

92) E. H. Carr, *From Napoleon to Stalin and Other Essay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0). p.vii.

회주의의 등장과 흥기의 과정이 차례대로 나타났다.⁹³⁾

1947년 저작 *The Soviet Impact on the Western World*에서도 카의 역사적 접근법을 상기시키는 부분이 등장한다. 카는 책의 말미에서 소련이 서구 세계에 미친 영향을 정리하면서, 역사적으로 서유럽에서 동유럽으로 향하던 문명의 이동 방향이 러시아 혁명과 소련 형성을 계기로 일대 전환을 겪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러시아 혁명은 카에게 긴 서구 문명의 역사와 흐름에서 하나의 거대한 전환점으로 작용했다.⁹⁴⁾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처럼 카의 세계관에서나 서구 문명사에서나 중요한 전환점이 된 러시아 혁명은 서유럽적인 사고의 전통과 전혀 동떨어져 있는 현상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카는 러시아 혁명이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동유럽의 서유럽화 과정상 정점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서유럽화의 정점이자 완성이면서 동시에 문명 이동의 방향을 바꾼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했다.⁹⁵⁾

같은 책에서 카는 기존의 개인 중심적인 서유럽 사회는 소련의 사회주의적이고 전체주의(totalitarianism)적인 사회 구성단위에 의해 그 위기가 극대화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력은 더욱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⁹⁶⁾ 자유주의가 사

93) Carr. 1980. p.3.

94) E. H. Carr, *The Soviet Impact on the Western World* (New York: Macmillan, 1947), p.106.; 1956. pp. 80~99.

95) Carr. 1947. p.109.

96) Carr. 1947. pp. 109-111. 이 부분에서 드러나는 전체주의에 대한 카의 태도는 한나 아렌트가 전체주의 분석에서 보여주었던 것과 전적으로 다르다. Hanna Arendt,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San Diego: Harcourt, 1973). 같은 책에 대해 모겐소 역시 1948년도 카 비평문에서 소련식 체제에 대해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붙인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모겐소의 지적 또한 전체주의에 대한 카의 태도를 지적한 직전 문제와 같은 맥락에 위치한다. Hans J. Morgenthau, “The Political Science of E. H. Carr”, *World Politics*, Vol. 1 No. 1, (Oct 1948), p.133. 차후에 카가 이 책의 분석이 지나친 측면이 있었다고 일정하게 인정했다는 사실로 보건대 전체주의와 소련 체제에 대한 자신의 판단도 일정 부분 과했다고 사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는 큰 틀에서 1947년도 저서를 통해 자신이 전달하려고 하는 바는 변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E. H. Carr. “An Autobiography,” in Michael Cox (eds.), *E. H. Carr: A Critical*

회 구성단위의 측면에서 개인을 기반으로 하며 자유주의 시대를 떠받치는 핵심 사상이 개인주의였다는 점을 상기하면 개인주의의 약화가 기존의 자유주의 시대 서유럽 사회에 가져올 영향력은 자명한 것이었다. 이러한 자유주의 시대가 프랑스 혁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문명의 이동 방향이 전환하게 된 것과 자유주의 시대를 대표하던 특정 사조가 쇠퇴하게 된 것은 상관성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시대의 종말을 보여주는 징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The Soviet Impact on the Western World*에서 나타나는 문제의식이나 역사적 태도 역시 다른 저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자유주의 시대의 종말과 그에 대항하는 새로운 시대의 출현, 그리고 그러한 각 시대의 기원에 관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제 2 절 두 개의 혁명

E. H. 카의 혁명 연구 및 자유주의 비판은 오랫동안 국제정치학계 내 카 논의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카의 라이트모티프(leitmotif)라고 한다면 오히려 혁명 연구와 자유주의 비판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혁명이라는 연구 주제는 카의 저서 목록에서 두 가지 형태 중 하나로 결실을 맺었다. 첫째, 러시아 혁명 연구와 이후 전개된 소비에트사에 대한 연구, 둘째, 혁명가 내지는 자유주의에 비판적이었던 혁명적 사상가 연구이다. 첫 번째 분류에 해당하는 저서로 14권에 달하는 카의 소비에트 러시아사와 그 내용을 축약한 *The Russian Revolution from Lenin to Stalin 1917-1929*(1979), 그리고 러시아 혁명을 다루고 있는 그의 다른 많은 에세이들이 있다면 두 번째 경우에 속하는 저서로는 그가 외교관 시절 저술한 4권의 전기물(傳記物)과 *Studies in Revolution*(1950) 등이 대표적이다. 이 두 가지 유형 모두를 통해 결국

Appraisal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0), p.xx. 그러나 그가 끝까지 자유주의적 성향을 버리지 않았다는 주변인의 회고를 참고하면 카가 본심으로 전체주의를 지향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Deutscher. 1983. p.84.

은 기존 자유주의 시대의 쇠퇴라는 문제의식과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의식이 카의 저서 기저에 깔려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혁명(가)에 대한 관심과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라는 주제 의식은 카의 수많은 저서를 이해하는 데 단연 핵심이 되며 또한 상호 긴밀하게 연관된 주제들이기도 하다. 러시아 사상가 및 문학가를 통해 자유주의 시대의 서유럽과 이질적인 지적 분위기와 조우한 카는 이후 본격적으로 서유럽의 자유주의적 분위기와 대립 되는 사상 및 움직임을 연구한다.⁹⁷⁾ 20세기 당시 역사적 흐름이 기존의 자유주의 시대를 종결하고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절감했던 카는 러시아 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이후 설립된 소비에트 러시아가 새로운 역사적 흐름의 방향을 인도·견인하는 중요한 ‘풍향계’ 라고 생각했다.⁹⁸⁾ 그 결과 그는 자신의 전체 학문 여정을 통해 방대한 소비에트사의 완성, 그리고 혁명과 혁명적 사상가에 대한 다양한 서술이라는 결실을 볼 수 있었다.

카의 자유주의 비판이 기존 체제에 대한 문제 제기라 한다면, 그리고 카의 분석 대로 기존의 자유주의 체제가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면 러시아 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같은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카가 포착한 시대적 변화에서 러시아 혁명은 어떤 역할을 한 것인지 그 결과 러시아 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위치는 무엇인지 카의 분석을 개진하도록 한다.

러시아 혁명에 대한 카의 해석과 원인 분석은 그가 러시아 혁명에 부여하고 있는 역사적 위치를 살펴봄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이유에서 러시아 혁명 발생 이전까지의 유럽 역사를 통해 러시아 혁명의 역사적 위치를 설정하고자 한다. 이전 역사의 상한선은 프랑스 혁명이 발생한 1789년 전후로, 이 시기부터 러시아 혁명이 발생하는 1917년까지를 하나의 서술 단위로 삼는다. 일찍이 카는 자유주의 비판 의도를 담아

97) Carr “An Autobiography,” in Cox. 2000. pp. xvi~xvii.

98) 소련이 언제나 카에게 자유주의 시대 서유럽 체제를 대신할 이상적인 대안이었던 것은 아니다. 시기에 따라 변화하는 소련에 대한 카의 복잡다단한 입장은 다음 논문을 참고. 박원용, “E. H. 카와 소비에트 러시아,” 『역사교육논집』 제56권, 제0호 (2015년 8월), pp. 415~445.

작성한 다양한 글들에서 해당 시기를 “자유주의의 시대”로 이해하였다. 자유주의 시대의 시작과 끝을 장식한 프랑스 혁명과 러시아 혁명 각각의 혁명은 카의 세계관 및 역사 인식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에 대한 카의 입장을 온전히 이해했을 때만 러시아 혁명에 대한 그의 해석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근대 유럽사에 대한 카의 인식에서 프랑스 혁명과 러시아 혁명 두 혁명은 비등한 중요성을 획득한 사건들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러시아 혁명은 카에게 프랑스 혁명의 속편이자 정점으로서 의미를 지녔다.⁹⁹⁾ 이상과 같은 카의 인식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이전 역사와의 관련성 속에서 러시아 혁명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시작과 끝, 곧 전부가 될 것이다.

카의 분석에 따르면, 프랑스 혁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영향을 인류사에 남겼다. 첫째, 정치적인 측면에서 프랑스 혁명은 자유와 평등 개념을 인간의 정치적 행위가 가진 목적으로 인정한 계기였다. 둘째, 프랑스 혁명은 인간의 역사에서 미래 지향적인 진보 사관을 탄생시킨 계기가 되었다.¹⁰⁰⁾ 셋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프랑스 혁명은 생산성이란 개념을 인간사(人間事)에서 중요한 위치로 제고한 계기였다.¹⁰¹⁾ 곧, 카에게 프랑스 혁명이란 자유주의 시대의 서막을 연 역사적 사건으로서 의미를 가졌다. 프랑스 혁명이 남긴 유산이 고스란히 자유주의 시대가 지닌 특징으로 치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 역사의 진보, 경제적 생산성에 방점이 찍혀있던 시기는 곧 자유주의 시대로 카에게 인식되어 개인 단위를 기반으로 한 사회 구성, 인간의 이성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이성적인 인간들 사이에서 이익의 조화가 발생할 것이며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선험적인 전제, 정치에 대한 경제의 우위 등을 시대적 특징으로 남기게 되었다.

문제는 자유주의의 시대라는 이름 아래 묶인 일정한 시기 동안,

99) E. H. Carr, *The October Revolution: Before and After* (New York: Alfred A. Knopf, 1969), p.167.

100) 프랑스 혁명 이후 성립된 근대적 역사관, 곧 진보 사관에 관하여서는 다음을 참고. Carr. 1966. pp. 1~18.

101) 프랑스 혁명의 영향 세 가지는 다음에서 인용함. Carr. 1969. pp. 2~4.

급격한 사회, 경제, 정치적 변화가 현실에서 발생함에 따라 점차 프랑스 혁명이 유산으로 남긴 기존의 정치, 경제, 사회 구성 원리들이 오작동을 일으키게 된 데 있었다. 그 결과 변화한 현실에서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자유주의에 대항하여 사회주의와 같은 새로운 사상이 탄생하였다.

사회주의는 자유주의와 전면에서 대립하고 있는 사상이었다.¹⁰²⁾ 우선, 자유주의가 사회 구성 원리로 삼고 있는 개인주의와 비교했을 때 사회주의는 사회를 구성하는 단위부터가 달랐다. 사회 구성단위에서부터 개인주의를 반대하고 있는 사회주의는 초기에는 명칭의 의미조차 대단히 모호한 사상이었지만, 생시몽(Saint-Simon), 피에르-조제프 프루동(Pierre-Joseph Proudhon) 등의 초기 사회주의자들을 거쳐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이르면 명확한 틀과 체계를 갖추고 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중요한 사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¹⁰³⁾

이 과정에서 1848년도의 혁명은 사회주의의 경우처럼 반(反)자유주의적인 새로운 사상의 탄생을 촉진한 중요한 사건이었다. 정확히는 1848년도 혁명의 실패가 자유주의와는 다른 대안적인 사상과 체제에 대한 요구를 확대·강화하였다.¹⁰⁴⁾ 초기 무정부주의자인 프루동과 러시아 최초의 나로드니키(Narodniki)라고 볼 수 있는 알렉산드르 게르첸(Alexander Herzen)은 모두 결정적으로 1848년 혁명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자유주의 체제에 실망하고 자유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¹⁰⁵⁾

1848년 2월 혁명의 발생 전후로 하여, 프랑스 혁명이 발생한 지

102) Carr. 1980. p.203.

103) 카에 따르면 자유주의를 반(反)한다고 해서 사회주의를 자유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이질적인 태생의 사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는 자유주의와 대립하지만 동시에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태어난 사상이었다. 따라서 자유주의의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물려받고 있다. 그런 이유로 일정한 공통점이 둘 사이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Carr. 1980. p.203.; 이와 관련하여서는 볼셰비즘의 사상적 특징에 대한 카의 분석도 함께 참고할 것. Carr. 1947. pp. 84~102.

104) Carr. 1980. pp. 203~209.

105) E. H. Carr. *Studies in Revolution* (London: Macmillan, 1964), pp. 38~55, pp. 56~71.

채 100년이 안 된 시기의 유럽에서는 왜 또 다른 혁명에 대한 요구가 다시금 자라나고 있었던 것일까? 1848년 혁명은 프랑스 혁명과 러시아 혁명 사이에서 어떤 의미를 지닌 사건일까? 우선, 1848년의 혁명은 프루동과 게르첸의 예에서 보았듯이 자유주의에 반발하는 혁명적 사상가들을 양산하고 반자유주의적인 사상의 성장을 촉진했다. 마르크스 역시 1848년 혁명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한 “영구 혁명”(permanent revolution) 노선을 새롭게 주창하기에 이른다.¹⁰⁶⁾

1848년 혁명의 실패를 계기로 자유주의로부터 등을 돌린 인사들은 그 이전까지 1848년의 혁명이 프랑스 혁명이 미처 해결하지 못한 폐단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도 개선이 시급했던 문제는 개인 간의 정치적 평등을 실현하는 일이었다. 프랑스 혁명이 분명 개인의 자유 외에도 개인 간 평등 개념을 정치 원리이자 정치 행위의 목표로 간주하였지만 이후 실제로 평등의 원칙은 개인의 자유라는 원칙에 가려 충분히 존중되지 않았다. 그 결과 프랑스 혁명 이후 자유주의 체제하에서 부르주아(bourgeois)라는 특정 계층만이 배타적으로 정치 권력을 향유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처럼 당시 실제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던 특징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카는 “부르주아 민주주의”(bourgeois democracy)라고 명명하였다.¹⁰⁷⁾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제는 곧 자유주의 시대의 특징적인 정치 제도이자 정치 현상으로 자리매김한다.

부르주아 계층이 정치 권력을 독점함에 따라 당시 발생 초기 단계의 대중 사회(mass society) 안에서 대중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소외되었고 그 결과 부르주아 계층과 대중 사이에는 정치적 불평등이 심화되어

106) Carr. 1964. p.42.; 1969. p.6.

107) 자유주의 시대의 정치 제도이자 정치 원리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카 고유의 독창적이거나 독자적인 명명법으로 볼 수는 없다. 예를 들면 막스 베버가 1905년의 제1차 러시아 혁명을 분석한 책에서도 부르주아 민주주의라는 명칭이 등장한다. Max Weber, *The Russian Revolutions* (Massachusetts: Polity Press, 1995), pp. 41~157. 베버든 카든 부르주아 민주주의란 용어를 사용했을 때 해당 정치 제도가 자유주의 사상과 일정하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이 명백하다.

갔다. 중산 계급과 노동자 간의 분열은 이후 더욱 극명해졌고 각 계층을 대변하는 정치 체제로서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사회적 민주주의”(social democracy)의 차이 역시 더욱 뚜렷해져 갔다.¹⁰⁸⁾ 1848년의 혁명은 사람들이 이러한 간극을 분명하게 인지한 사건이었다. 카는 기존의 민주주의 체제가 일부 계층만을 포섭하는 제한성에서 벗어나 사회적 평등을 제고하고 구성원 대다수를 포섭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결국 1848년 혁명의 실패로 말미암아 프랑스 혁명 정신은 미완의 상태로 남게 되었다. 따라서 개인 간 정치적 평등의 확보와 경제적 평등의 확산을 위해서는 새로운 혁명의 발생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졌다.¹⁰⁹⁾ 실제 현실 정치에서는 대중 사회의 지속적인 확대발달로 인해 일부 계층의 권력 독점을 정당화하는 것이 점점 더 불가능해졌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차원에서 자유주의 시대의 경제 원칙인 이익 조화설(harmony of interest)과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는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빈번한 갈등으로 점점 현실성을 상실해 갔다. 부르주아 계층의 정치·경제 권력 독점에서 나타나는 엘리트주의, 이익 조화설과 자유방임주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치적 평등에 대한 경제적 권리의 우위성, 그 증거로서 야경국가(Nachtwachterstaat)의 탄생,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의 자유 및 자연권 개념 등은 자유주의 시대를 대변하고 밀받침하던 주요한 정치 원리이자 경제 원리였지만, 변화하는 현실 앞에서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이상의 맥락에서 러시아 혁명이 가지는 역사적 위치는 미완의 프랑스 혁명과 실패한 1848년의 혁명을 자유주의 사상의 불모지인 러시아에서 실현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러시아 혁명은 자본주의 사회 체제, 더 근원적으로는 자유주의 사회 체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대 작용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¹¹⁰⁾

108) Carr. 1964. p.21, p.42.

109) 이러한 사고는 정확히는 마르크스의 “영구혁명론” 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카가 이런 마르크스의 해석에 온전히 동의했는지는 알 수 없다. Carr. 1969. p.6.

110) E. H. Carr, *The Russian Revolution From Lenin To Stalin 1917-1929*

다만, 이상의 해석은 서유럽에서 러시아로 이동한 혁명의 공간과 맥락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충분한 설득력을 확보할 수 없다. 즉, 프랑스 혁명과 1848년 혁명으로 이어지는 서유럽의 혁명 경험과 그러한 역사 경험에서 발생하고 있는 역사적 맥락이 러시아라는 전혀 이질적인 공간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 실패한 1848년의 혁명과 달리, 프랑스 혁명의 속편이자 정점으로서 러시아 혁명에 대해 일정하게 의미를 부과하고 있는 카의 분석은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가?¹¹¹⁾

이상의 의문은 러시아 혁명에 대해 카가 부여하고 있는 이중적인 의미를 확인함으로써 극복하도록 한다. 카에 의하면 러시아 혁명은 러시아사의 맥락에서 서유럽화(근대화) 과정의 완결이자 동시에 서유럽화에 대한 반발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¹¹²⁾ 러시아 혁명은 또한 서유럽의 자유주의적인 문화와 사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채 발생한 사건이 아니었다.¹¹³⁾ 카는 불세비즘이 그 기원의 측면에서 서유럽과의 친밀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록 사상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서유럽과 러시아 사이에서 발생하는 교집합은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 러시아 혁명만은 유럽 역사의 주요 흐름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같은 혁명이 서유럽 세계에 미친 영향력 또한 간과할 수 없다고 적고 있다.¹¹⁴⁾

(New York: Palgrave, 2004). p.1.

111) 이윽희, 『정치와 정치사상』 (서울: 일조각, 1958), pp. 147~190 참고.

112) Carr. 1947. pp. 103~105. 이와 같은 이중성(ambivalence)은 러시아의 역사에서 낫선 것은 아니었다. 이미 19세기 러시아 문학가들 사이에서는 서구지향성과 “러시아 국수주의”(Slavophile) 간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었다.; 1969. p.7. 이는 러시아적인 전통과 여건이 반영된 결과였다. 서유럽과는 이질적인 역사적 전통과 정체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유럽 내에서 낙후된 지역이자 근대화의 후발 주자였던 러시아는 서유럽화라는 지향성을 강하게 띠면서도 동시에 이에 대항하여 러시아적인 것을 지키려는 이중성을 보인다. 19세기 러시아 사상 지형을 다룬 카의 분석은 Carr. 1964. pp. 88~104에서 참고할 것.

113) Gordon C. Wells and Peter Baehr, “Editor ‘s Introduction,” in Weber. 1995. p.1.; 사회주의를 일신하고 러시아 혁명에 중요한 사상적 기여한 마르크스 역시 여전히 프랑스 혁명의 세 가지 영향력 안에 포섭되어 있었다고 카는 말한다. Carr. 1969. p.5.

프랑스 혁명과 러시아 혁명 사이의 시기 동안에는 공간적 차이 외에도 과학 기술의 수준, 자연에 대한 인간의 태도, 경제 활동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위치 등 다양한 역사적 조건이 변화하고 있었다.¹¹⁵⁾ 그런 변화 속에서도 서유럽적인 현상이 러시아라는 이질적인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계기는 서유럽에서 발생했던 마르크스주의가 마침내는 러시아라는 풍토에 맞춰 레닌주의로 변모하여 현지화에 성공함으로써 일정한 사상적 변화와 동시에 사상의 계승이 공간의 이동과 함께 나타난 덕이었다.¹¹⁶⁾

종합하자면, 이미 19세기 러시아에서 서구 지향성과 자국에 대한 국수주의적 입장(Slavophile)을 놓고 고민하고 있던 현지 지식인들은 서유럽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러시아가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로서 고민하고 있었다. 결국 차리즘(tsarism)에 대항하는 1905년 제1차 혁명을 거쳐 1917년 제2차 혁명(볼셰비키 혁명)을 통해 분명하게 서구적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지향한 러시아는 오히려 서유럽은 달성에 실패한 사회주의 혁명까지 짧은 기간 안에 완성하였다.¹¹⁷⁾

러시아 혁명은 프랑스 혁명과 1848년 혁명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혁명 과정에서 최종 정착지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러시아 혁명을 통해 혁명 과정이 완결되면서 서유럽에서 최초로 발생한 혁명의 흐름은 러시아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이질적인 공간에서 종결지어졌다. 불가측(不可測)의 역사 전개에서 그러나 러시아 혁명이 혁명 과정의 완결점이 된 것은 일정하게는 역사적 우연이 개입한 것이었지 역사적인 필연으로서 이해될 수는 없다. 카의 의중도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이미 가정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데 있지는 않다. 러시아 혁명에 대한 의미 부여는 어디까지나 역사가 카의 사후(事後)적인 해석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혁명의 완성이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러시아 혁명이 발

114) Carr. 1947. p.109.

115) Carr. 1969. p.8.

116) Carr. 1964. pp. 134~151.; 1969. pp. 9~10.

117) 볼셰비키 혁명까지의 역사적 사실 및 과정에 대해서는 카의 다음 역사서들을 참고. E. H. Carr, *The Bolsheviki Revolution 1917-1923 Vol. I* (New York: Macmillan, 1951), pp. 3~101.; 2004. pp. 1~8.

생한 원인에 대해서 카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118)

카가 고려하고 있는 러시아 혁명의 발생 원인으로서는 다양한 요인이 있다. 19세기 러시아 문학과 사상에서 일정하게 드러나고 있는 서유럽식 자유주의에 대한 지향, 러시아의 전통적인 소작농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주의와의 친화성, 피의 일요일(Bloody Sunday) 사건에서 드러나는 러시아 차리즘의 폭정과 그에 대한 반발, 마르크스 주의의 유입과 레닌 등에 의한 마르크스주의의 현지화 등 다양한 역사적 조건들이 모두 러시아 혁명의 발생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카가 러시아 혁명에 부여하고 있는 역사적 위치와 의미를 고려하건대 가장 궁극적이고 근원적인 원인은 결국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파생하고 있다.

프랑스 혁명 정신의 완결적 실현이 1848년 혁명의 실패로 인해 미완성으로 남게 된 상황에서도 정치적,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역사적 노력은 계속되고 있었다. 결국 사회적 평등에 대한 계속되는 지향은 러시아 혁명이라는 일대 사건을 초래하고 러시아 혁명을 통해 현실에서 일정하게 성과를 볼 수 있었다. 그런 이유에서 카는 프랑스 혁명은 “정치적”인 성격을 갖는 데 그쳤지만, 러시아 혁명이야말로 “사회적”인 성격을 갖는 데까지 나아갔다고 평가한 것이다.¹¹⁹⁾

제 3 절 국제정치학적 함의

오늘날 국제정치학계에 카의 혁명 연구를 소개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닐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논문의 성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논의가 될 것이다. 현시점에 국제정치학계에서 카의 혁명 연구를 소개할 때는 일정한 장애물과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 첫 번째로 논문 제2장에서 소개했듯이 이론 친화적으로 변해버린 카 독해가 있다. 이론적 패러다임으로 인해 경색될 대로 경색되어 버린 최근의 카 독해는

118) 카는 역사가의 소명(Beruf)은 역사적 사건의 다양한 원인을 중요도에 따라 질서화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Carr. 1961. pp. 89~91.

119) Carr. 1947. p.98.; 1964. p.13 참고.

카의 혁명 연구 소개에서 뿐만이 아니라 카라는 인물에 대해 접근할 때도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첫 번째 장애물이다. 이론적 패러다임이 점거하고 있는 국제정치학계의 카 이해는 결과적으로 카의 이론적 소속처에 대한 문제로 연구자들을 잘못 인도한다. 국제정치학 이론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본 적도 없는 혁명 연구가를 연구하는 데 그 주제로서 정당성을 가질 것인가 여부는 말할 것도 없고, 카의 이론적 소속처에 대한 결론이 결국 국제정치학계에 줄 수 있는 학문적 의의가 무엇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카의 혁명 연구로 논의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론적 패러다임에 기반을 두고 있는 카 독해가 얼마나 부당하고 무실(無實)한지를 깨닫는 것이 우선이다. 카에 대한 이론 중심적 이해는 현재의 국제정치학계가 이론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급격하게 전문화된 결과로서 의미를 지닐지는 모르겠으나 카 연구를 이론적인 접근 외에는 불가능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다음 극복 대상인 장애물은 20세기 유럽이라는 카의 시공간적 배경과 이질적인 현실 조건이다.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20세기 역사적 전환기의 지식인으로서 카라는 한 인물의 사고를 이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를 통해서 20세기 전환기의 유럽이라는 시공간적 배경 및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함께 경주하고 있다. 물론, 그 시대를 카라는 인물의 시각을 통해 이해할 수밖에 없기에 그 자체로 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의도는 없다. 20세기 유럽을 타자의 과거로밖에는 바라볼 수 없는 현실적인 조건 아래에서 역사적 전환기로서 20세기 유럽에 대한 카의 해석이 일정하게는 비공감의 대상이 되거나 과도하다고 평가받더라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러시아 혁명이 정말 카의 해석대로 프랑스 혁명이 완성하지 못한 사회적 혁명을 완결지은 유럽사의 일대 사건이었는가? 20세기에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던 변화 중 어디까지를 러시아 혁명 내지는 소비에트 체제의 등장으로 인해 발생한 영향으로 볼 것인가? 이와 같은 질문들은 당대를 살았던 카의 사고 속에서도 그 답이 불분명했다. 러시아 혁명과 소비에트 러시아는 그 자체로서 유럽의 20세기적 변화의 원인이었는가 아

니면 변화의 결과 내지는 변화의 일부였는가? 이에 대해 카가 “모두”라고 대답하고 있기 때문이다.¹²⁰⁾ 현재의 현실적인 조건 아래에서도 같은 질문은 여전히 미해결의 난제로 남아 있다. 즉, 여전히 카가 제시하고 있는 러시아 혁명에 대한 역사적 해석 및 그가 분석하고 있는 소비에트 체제가 유럽사에 남긴 영향은 완전히 검증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만약 카가 탈냉전 이후까지 생존하여 현실에서 소비에트 체제의 완전한 붕괴를 목격했었다면 자신이 제기했던 역사적 해석을 수정하거나 철회했을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소비에트사가 체제 붕괴라는 실패 사례를 남기고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졌다고 해서 러시아 혁명이나 소비에트 건국 초기사와 그 체제의 역사적 의미를 무조건 평가절하하고 볼 이유는 없다. 그뿐만 아니라 카의 혁명 연구나 소비에트사 연구에 반영된 그의 세계관 및 역사관은 여전히 20세기 유럽적 맥락에서 의미를 지닐 것이다. 다만 현재의 제(諸) 조건 속에서 카의 20세기 유럽사 해석을 읽는 독자들이 현재를 충분히 상대화하여 20세기 유럽사를 정당하게 판단할 준비가 되었는지가 관건일 것이다.

그렇다면, 20세기 유럽이라는 시공간적 맥락에서 카의 혁명 연구를 읽는 것이 국제정치학계에 가져올 소득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떠올릴 수 있는가? 우선 혁명 연구라는 주제를 통해 카를 정당하게 읽어줄 수 있다. 국제정치학계에 대해 카가 남긴 영향력을 일정하게 인정하고 있다면 카를 정당하게 읽어야 하는 과제는 국제정치학계 모두의 것이나 다름 없다. 그리고 정당하게 읽는다고 했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저서 일부에서 나타나는 제한적인 논의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저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카의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문제의식을 포착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20세기 유럽, 즉 국제정치학이 태동한 실제 시공간의 당면 과제 그리고 문제의식과 마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애당초 근대 국제정치학의 탄생 자체가 20세기 유럽이라는 시공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

120) Carr. 2004. pp. 1~2.

었다는 점을 상기할 사람이라면 앞서 제시된 소득이 작은 것이라고 선뜻 폄하할 수 없을 것이다. 당대 국제정치학의 탄생은 일차적으로 20세기적 전환에 해당하는 세계대전을 두 차례나 맞이했던 유럽인들이 전쟁 없는 평화적인 국가 간 질서와 체계를 만들고자 노력한 결과물이었다.

다음으로 20세기 유럽이 당면한 또 다른 과제로는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회복해야 하는 일이 있었다. 이 문제는 비유럽권의 역사적 경험으로는 십분 공감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일지도 모른다. 사회주의 체제를 내세운 신생 국가의 설립과 약진, 전체주의 정권의 등장과 그들의 일시적인 강세, 대중 사회의 등장과 발달이라는 현실 조건 아래 다시금 민주주의 체제와 민주주의적 가치가 지닌 우월성 및 정당성을 확인시켜 줘야 했던 유럽 당대의 문제의식이, 시공간적 여건이 달라서 역사적 경험마저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도 분명하게 인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은 카의 경우만을 보아도 당시 시대에 특화된 서유럽적인 논의 대상으로서 중요성을 띤다.

사회주의 국가 및 파시스트 국가의 등장과 대중 사회의 영향력 확대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기 등은 국제정치학이 태동하고 있던 20세기 당대 유럽에서 대단히 섬세한 취급을 요하는 현상들이자 논의 주제들이었다. 그리고 카를 통해 20세기 유럽이라는 시공간적 배경과 조우함으로써 당시 국제정치와 국내정치 전반에 걸쳐 있는 이와 같은 다양한 현실 문제를 한자리에서 대면할 수 있다. 국제정치학적 고민 역시 20세기 유럽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탄생한 다양한 문제의식 중 하나였으며 유럽이 경험한 20세기적 전환은 국내정치와 국제정치를 넘나들었다. 따라서 당시 발생하고 있던 각각의 현실 변화의 예 중에서 어떤 것은 특별히 국내정치적이고 어떤 것은 특별히 국제정치적이라고 말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의 쇠퇴라는 문제는 당시 서유럽 각국의 국내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국제적으로는 파시스트 정권의 등장 및 사회주의 국가의 등장과 세계대전의 발발이라는 현상과도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었다. 이런 지적을 통해 국제정치학이 단순히 관련 이론에

대한 취급을 넘어 분과 학문으로서 다양한 주제와 문제의식을 포섭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할 수 있다.

동시에 지금까지 국제정치학계가 20세기 초기의 유럽과 관련하여 현실주의 국제정치관이 이상주의 국제정치관을 대체한 시기라는 식의 이론 중심적인 문제의식밖에 키워 오지 못한 점을 이 논문이 다시금 환기할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이 논문은 맡은 바 그 소임을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제 5 장 역사적 전환기로서 20세기

제 1 절 세계대전과 혁명

당대 국제정치를 논한 카의 대표 저서로서 *The Twenty Years' Crisis*(이하 TTYC로 약칭)와 *Conditions of Peace*(이하 CP로 약칭) 두 권은 공통적으로 전후 세계 정책에 대해 다루고 있는 책들이다. 지금까지 국제정치학계는 TTYC가 전간기(inter-war period)에 성행했던 특정 사조에 대한 비판을 목적으로 저술된 책이라고 설명해 왔는데 저서 전체가 보여주는 핵심 문제의식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이해라고 지적할 수 있다. TTYC의 핵심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전쟁을 동반하지 않는 평화적인 국제질서의 교체에 있다. 전후 세계 정책에 대한 카의 조언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은 기존의 전후 정책이 가진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카의 문제 분석과 비판을 개괄하도록 한다.

세계대전기 국제정치에 대한 카의 비판은 베르사유 조약(The Versailles Treaty)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출발한다. 카가 베르사유 조약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조약이 선형적인 전제와 이상적이고 관념적인 믿음에 근거한다는 점이다.¹²¹⁾ 둘째, 그러나 그보다도 더욱 중요하게는 전쟁으로 분출된 20세기 초 서구 사회의 혁명적 변화들을 외면한 채 기존의 기득권 국가들이 구시대로의 회귀를 시도했다는 점에 있다.¹²²⁾ 이처럼 카가 베르사유 조약에 대해 가지는 불만을 이해하고 나면 그가 1차 대전 이후의 역사적 맥락을 나폴레옹 전쟁 이후의 역사적 맥락과 일치한다고 지적했던 이유나 나치즘의 등장과 세계대전의 발생은 원인이라기보다는 “증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121) E. H. Carr, *The Twenty Years' Crisis 1919-1939* (London: Macmillan, 1939), pp. 31~53; *Conditions of Peace* (New York: Macmillan, 1943), p.242.

122) Carr. 1939. p.287; Carr. 1943. pp. ix~xxiv, pp. 3~14.

사정도 이해할 수 있다.¹²³⁾

나폴레옹 전쟁 이후의 빈 체제가 유럽 내에서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확산되었던 혁명적 사상으로서 자유주의(liberalism)를 억압하는 역할을 했다면, 1차 대전 이후 유럽에서는 당시 확산되고 있던 또 다른 혁명적 움직임과 변화에 대해 베르사유 체제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이 카의 기본적인 분석이다. 즉, 전쟁 이후 전 유럽에 혁명적 움직임이 부상한 상황에서 그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한 반동적 체제가 확립되었다는 점이 나폴레옹 전쟁 이후 유럽의 상황과 1차 대전 이후 유럽의 상황 각각에서 카가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이었다.

차이점이 있다면 빈 체제는 훌륭하게 국가 간 전쟁을 억제한 반면, 베르사유 체제는 결국 또 한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종말을 맞이했다는 것이다. 이때, 베르사유 체제를 종속시킨 추축국의 등장과 2차 대전의 발생은 역사적 우연이 작용한 결과라거나 아니면 단순히 추축국 지도자 개인의 야욕과 충동에서 발생한 결과는 아니며 분명한 병원(病原)을 가진 병리적 증후에 해당하였다. 따라서 카는 2차 대전이라는 병리 증상을 발생시킨 당시 유럽 내부의 근본적인 문제에 눈을 돌리게 된다.

카가 생각하기에 병리 증상이 발생한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자유주의가 구시대적인 사상으로 전락하고 자유주의에 대항하는 혁명적 움직임이 태동하게 된 상황에 있었다. 그리고 카가 보기에 20세기는 그러한 혁명적인 변화가 구체적이고 본격적으로 광범위한 영역에서 영향을 발휘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이 혁명적인 움직임은 세계사적으로 러시아 혁명이란 일대 사건을 촉발하기도 하였으나 20세기적인 전환의 흐름이 러시아 혁명이라는 하나의 사건에 의해서만 대변되고 끝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이전 시기부터 해서 이후 세계대전의 발발과 러시아 혁명으로 이어지는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20세기의 시대적 변화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우선은 카가 제시한 전후 세계 정책의 대략을 살펴보도록 한다. TTYC가 단순히 국제정치학 분과 안에서 이상주의(utopianis

123) Carr. 1939. p. 288.

m)¹²⁴⁾에 대항하는 현실주의 사조의 확립만을 염두에 두고 쓰인 글이 아니라는 것은 1939년 초판본의 서문만 보아도 확실히 알 수 있다. TTYC 초판본의 서문에서 카는 향후 세계사가 평화의 시대로 재귀했을 때 평화 유지를 위해 각 추축국에서 파시즘과 군국주의가 등장하고 세를 확장하게 된 조건을 철폐할 것과 또 다른 평화 회의에서는 평화와 관련 있는 더욱 근본적인 문제들을 고심할 것을 촉구했다.¹²⁵⁾ 당시의 국제정치를 다룬 카의 대표 저서로서 TTYC는 20세기 유럽에서 진행 중이던 실제 역사적 사건으로서 혁명과 혁명을 동반한 광범위한 시대적 변화를 강하게 의식한 채 쓰였다. 이어서 소개할 CP에도 동일한 의식이 반영되어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며 당시 혁명을 비롯한 여러 변화의 사례들은 카가 지적했던 평화 관련 근본 문제들과도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그렇다면 우선 카는 왜 TTYC에서 이상주의에 대한 비판을 감행했고 이러한 지점은 그의 다른 국제정치학 저서인 CP와 어떤 연관성을 갖는가? TTYC의 제2부, “The International Crisis”에서 카는 세계 대전의 재발 원인을 1차 대전 이후 이미 폐기되었어야 마땅한 구시대적 사조 곧 자유주의의 국제적인 적용 및 변용에서 찾았다.¹²⁶⁾ 19세기 영국식 자유주의는 20세기에 들어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서 괴리되고 도태됨으로써 현실을 망각한 이상주의의 성격을 띠었고 그 결과 국제적 차원

124) 이 글에서는 자유주의와 이상주의가 자연스럽게 호환되어 사용될 예정인데, 두 용어 혹은 사상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재확인해 두고자 한다. 비슷한 지적이 일찍이 국제정치학사 분야에서 수정주의자(revisionist)들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Peter Wilson, “Introduction: The ‘Twenty Years’ Crisis and the Category of ‘Ideal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David Long and Peter Wilson (eds.), *Thinkers of the Twenty Years’ Crisi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pp. 1~24. 그럼에도 본고가 마치 자유주의와 이상주의를 등치시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카의 비판이 지닌 논리상 자유주의는 20세기 시점에서 이미 이상주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즉, 20세기 유럽의 현실과 자유주의 사상은 호응하지 않는다는 전제로부터 자유주의는 이상주의로서 서로 다른 용어와 사상 간의 등치가 가능해진다. 앞으로 특별히 별도의 언급이 없는 이상 이상주의와 자유주의는 호환되어 사용될 것이다. 다만 언제나 자유주의와 이상주의가 반드시 같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125) Carr. 1939. pp. ix~x; 1943. p.vii.

126) Carr. 1939. pp. 36~37.

의 효과적인 위기관리 실패로 이어졌다. 카의 비판에 따르면 19세기식 자유주의의 재등장 배경에는 어디까지나 승전국의 하나인 영국이 전쟁 후에도 자국의 기득권을 옹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과거 자국의 번영에 일조했던 사조로서 자유주의를 재활용한 측면이 강하게 작용했다.¹²⁷⁾ 1차 대전 이후 자유주의가 이상주의의 형태로 재부흥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본 카로서는 2차 대전이 종결된 후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평화 관련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19세기 영국식 자유주의가 더 이상 세계사의 전개와 상승 작용을 일으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평화 유지를 위한 수순이라는 데 있었다.

그러나 카가 초판 서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이상주의화된 자유주의를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비판하고 국제정치 영역에서 몰아내는 것만으로 모두 해결되지 않았다. 그가 순진무구하게 이상주의가 모습을 감추는 대로 세계 평화가 자연스레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TTYC의 의미를 이상주의 비판으로만 축소하는 것은 그동안 국제정치학계가 TTYC 이해에서 보여준 잘못된 관례였을 뿐이다. 결국 2차 대전 이후 평화와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는 평화적인 국제질서의 교체라는 문제로 되 돌아온다.¹²⁸⁾

평화적 질서 교체에 대한 카의 생각은 TTYC의 제4부 제13장 “Peaceful Change” 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평화적인 국제질서의 교체에 관하여 이 장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카가 영국학파보다 앞선 시기에 “국제사회”(international society)의 존재 가능성과 그 개념을 암시하였다는 점이다. TTYC에서 카는 세계정부(World Government)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비판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지만 전 지구 단위에서 국가(nation)의 모습 대신 사회(society) 혹은 공동체(community)의 모습을 띠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¹²⁹⁾

127) Carr. 1939. pp. 102~112.

128) 사카이 데쓰야(酒井哲哉) 저, 장인성 역, 『근대 일본의 국제질서론』 (고양: 연암서가, 2010), pp. 56~70 참고.

129) Carr. 1939. p.269.

국가들이 전 지구적인 단위에서 하나의 사회 안에 포섭되면, 그 안에서 초반에는 강대국과 강대국에 대항하는 불만 국가 간 전쟁이 불가피하더라도 차차 평화적인 협력과 합의의 과정이 모색되고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카는 국내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권력 관계 혹은 알력 관계에 빗대어 국제적 차원에서의 강대국과 불만 국가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¹³⁰⁾ 국내 차원에서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는 늘 긴장 관계를 보이며, 극단적인 경우까지 갔을 때 노동자에 의한 국내적 혁명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는 것처럼 국제정치 차원에서도 국가 간 긴장 관계와 전쟁 가능성은 카가 보기에 늘 편재성(遍在性)을 띠었다.¹³¹⁾

결국 TTYC를 통해 카가 말하고자 했던 바는 국제정치에서 강대국과 불만 국가 간의 관계를 전쟁이 일부는 불가피하다고 해도 마침내는 전쟁 없이 풀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평화적 절차를 마련하자는 데 있었다. 카가 초판 서문에서 고민했던 평화 관련 더욱 근본적인 문제들 역시 평화적 변경(peaceful change)의 방식에 관한 문제였다. TTYC의 결론에서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 것도 결국 기득권 중심적인 구질서의 변경과 전후 신질서 구축을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 내지는 단위의 힘(power), 그리고 도덕(morality)이었다. 힘과 도덕이라는 정치의 두 요소는 카가 TTYC 전체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지점이다. 평화적 변경 과정에서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2대 요소로서 힘과 도덕의 두 요소는 동등하게 중요성을 가진다.¹³²⁾

TTYC에 이어서, CP는 카가 교수이자 학자로서 본업을 변경한 이후 출간된 네 번째 책이었다.¹³³⁾ 발매 시기로 보았을 때, TTYC와 3년

130) Carr. 1939. p.270.

131) 카의 이런 측면은 현실주의 국제정치학 이론의 주요한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점을 과도하게 강조하여 카가 마치 현실주의 국제정치관 내지는 이론을 설립하겠다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특정 저서들을 저술한 것처럼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이다. 카는 현실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던 간에 사실 현실주의자도 아니었으며 국제정치 이론가는 더더욱 아니었다. ‘카는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가’라는 편견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그의 저서를 읽을 필요가 있다.

132) Carr. 1939. pp. 118~119, pp. 123~130, pp. 266~284.

이라는 시차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의 발발 직전과 후라는 시대 배경 상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TTYC 그리고 CP 이 두 권의 책은 많은 유사점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TTYC나 CP나 모두 전후 세계 정책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렇다면 전후 세계 정책과 관련하여 CP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제시 또는 전개되었는가?

CP 역시 당시 진행 중이던 전쟁 및 향후 평화와 관련된 근본적인 이슈들로 관심을 환기(喚起)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¹³⁴⁾ TTYC에 비해 CP는 책 전체가 훨씬 더 깔끔하고 균형감 있게 구성되어 있는데, 평화 관련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제1부 “Some Fundamental Issues”와 평화 설립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 구성된 제2부 “Some Outlines of Policy”로 구분되어 있다. 먼저 제1부의 경우 TTYC와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도 TTYC에서 카가 지적했던 평화 관련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 더욱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동시에 CP는 전쟁으로 인해 촉발된 평화 관련 근본적인 문제들과 관련하여 카가 시도한 가장 종합적인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CP의 제1부에서 카가 진행한 논의들은 대부분이 CP 이후의 저서들에서도 다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또한 세계대전기 혹은 20세기 전반(前半)을 바라보는 카의 시각이 큰 틀에서 일관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CP는 향후 민족주의 및 근대 국민국가(nation state) 문제를 다룬 카의 1945년도 저서 *Nationalism and After*, 그리고 소련이 서방 세계

133) 흔히 카의 첫 국제정치학 저서를 1939년도 것인 *The Twenty Years' Crisis 1919-1939*로 생각하고 국제정치학계에서도 이 책만을 주요하게 취급하지만, 카가 1936년 Aberystwyth University에서 교수직을 맡은 후로 처음 출간한 국제정치학 관련 저서는 1937년도에 나온 *International Relations between the Two World Wars 1919-1939*(원제: *International Relations Since the Peace Treaties*)였다. 따라서 *Conditions of Peace*는 그가 학자가 된 이후 국제정치와 관련하여 저술한 네 번째 책이 된다. 왜냐면 *The Twenty Years' Crisis*가 출판된 1939년 같은 해에 영국 대외 정책을 분석한 *Britain: A Study of Foreign Policy from the Versailles Treaty to the Outbreak of War*이라는 저서도 출간되었기 때문이다.

134) Carr. 1943. p.vii.

에 미친 영향력을 다룬 1947년도 저서 *The Soviet Impact on the Western World* 각 각의 모체가 되고 있다. 그 근거를 들자면 우선 제1부의 제3장에서는 자결권에 대한 카의 비판¹³⁵⁾과 함께 근대 민족국가 단위에 대한 카의 의문이 함께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Nationalism and After의 논의 내용과 핵심에서 일맥상통한다. 동시에 제1장 “War and Revolution,” 제2장 “The Crisis of Democracy,” 제4장 “The Economic Crisis,” 제5장 “The Moral Crisis” 각 각의 내용은 The Soviet Impact on the Western World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이상의 유사성은 각 저서와 CP의 목차만 서로 비교해 보아도 금방 알 수 있을 정도의 것이다. 실제로 읽어보았을 때도 각 저서에 드러나는 카의 논의가 반복적이며 핵심에서 통하고 있다는 느낌을 금방 가진다. 다만 CP는 *Nationalism and After, The Soviet Impact on the Western World* 보다 이른 시기에 출간되었다는 점, 그리고 문제의식의 측면에서 이후 출간된 저서들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카에 의해 시도된 가장 종합적이고 가장 고유한 시대 분석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CP는 20세기 혁명의 흐름이 국제정치에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지를 밝히고 혁명 연구를 국제정치 분야에서 개진한 저서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세계대전이 사실은 당시 진행 중이던 혁명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했다.¹³⁶⁾ 따라서 전후 신질서 구축을 위해서는 “안정”을 지향하는 태도보다는 “혁명”을 지향하는 태도로 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¹³⁷⁾

당대 혁명적 움직임이 어떻게 국제정치에 반영되고 있었는지는 CP 제1장 “War and Revolution”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이 장에서

135) Carr. 1943. p.270, p.273. 자결권에 대한 카의 비판이 처음 등장한 것은 사실 1937년도 저서에서였다. 카는 자결권이 동유럽에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 책에서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E. H. Carr, *International Relations between the Two World Wars 1919-1939* (New York: Harper&Row, 1937), pp. 61~78. 또한 1945년도 저서에서도 민족자결주의의 형태로 분출된 1차 대전 이후의 민족주의가 국제정치에 어떤 부작용을 가져왔는지 적고 있다. E. H. Carr. *Nationalism and After* (London: Macmillan, 1945), p.33.

136) Carr. 1943. p.3.

137) Carr. 1943. p.xxiv.

카는 추축국에 대해 주목할 만한 태도를 보여준 바 있다. 해당 장에서 카는 양차 대전이 지닌 혁명적 성격을 강조함과 동시에 연합국은 구시대적인 질서를 신봉함으로써 추축국에 비해 정치, 경제, 군사의 측면에서 뒤처지게 되었다고 분석했다.¹³⁸⁾ 카가 보기에 2차 대전 추축국들은 구질서의 주창국이자 주도국인 연합국들에 비해 20세기적 변화를 훨씬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선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¹³⁹⁾

다음으로, 전후 세계 정책에 관한 조언에서도 CP는 TTYC보다 더욱 본격적이고 세밀한 서술을 보여준다. 다만 한 가지 특징적이라고 할 것은 정책 조언이 전적으로 영국을 청자로 전제한 채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분명한 소속의 명시는 오히려 카다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TTYC에서 20세기 초 유행하던 국제정치 사조의 공간적 소속(영국 내지는 미국)과 시대적 소속(19세기)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 특수성과 제한성을 비판했던 카는 CP에서도 보편성을 지양한 채 더욱 분명하게 영국의 입장에 한정하여 전후 세계정치의 윤곽을 그려나간다.¹⁴⁰⁾

그렇다고 해서 CP가 갖는 의미를 영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처럼 후퇴시킬 필요는 없다. 마지막 제10장 “The New Europe”에서는 전 유럽에 해당하는 전후 정책의 큰 틀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당시 영국이 가지고 있던 구질서의 주도자라는 특수한 역사적 맥락과 상황이 작용하였다. 즉, 영국의 대외 정책은 단순히 영국만의 것이 아니라 당시로는 최소한 전 유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카는 당시 영국이 세계 질서에서 갖는 주도권과 영향력이 쇠퇴하

138) Carr. 1943. pp. xi~xxiv.

139) Carr. 1943. p.xiii, p.xxi, pp. xix~xx. 1차 대전 이후 과거 지향적이었던 연합국들에 비해 추축국이 정치, 경제, 안보의 측면에서 선진적인 시도를 주도하고 있었다는 식의 논지는 카의 1943년도 저서의 서문뿐만 아니라 저서 전체가 지닌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140) 카의 1939년도 저서가 카를 만하임(Karl Mannheim, 1893~1947)의 지식사회학(Sociology of Knowledge)과 그를 통한 마르크스주의적 비판 의식의 영향을 받아 쓰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식사회학의 전제는 지식의 생성과 확립이 시공간적 맥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인데, 카 역시 보편적인 법칙인 것처럼 주장되는 19세기 영국식 자유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지식사회학의 전제를 활용한다. 이상의 내용은 다음을 참고할 것. Carr. 1939. p.x, p.87.

고 있는 현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카는 전후 미국과 영국 사이의 세계 정책 조율을 TTYC와 CP 두 권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¹⁴¹⁾ 평화 구축과 유지를 위해 힘의 요소를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강조했던 카인만큼, 그는 전후 국제정치를 좌우할 힘의 요소와 관련하여 영국과 미국 사이의 성공적인 조율을 평화 신질서 구축의 핵심으로 생각했다.

그 외에도, 전후 정책에 관한 카의 조언은 TTYC에서 제시된 그대로 CP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평화적 변경 절차를 위한 국제사회의 필요성이 CP에도 전제로 깔려있기 때문이다. CP에서도 카는 여전히 국제 분쟁과 관련된 법적 절차의 마련은 시기상조라고 보았으며, 그 이유는 법적 절차가 분명한 현실 판단에 의거하기보다는 “선험적” (a priori) 이고 관념적인 전제들에 의거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¹⁴²⁾ 그는 CP에서 특별히 새로운 국제질서가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임시적 조율” (provisional arrangements)을 포함한 “임시적인 협력의 구조” (a provisional framework of collaboration)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¹⁴³⁾ 이러한 임시적인 조율이 생산, 교역, 금융, 교통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맡은 바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도 그는 생각했다.¹⁴⁴⁾

카가 생각하기에 평화로 가는 길은 총 세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우선 전쟁 자체와 전쟁에 수반되는 모든 적대적인 행위 및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전쟁이 끝나고 가장 먼저 실현되어야 하는 단계이다. 그러나 이 단계는 이후의 단계에 비해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다음으로, 카가 말한 임시적 조율을 통한 임시적인 협력의 구조를 일상화해가는 단계가 있다. 이 단계는 마지막 단계인 평화 지속 단계와 직전 단계인 적대 행위 종식 단계의 중간에 위치한 과도기적 단계이며, 선험적인 전제와 형식적인 법적 절차에 의거하기보다는 현실적인 필요성

141) Carr. 1939. pp. 298~301; 1943. pp. 175~188.

142) Carr. 1939. pp. 219~284.

143) Carr. 1943. pp. 241~247.

144) Carr. 1943. pp. 262~275.

에 따라 선례를 만들어가야 할 시기로서 중요성을 가진다. 이 단계에서 적대 행위를 종식하듯 성급한 태도를 취하면 1차 대전 이후 베르사유 조약이 그러했듯 평화를 종속시키기보다는 또 다른 위기 국면을 불러올 수 있다고 카는 경고한다.¹⁴⁵⁾ 뿐만 아니라 첫 번째 단계인 적대 행위의 종식 단계와 두 번째 단계를 착각해서도 안 된다고 카는 조언한다.¹⁴⁶⁾

마지막으로는 임시적인 구조와 다양한 선례들이 하나의 굳건한 제도(institution)로 자리 잡아감에 따라 평화가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 시기에는 앞선 시기까지는 지양되었던 합의(agreements), 입헌적 규율(constitutional rules) 등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이상의 내용을 참고하건대, 카는 세계정부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부정하였다기보다 시의적절성의 측면에서 전후 시기에는 아직 그 실현이 부적절하며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것뿐이다. 카는 국민 국가 단위를 넘어선 정치적 공동체(political community)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거부한 인물도 아니었다. 그 증거는 카가 Nationalism and After라는 저서를 저술했다는 사실로부터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1990년대 들어서 카가 비판이론(critical theory)에서 다시 읽히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¹⁴⁷⁾

145) Carr. 1943. p.241.

146) Carr. 1943. p.242.

147) 다음의 논문들을 참고할 것. Robert W. Cox, "Social Forces, States and World Orders: Beyo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10, No. 2 (Jun 1981), pp. 126~155.; Andrew Linklater, "The Question of the Next Stage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 Critical-Theoretical Point of View,"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1, No. 1 (Mar 1992), pp. 77~98.; "The Transformation of Political Community: E. H. Carr, Critical The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3, No. 3 (Jul 1997), pp. 321~338.; Sean Molly, "Dialectics and Transformation: Exploring The International Theory of E. H. Carr,"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tics, Culture and Society*, Vol. 17, No. 2 (Dec 2003), pp. 279~306.

제 2 절 20세기 새로운 민주주의

카의 역사적 접근법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란 프랑스 혁명으로 막이 오른 특정한 시대에 성행했던 민주주의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특정한 시대를 대변하던 특수한 형태의 정치 제도가 위기에 직면한 역사적 전환기에, 그는 한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의 이행을 더 명확히 이해시키기 위해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사상이자 제도의 기원을 밝히는 역사적 접근법을 동원했다. 자유민주주의는 그 정치 제도를 지지하고 옹호한 특정 계층의 이름에서 유래하여 때로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bourgeois democracy)라고도 불리곤 하였다.

자유민주주의, 곧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사회 운용 단위로서 개인을 강조하면서 경제와 사회 각 분야에 개인주의를 파급시켰다. 동시에, 자유민주주의는 여전히 엘리트주의적인 특징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부르주아 민주주의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유민주주의에서 개인으로서 정치와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이들은 소수의 부르주아(bourgeois)뿐이었고 그들에 의해 민주주의의 태생적 특징으로서 엘리트주의가 이 시대에도 지속 되었다.¹⁴⁸⁾

특기할 것은, 프랑스 혁명이 민주주의의 이러한 태생적 특성에 처음부터 반드시 순명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프랑스 혁명은 명목상으로는 군주제에 반(反)하여 인민 주권을 정치 제도의 근간으로 새롭게 천명하였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프랑스 혁명은 루소의 “일반 의지” (general will)란 사상이 등장한 이후 발생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루소 이전의 로크적 민주주의 정치 원리가 지극히 개인주의적 특성을 가지는데 비해, 루소는 카에 의하면 최초로 “대중 민주주의” (mass democracy) 개념을 적극 검토한 사상가였다.¹⁴⁹⁾ 따라서 프랑스 혁명과 그 결과가 처음부터 반드시 개인주의와 엘리트주의라는 숙명을 향해 나아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카는 인민 주권이라는 개념이 이론적으로는

148) Carr. 1943. p.20; 1966. p.61.

149) Carr. 1966. p.63.

군주 개인에 의한 지배와 대립하고 있다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의미와 실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졌다.¹⁵⁰⁾ 즉, 프랑스 혁명은 다수에 의한 지배를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대 그리스적 민주주의의 전통인 엘리트주의와 로크적 민주주의 정치 원리의 기반이 되는 개인주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문제는 19세기 중반부터 이미 대중 사회(mass society)가 등장·발달하면서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엘리트주의적 자유민주주의가 정치 제도로서 순기능을 하지 못 하게 된 데 있었다. 자유민주주의가 보유한 개인주의적 특성 또한 마찬가지로 새롭게 등장한 대중 사회와 마찰을 일으켰다. 카는 일찍이 자유민주주의의 세 가지 전제를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첫째, 개인의 양심은 정부정(正不正), 당부당(當不當)을 가르는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기제이다. 둘째, 서로 다른 인간들 사이에서도 일정한 화합과 조화는 가능하다. 셋째, 결정의 순간에 사회 구성원들 간의 이성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일정한 결론에 다다른 것이 가능하다.¹⁵¹⁾ 이상의 전제는 모두 사회 단위로서 개인을 기본 단위로 삼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개인주의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인 자유민주주의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던 대중 사회와 궁합이 맞으려야 맞을 수가 없었다. 대중은 비이성적이고 비타협적이었으며, 합리적 합의에 이르기에는 당시 교육 수준이 충분치도 못했고 자신이 속한 계층적 특성과 이익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었기에 특수성을 뛰어넘는 보편성을 지향할 수도 없었다. 당연히 기존의 자유민주주의와 새롭게 등장한 대중 사회는 충돌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

19세기 대중 사회가 등장하고 이후 빠르게 확산되면서 개인주의와 엘리트주의라는 자유민주주의의 두 가지 특성은 위기에 직면했다. 그중에서도 자유민주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개인주의적 특성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이유로 개인주의에 대한 공격과 반동은 자유민주주의 정치 원리 내지는 제도에 대한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 되었다. 자유민주주의는

150) Carr. 1980. p.3.

151) Carr. 1966. p.62.

사회 구성 및 운영의 단위로서 개인을 강조했고 개인주의는 이후 자유주의 시대의 도덕이자 사상적 근간이었기에 개인주의에 대한 비판은 곧 자유민주주의의 정당성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졌다. 개인주의는 자유주의 시대 경제 원리인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와 도덕인 이익 조화설, 그리고 민주주의와 함께 민족주의를 떠받치는 기본 사상이기도 했다.¹⁵²⁾ 그러나 변화된 사회 현실로 인해 개인주의는 더 이상 사회 운용 단위로서도, 혹은 한 사회를 지탱하는 사상적·도덕적 근간으로서도 받아들여질 수 없게 되었다.

카의 생각으로는 20세기는 곧 부르주아 민주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를 대신할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대였다. 새로운 민주주의는 카의 저서에서 “사회적”(social) 민주주의, “소련식”(Soviet) 민주주의, “대중”(mass) 민주주의 등과 같이 다양한 명칭으로 나타난다. 우선 사회적 민주주의라 함은 개인주의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인 기존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비해 개인 간 평등과 그에 따른 사회 단위의 강조를 반영한 20세기적인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20세기적 민주주의라고 하여, 기존 민주주의 정체가 가진 문제점을 완벽히 소거하고 완전무결한 상태에 도달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대중 민주주의와 “소련식” 민주주의라는 표현 속에는 카가 생각하기에 20세기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가 보유하고 있는 고유한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었다.

카는 러시아 혁명의 위치를 분석하고 있는 에세이에서 자유민주주의로부터 대중 민주주의로의 전환은 러시아 혁명의 경험이 유럽의 다른 지역에까지 확산된 결과라고 보았다.¹⁵³⁾ 대중 민주주의는 러시아 혁명의 결과 역사에 새롭게 등장하게 된 20세기적인 민주주의 유형이었다. 새로운 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서 대중 민주주의가 기존의 자유민주주의와 차별화되는 지점은 대중이 정치적 주체로 등장함으로써 그 영향력이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서 인정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대중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마르크스에서 레

152) Carr. 1943. p.105; 1945. p.9; 1966. p.61.

153) E. H. Carr. *The October Revolution: Before and After* (New York: Alfred A. Knopf, 1969), p.28.

닌, 스탈린으로 이어지는 사회주의 사상의 흐름과 시대적인 변화를 개괄할 필요가 있다. 마르크스는 부르주아 계급에 대항하여 대중을 노동자 즉, 무산 계급(proletariat)이라는 새로운 역사적 주체로 승격시켰다. 문제는 어떻게 많은 수의 노동자에게 혁명 의식을 체화시키고 새로운 사회에 알맞은 새로운 인간형으로 그들을 탈바꿈시키는가에 있었다.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마르크스주의를 일신한 사상가가 바로 러시아의 레닌이었다. 레닌은 엘리트 혁명당을 통한 혁명 의식의 주입과 새로운 사회를 창조해 나갈 새로운 인간형의 주조를 주창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엘리트에 의한 대중 교화 및 대중에 대한 합리적인 설득이 가능하다고 믿었다는 점에서 마르크스뿐만 아니라 레닌 역시 19세기적 사고의 틀 속에서 사고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¹⁵⁴⁾

반면, 스탈린이 집권한 20세기 이후에는 대중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뒤바뀐다. 스탈린은 엘리트인 당에 의해 대중의 사고와 행위는 얼마든지 통제와 계획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어떻게 대중이 엘리트가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게 만들 것인가는 서구적 합리성과 기술에 의존하여 개선하고 발전시킬 차원의 문제였다.¹⁵⁵⁾ 20세기에 대중이 역사적·정치적 주체로 부상한 이후 탄생하게 된 대중 민주주의는 그런 점에서 일부 계층이 사회 전반에서 권력을 독점하고 있던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에 비해서는 정치적·경제적 평등이 진일보한 결과물이면서도 동시에 대중에 대한 통제라는 새로운 문제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러시아 혁명에 의해 대중 민주주의를 확립한 소비에트만이 아니라 20세기 유럽 국가 대부분이 직면하게 된 사회·정치적 환경이기도 했다.¹⁵⁶⁾

러시아 혁명 이후 소비에트에서 시작된 대중 민주주의 곧, “소련식” 민주주의는 다만 대중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일 뿐이지만 혹자에게는 전체주의적인 스탈린 정권하의 소비에트 체제와 개인의 자유, 인권,

154) Carr. 1969. p.27. 여기서 의미하는 19세기적 사고란 다음을 참고. Carr. 1939. pp. 31~80.

155) Carr. 1969. p.27.

156) Carr. 1969. p.28.

평등 등의 가치에 기반한 민주주의 정치 원리 사이의 괴리로 인해 모순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쉽다.¹⁵⁷⁾ 그러나 카가 “소련식”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특별히 소비에트 정치 체제를 이상적인 것으로 홍보하거나 민주주의라는 용어로 전체주의적인 스탈린 정권을 위장하고 포장하려고 의도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한때, 대중 민주주의가 기존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가진 한계를 극복한 진일보한 정치체라는 점과 그리고 대중 민주주의가 새로운 민주 정체로서 러시아 혁명이 남긴 유산이자 이후 소비에트에 의해 서유럽 세계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점 등을 이유로 카가 소련식 민주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¹⁵⁸⁾ 그러나 후일에 카는 스탈린 체제 하 소비에트의 전체주의적 성격을 목도하고 거기에 대해 실망하면서 기존의 입장에 일정한 수정을 가하기도 하였다.¹⁵⁹⁾

용어의 적절성 문제와 일견 문제적으로 보이는 용어 안에 담긴 사용자의 진의를 밝히는 일과는 거리를 두고 대신 20세기 민주주의 정체가 현실적 변화를 일정하게 수용하고 있는 현상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 20세기 민주주의는 더 이상 기존의 개인주의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인 자유민주주의의 형태로는 유지될 수 없었다. 현실적 변화에 따라 대중을 정치적, 역사적 주체로서 체제 안으로 일정하게 포섭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로 인해 치러야만 했던 희생도 있었다. 무엇보다 대중에 의한 지배가 소수에 대한 다수의 폭력으로 변질될 위험성, 대중이 가진 힘에 비해 그들의 교육 수준과 합리적인 사고력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그 결과 대중의 의견과 사고가 조작되고 조종될 수 있는 개연성 등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20세기 이후 새로운 민주주의가 안고 가야 하는 위험성으로 새롭게 부상하게 되었다.

157) 대표적으로 모겐소가 그러했다. Hans J. Morgenthau, “The Political Science of E. H. Carr”, *World Politics*, Vol. 1 No. 1, (Oct 1948) 1948. p.133.

158) Carr. 1947. p.1, p.10. 이러한 사고상의 변화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소비에트 정권의 억압적 성격을 카가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159) E. H. Carr. “An Autobiography,” in Michael Cox. 2000. p.xx.; 박원용, “E. H. 카와 소비에트 러시아”, 『역사교육논집』 제56권, 제0호 (2015년 8월), pp. 420~428.

이상으로 20세기 민주주의 정체에 반영된 일정한 변화들은 1917년의 러시아 혁명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카에게는 인식되었다. 거기에 더해 러시아 혁명 이후 소비에트가 서유럽에 미친 영향력으로서 대중 민주주의의 등장은 카에게는 정치, 사회, 도덕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는 현상이기도 했다. 카의 설명대로라면 민주주의의 문제는 각국의 정치체와 직결되는 문제로서 국내정치에 해당되는 것이기도 했지만 동쪽의 소비에트로부터 유럽의 서쪽에 이르는 지식과 사상의 유통 과정을 통해 발생한 국제적인 차원의 현상이기도 했다.¹⁶⁰⁾

20세기 들어 유럽은 이전까지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었던 새로운 상황과 조우했다. 대중 사회의 등장과 확산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전 영역에서 변화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자 기존의 체제 및 제도가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도록 수정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이와 같은 20세기 유럽의 맥락에서 카는 우선적으로 변화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여 전달하고 그에 걸맞는 새로운 이상과 체제를 제시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의 저서들은 모두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이었으며, 카의 저서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 20세기 당시 유럽이 직면하고 있던 국내외적 변동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야말로 이 논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이다.

자유주의 시대의 근간이 현실로부터 유리되어감에 따라 당시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서 기존의 체제와 종(種)적으로 구별되는 대안적 정치, 경제, 사회 체제에 대한 모색이 전개되었다. 이처럼 자유민주주의와는 아예 계보를 달리하는 새로운 유형의 체제와 제도에 대한 지향이 카에 의해 포착되었고 그의 저서 *Studies in Revolution*은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들을 소개한 것이다. 이 책은 1940년대 후반 카가 작성한 에세이의 모음집으로 혁명과 관련된 다양한 인물 및 사건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생시몽(Saint-Simon, 1760-1825), 피에르-조제프 프루동(Pierre-Joseph Proudhon, 1809-1865), 알렉산드르 게르첸(Alexander Herzen, 1812-1870), 게오르기 플레하노프(Georgi

160) Carr. 1947. pp. 103~113; 1966. pp. 80~99.

Plekhanov, 1856-1918), 블라디미르 레닌, 조르주 소렐(Georges Sorel, 1847-1922), 윌리엄 갤러처(William Gallacher, 1881-1965), 이오시프 스탈린 중에서 우리는 이른 시기부터 자유민주주의와 개인주의에 반발한 생시몽, 프루동, 게르첸 세 사람을 간략히 살펴해보도록 한다. 위의 세 사람은 사회주의 안에서 마르크스에 의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기반으로 한 영구혁명론이 주창되기 전, 자유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 인물들이었다. 이들이 지향한 바가 완전하게 서로 일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제의식의 핵심은 역시 프랑스 혁명 이후 성립된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이었고 그 결과 이들의 사고는 자유민주주의와는 다른 대안적 체제의 완성과 실현이라는 목표로 상호 수렴하게 된다.

생시몽은 사회학자 오귀스트 콩트(Auguste Comte)의 스승으로서 카에 의하면 그는 콩트가 사회학이라는 학문 분야를 새롭게 개척하는 데 선구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동시에 생시몽 자신은 이른 시기 사회주의의 선구자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도 하다.¹⁶¹⁾ 생시몽은 자유주의 시대 “개인적 자유”(individual liberty)라는 개념이 사상적 함의의 측면에서도, 또 학문적 분석의 대상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았다.¹⁶²⁾ 그런 이유에서 그는 학문의 분석 대상으로서 개인의 집합체인 사회에 주목하였고 그가 고안한 새로운 학문적 분석 단위는 그의 제자 콩트가 사회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과를 탄생시키는 데 기여한 것이다. 동시에 개인은 사회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사회가 개인에 우선한다고 주장한 그의 사상은 원초적인 형태의 사회주의를 태동시켰으며, 이후 레닌이나 엥겔스 등에 의해 사회주의 형성에 중요하게 기여한 인물로서 이해되었다.¹⁶³⁾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개인주의의 도덕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사회 운용 단위로서 개인이라는 개념이 부작용을 드러내게 된 상황을 상기하였을 때, 이제 학문 분석 대상이자 단위의 측면에서도 개인이라는 개념이 더 이상 효용성을 유지할

161) E. H. Carr, *Studies in Revolution* (London: Macmillan, 1964), pp. 2~3.

162) Carr. 1964. p.4

163) Carr. 1964. p.5

수 없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프루동은 19세기 사회 구성단위로서 국가를 거부한 무정부주의자(anarchist)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1840년대까지 혁명과 혁명을 통해 실현될 이상향에 크게 경도되어 있었지만, 1848년 혁명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정치 권력과 국가 권력을 거부하는 극단적인 무정부주의로 전향하게 된다.¹⁶⁴⁾ 이러한 프루동의 전향에 대해 카는 1848년 2월 혁명의 실패에 따른 프루동과 마르크스의 서로 다른 선택지를 비교하여 보여주는데, 마르크스의 경우 1848년 실패한 혁명을 다시 실현하기 위해 공산당의 설립과 프롤레타리아 계층의 전면 독재라는 새로운 신조를 내세운 반면 프루동은 당(黨)도 프롤레타리아 계층도 그리고 다른 어떠한 신념도 거부한 채 철저하게 혁명 자체만을 홀로 지향함으로써 트로츠키에 의해 “사회주의 내의 로빈슨 크루소”(Robinson Crusoe of socialism)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였다.¹⁶⁵⁾

프루동의 무정부주의는 당시 자유주의 시대의 사회 구성단위로서 개인에 대해 가해지던 비판이 그 정점에 위치한 국민국가를 부정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는 극단적인 상황을 대변한다. 그렇다면 왜 프루동은 국민국가와 국가 권력을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인가? 그리고 국민국가나 개인을 대신하여 그가 제시한 대안은 무엇이었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미 답이 나왔듯이 1848년 혁명의 실패와 이후 프루동이 취한 독자적인 혁명 노선에서 유래한다. 다음으로, 카에 따르면 프루동은 국가 권력과 정치 권력을 악의 원천으로 이해하였으며 또한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자 최종 단위를 개인이나 국민국가 대신 “코뮌”(commune)으로 설정하였다.¹⁶⁶⁾ 동시에 그는 코뮌 간의 연합(federation) 혹은 국민국가 단위를 초월하는 국가 간 연합체를 이상적으로 여겼다.¹⁶⁷⁾

마지막으로 게르첸은 아직 러시아에서 마르크스적인 프롤레타리아 혁명 사상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전, 러시아의 전통에 기반해서 혁명적

164) 1848년의 혁명이 유럽사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E. H. Carr. “From Napoleon to Stalin,” in Carr. 1980. pp. 3~10에서도 다루고 있으니 참고할 것.

165) Carr. 1964. p.44

166) Carr. 1964. p.48.

167) Carr. 1964. p.46.

움직임을 선도한 최초의 나로드니키(Narodniki)로서 카에 의해 중요한 역사적 위치를 부여받은 인물이다.¹⁶⁸⁾ 게르첸은 제정 러시아에서 고등 교육을 받았으며 젊은 시절 차리즘(tsarism)에 대해 비판적이면서 한때 친(親)프랑스적인 성향을 보인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 역시 1848년 혁명의 실패를 목도하면서 프랑스의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환멸을 느끼고, 동시에 제정 러시아의 니콜라스 I 세가 사망하자 차리즘 극복을 위한 러시아의 국내적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여겨, 더 이상 프랑스도 미국도 아닌 바로 러시아에서 미완의 혁명이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그의 선구적인 기여 덕택으로, 러시아에서는 “마르크스적 사회민주주의자”(Marxist Social-Democrats)와는 다른 노선을 보유한 혁명가 집단이 형성되었다. 이른바 “사회 혁명가”(Social-Revolutionaries)라 하여 이들은 러시아의 전통적인 소작농 집단에서 발견되는 사회주의적 특징을 재발견하고 계승함으로써 미완의 혁명을 러시아에서 실현, 완성하고자 한 사람들이었다.¹⁶⁹⁾

생시몽, 프루동, 게르첸의 예를 통해 보듯이, 마르크스주의가 등장하기 전의 이른 시기부터 반자유주의적 사상을 구체화한 인물들에게 카가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무엇일까? 더 나아가 생시몽, 프루동, 게르첸을 포함 다른 혁명가와 혁명적 사상가, 내지 러시아 지도자를 분석하고 있는 카의 문제의식은 어떤 것일까?

카의 문제의식 또한 그의 1964년도 저서에서 서술 대상이 되고 있는 인물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바로 엘리트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자유주의 사상에 대한 비판 의식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카가 1964년도 저서에 등장하고 있는 혁명적 사상가들의 대안에 전적으로 동의했던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그가 제시한 새로운 체제는 어떤 모습을 띠고 있었는지 별도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생시몽, 프루동, 게르첸은 마르크스주의에 의탁하지 않은 사회주의 혁명 혹은 무정부주의를 기존 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한 바 있다. 유사한 문제의식에서 자유주의 체제의 위기와 변화에 접근하고 있던 카는

168) Carr. 1964. p.69.

169) Carr. 1964. p.69.

어떤 대안을 제시하였는가?

카는 다른 책에서 프랑스 혁명은 기존 정치 체제에 대한 혁명으로서 성공적이었지만, 사회 영역에서는 미완의 혁명으로 끝나고 말았다고 적고 있다.¹⁷⁰⁾ 카에게 “사회적 혁명”은 “정치적 혁명”만큼이나 중요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카가 추구한 사회적 혁명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사회적 혁명이 완결된 후 등장하게 될 그의 이상으로서 새로운 민주주의는 어떤 것일까?

우선 카의 20세기적인 새로운 민주주의에 내포된 주안점은 기존 자유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엘리트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특성을 수정하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주의 시대가 의지하고 있던 세 가지 원리가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 세 가지 원리란 반복하자면 이성적 존재로서 개인에 대한 믿음, 이성을 바탕으로 합리적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익의 조화가 가능하다는 믿음이었다. 이러한 믿음은 경제 분야에서는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고수와 야경국가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이익 조화설과 자유방임주의는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구시대의 논리였다. 카는 1939년도 저서에서 이미 이익 조화설과 자유방임주의라는 두 가지 사회 운용 원리가 20세기 유럽의 현실과 괴리됨으로써 한낱 비현실적인 관념에 불과할 뿐이며 일부 지배층의 허구적인 이상일뿐이라고 비판했다.

프랑스 혁명이 기존의 전제 왕권에 대항하여 새로운 정치 원리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치 원리는 엘리트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격을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시대적인 변화에서 뒤처지고 만다. 그 결과 개인의 자유를 이론적으로 제창했음에도 자유주의는 개인 간 평등(equality)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못 하는 문제에 직면했고, 자유방임주의와 이익 조화설에 기초하여 경제 활동에서 개인이 갖는 권리를 극단적으로 옹호함으로써 야경국가가 사회 구성원의 평등을 충분히 보호해 주지 못하는 상황을 방관하였으며, 그 결과 평등과 자유라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의 사회적, 국가적 책임 의식으로부터

170) Carr. 1947. p.98.

구성원이 멀어지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기존의 자유주의 체제가 갖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카가 새로운 민주주의의 제창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 것들이었다. 카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통해 구성원 다수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평등과 복지가 보장되고 증진되는 사회를 지향했다. 허상으로 판명난 이익 조화설과, 구성원 대다수의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공평성보다 우선하는 자유방임주의 경제 원칙을 제한함으로써 정치 영역이 온당한 제자리를 회복하고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에는 이전 시대 자유주의가 초래한 파괴적인 세계대전이 재현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다. 그러기 위해서 카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구성원들이 민주주의 유지를 위해 자신의 사회적, 정치적인 의무를 자각하고, 동시에 대중 사회 시대에 대중을 교화시키고 교육하는 문제였다.¹⁷¹⁾

카가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대안적 민주주의는 프루동이나 게르첸, 그 외 마르크스, 레닌 등이 지향한 바와는 다르게 자유주의 및 기존의 국가 단위를 완전히 전복하려는 의도를 보이지는 않는다. 카는 당시 정치 제도를 역사적 맥락에서 상대화하고 특수화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민주주의를 논의할 여지를 우선 확보한 다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그가 제시한 새로운 정치 제도는 여전히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그 둘의 정당성에 기초하고 있다. 즉, 카의 대안은 사회주의에서 빌려온 개선책과 완화책을 활용하여 자유주의 체제를 일신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그리고 그의 대안은 기존의 자유민주주의와는 다르게 사회 단위를 강조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간의 평등에 방점을 찍고 있다. 유럽이 더 이상 소수 엘리트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력 독점을 용인하고 정당화할 수 없는 대중 사회에 진입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카는 19~20세기에 대중 사회의 등장이라는 격변의 현실과 기존의 자유주의, 민주주의적 원칙 사이에서 새로운 조화점을 모색했다.

제 3 절 국민국가의 형해화

171) Carr. 1966. p.79.

카의 혁명 연구는 자유주의로 대변되는 한 시대의 전환을 포착하고자 한 노력의 발로이다. 직간접적으로 혁명을 논하고 있는 대다수 카의 저서들은 자유주의 비판을 공통적인 주제로 삼는다. 그런 점에서 자유주의 비판은 카의 혁명 연구에서 핵심을 이루며 혁명 연구를 이끈 동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국제정치 관련 저서에서 카가 문제시한 자유주의 사상은 그 당시까지 많은 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왔고 서로 다른 많은 특징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경제 분야에서는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로 나타났고 사회 운용 단위 및 사상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개인주의적(individualism) 특성을 나타내었는가 하면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를 기반으로 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자유주의가 전간기에는 국제정치 영역에까지 확대 적용되어 카가 TTYC에서 비판한 이상주의라는 시대착오적인 현실 분석과 정책 대안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내용이다.

국민국가 관련 논의를 담은 카의 저서 Nationalism and After(이하 NA로 약칭)는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라는 측면에서 앞서 소개한 TTYC 그리고 CP의 연장선에 있다. 자유주의가 보여준 도덕적·사상적 정당성의 한계는 카의 TTYC 부터 본격화되어 CP를 거쳐 NA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TTYC와 CP에서 카는 개인주의에 기반한 구시대적 사회 이상으로서 이익 조화설이 20세기에 들어서 마침내 그 도덕적 정당성과 실현 가능성의 측면에서 완벽하게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¹⁷²⁾ 그 결과 파탄에 이른 개인주의의 귀착점은 도의적 지향점을 전혀 결여하고 있는 “초인” 개념의 등장이었다. 개인주의가 지닌 도덕적 정당성의 쇠퇴는 국제정치적 차원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그 결과 이익 조화설에 기반한 국제질서와 민족주의는 아무런 목적도 근간도 없는 “초국가”(supernation)로 수렴해 갔다.¹⁷³⁾

NA는 기본적으로 개인주의와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이익 조

172) Carr. 1939. pp. 102~107; 1943. p. 105~110.

173) Carr. 1943. pp. 109~110.

화설의 위상 변화가 국제정치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가져왔는가를 민족주의와 국제협조주의(internationalism)의 변천 및 전망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 책이다. 그 과정에서 카가 기존의 국민국가(nation state)가 향후 해체되고 초국(超克)될 것이라 예견했던 사실이 1990년대 들어 비판이론가들에 의해 새롭게 주목받은 사례가 있었다. 이 책에서 카는 민족주의와 국제협조주의 사이의 긴밀한 협조, 그리고 민족주의와 국제협조주의가 개인 간 평등,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 세 가지 사회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같은 책에서 카는 국민국가의 미래 전망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그는 국민국가의 미래 전망과 국민국가가 나아갈 길을 민족주의 발전의 네 단계 및 민족주의와 국제협조주의 간 관계를 통해 제시한다. 유럽 역사에서 민족주의 발전의 네 단계는 대략 16~17세기 이후 유럽 내 국가 간 관계의 변화 양상과 궤를 같이하였다.

국왕 개인의 왕권이 국가의 독점적이고 전제적인 주권(sovereignty)으로 자연스레 해석되고 국가 간 관계는 왕들 간의 개인적인 관계로 치환되던 제1시기(중세의 봉괴~나폴레옹 전쟁), 뒤이어 인민 주권 개념의 등장과 개인주의 및 민주주의의 확립, 그리고 개인주의와 민주주의의 당연한 귀결로서 민족주의가 탄생했던 제2시기(나폴레옹 전쟁~1차 대전 직전), 마침내는 민족주의의 급격한 성장 및 그에 따른 국제협조주의의 보조 실패로 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게 되는 제3시기(1차 대전기~전간기)를 거쳐 민족주의의 정점에 해당하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출간 당시에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였던 제4시기(2차 대전 이후) 민족주의에 대한 카의 전망이 소개되고 동시에 민족주의가 나아가야 할 길이 NA에서 제시되고 있다.¹⁷⁴⁾

카는 다가오는 제4시기에 민족주의는 점차 쇠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2차 대전 과정에서 이미 민족주의 쇠퇴의 증거가 뚜렷하게 드러났으며, 2차 대전의 종결 이후에는 1차 대전 이후의 사례와 같은 민족자결주의의 형태든 아니면 다른 어떤 형태든 간에 민족주의가 감당

174) Carr. 1945. p. 1~37.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산·분출되는 현상은 더 이상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근대 국민국가 단위를 뛰어넘는 행위자나 비(非)국가적 행위자의 등장 외에도, 2차 대전 이후 민족주의의 쇠퇴를 예견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현저한 현실 변화로는 냉전 체제의 양강(兩強)인 소련과 미국이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한 국민국가를 표방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¹⁷⁵⁾ 다인종, 다민족 간의 연방 국가 내지 연합 국가로서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 및 국제정치가 과거와 같이 여전히 국민국가 단위에서 펼쳐지고 “1 민족 1 국가”라는 구시대적인 민족주의 원칙의 지배를 받을지에 대해 카는 이미 1947년의 시기부터 의구심을 표하고 있었다.¹⁷⁶⁾

그러나 카는 1차 대전의 원인이 된 민족주의가 억제된다고 하여 즉각적인 국제 평화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제3시기 이후로 깨어진 민족주의와 국제협조주의 상호 간의 보조를 다가오는 미래 시기에 다시금 회복시켜야 민족주의의 독주와 거기에 수반하는 파괴적 영향력을 억제하고 국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그는 보았다.

그러기 위해서 카는 국가 간 관계가 도달해야 하는 이상적 모델로서 국내적 차원의 사회를 제시하고 거기에 바탕을 두고 있는 “국제 공동체”(international community) 개념으로 국제연합(United Nations)이 바탕으로 하는 원론적인 차원의 보편주의를 대체하고 싶어 했다.¹⁷⁷⁾ 카는 국제연합이 모든 국가를 평등하게 상징함으로써 현실에 실제 존재하는 국가 간 힘의 우열을 무화(無化)시켜 버리고 그로 인해 실제 국제 정치적 현실과 큰 괴리만 발생시킬 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175) E. H. Carr, *The Soviet Impact on the Western World* (New York: Macmillan, 1947), p. 36.

176) 한국 국제정치학계에서도 일찍이 동주(東洲) 이용희에 의해 유사한 문제의식이 이미 제기된 바 있다. 이용희, “單一民族主義國家와 多民族主義國家,” 『정치와 정치사상』 (서울: 일조각, 1958), pp. 270~300. 민족국가의 미래상과 관련하여 그의 다른 책에서도 분석과 전망이 시도되고 있으므로 참고할 것. 이용희, 『미래의 세계정치』 (서울: 민음사, 1994).

177) 국제사회 개념은 앞서 소개한 카의 다른 국제정치학 저서에서도 일관되게 다루어지고 있다. Carr. 1939. pp. 219~286; 1943. pp. 241~280.

주장했다.¹⁷⁸⁾ 대신 국제사회라는 개념 안에는 현실의 권력 분포 양상과 질서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카가 생각하기에 국제적 차원에서 국가 간 공동체의 확립은 평화로운 국제질서를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폭발적인 흥기를 경험했던 제3기의 민족주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사회주의는 “국가화” (the nationalization of socialism) 되고 국가는 “사회화” (the socialization of the nation) 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¹⁷⁹⁾ 둘째, 제3시기 국가 형태가 기존의 “야경국가” (Nachtwachterstaat)에서 “직능국가” (service state) 혹은 “복지국가” (welfare state)로 변화함에 따라 국민국가 단위의 “경제적 민족주의” (economic nationalism)가 확산되면서 덩달아 민족주의가 과열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셋째, 20세기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한 국가의 수는 각 국가별 다양한 민족주의를 탄생시켰고 그로 인해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진 각 국가 간에는 충돌이 빈번해졌다.¹⁸⁰⁾

제3시기의 이러한 특징들은 결국 1차 세계대전의 발생으로 이어졌다. 당연히 세계대전을 경험한 각국의 위정자와 식자들은 민족주의의 비정상적인 과열로 인해 국가 간 충돌이 이전에는 없던 파괴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게 되자 민족주의를 억제하고 국제협조주의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킬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그런데, 카가 지적하는 것 중 눈여겨 볼 것은 제3시기 민족주의의 첫 번째 특징으로서 국가의 사회화, 혹은 사회주의의 국가화가 이후의 시기에 사라지거나 역행할 수 없는 역사적 흐름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제협조주의 역시 “사회화”의 흐름에 동승할 필요가 있었다.¹⁸¹⁾ 그런데 국제협조주의에 기존의 사회화 흐름을

178) Carr. 1945. pp. 40~41, p.45.

179) Carr. 1945. p.19. 여기서 국가의 사회화 내지는 사회주의의 국가화란 표현은 동일한 현상을 의미하는 서로 다른 표현으로서 다음과 같은 20세기적 현실 변화를 일컫는다. 대표적으로 자유주의 시대 야경국가가 직능국가 혹은 복지국가로 변화하면서 대중의 복지가 국가적인 정책 차원의 문제가 되고 국가 정책이 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제안·시행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180) Carr. 1945. pp. 17~26.

181) Carr. 1945. p.45, p.63.

반영하기 위해선 카의 시각에 따르면 국제협조주의가 국제적 공동체라는 목표를 채택하고 국제협조주의를 기능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시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었다.¹⁸²⁾

물론 국제연맹을 설립하듯 국제정치에 국제 공동체라는 단위와 원리를 갑작스럽게 도입하고 거기에 현실 국제정치를 끼워 맞추는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런 이유로 카는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초국가적 기관들의 역할 보존과 그다음으로 지역주의(regionalism)의 매개를 거쳐 국가 간 관계에서 사회 내지는 공동체라는 의식이 서서히 성장해 가기를 바랐다.¹⁸³⁾

국제적 공동체와 국제사회 개념이 향후 국제 평화 유지의 관건이라면 이러한 처방 안에서는 기존의 국민국가가 가진 물리적 힘은 점차 약화 되고 도덕적 정당성 역시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다. 카는 국제협조주의의 보조를 상실한 민족주의와 국민국가는 국제 평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겼다. 동시에, 국가와 국제협조주의의 사회화라는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국민국가는 더 이상 사회화라는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단위가 아니었다.¹⁸⁴⁾ 이상과 같이 카의 논리가 가진 완결로서 국민국가의 미래에는 형해화라는 길만이 남아 있었다.

182) Carr. 1945. pp. 50~51.

183) Carr. 1945. p.45, pp. 50~52.

184) Carr. 1945. pp. 38~51.

제 6 장 카의 이상과 도덕

“Yes, the man so often described as a *Realpolitiker par excellence* had his Utopia. It was a vague, undefined utopia but, as he wrote, ‘I suppose I should call it “socialist” ’ .” 185)

“Mr. Carr, philosophically so ill-equipped, has no transcendent point of view from which to survey the political scene and to appraise the phenomenon of power. Thus the political moralist transforms himself into a utopian of power .” 186)

이 글은 혁명이라는 라이트모티프(leitmotif)를 통해 E. H. 카를 정당하게 읽어주고 동시에 그의 현실 분석만이 아니라 이상과 도덕까지 함께 살펴보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그 결과 카의 혁명 연구와 그것이 비롯된 20세기 서유럽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그의 분석을 살펴본 후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세기 서유럽에서 발생한 전환의 움직임은 카의 학문 연구 및 저술 활동을 촉발한 가장 중요한 동인이자 그의 대부분 저서에서 반복된 라이트모티프였다. 20세기적 전환의 현실을 당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카는 관련 깊은 역사적 사건으로서 1917년의 러시아 혁명과 이후 소비에트 러시아의 초기 역사에 관해 서술한다. 카는 자신의 글을 통해 20세기가 기존의 자유주의 시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당대 사람들도 현실로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랐다.

둘째, 20세기 역사적 전환기 변화의 방향은 카에 의하면 국내외 정치 전반을 통틀어서 사회 단위에 대한 강조와 그 중요성의 확대라 할

185) Tamara Deutscher, “E. H. Carr—A Personal Memoir,” *New Left Review*, Vol. 0, No. 137 (Jan 1983), p.86.

186) Hans J. Morgenthau, “The Political Science of E. H. Carr,” *World Politics*, Vol. 1, No. 1 (Oct 1948), p.129, p.134.

수 있는데, 이 지점은 그의 현실 분석과 이상 및 도덕이 절묘하게 교차하는 곳이기도 하다. 즉, 20세기 들어 개인주의의 영향에서 벗어나 사회 단위를 강조하는 사상 및 움직임이 가시화된 것은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지만¹⁸⁷⁾ 동시에 카가 20세기를 전환기적 시기로 설정함에 따라 사회의 약진이 미래의 발전 경로로서 당위성을 부여받은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20세기적 전환이 카의 주장대로 사회 단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어야만 했는지 아니면 그 이후 시대에 속하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사회의 중요성 확대가 의미 있는 지향점인지 질문해 봄 직하다.

셋째, 직전의 질문이 어떻게 결론지어지든 간에, 결국 카의 연구 결과물에서 현실 분석에만 주목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카의 혁명 연구는 역사적 인물 및 사건에 대한 분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자신의 이상 및 도덕과 아주 가깝게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 이상과 도덕은 카 스스로도 밝혔고 타마라 도이처(Tamara Deutscher)가 재인용하기도 했듯이 “사회주의적”(socialist)인 것이었다.¹⁸⁸⁾

역사적 전환기의 20세기, 카는 혁명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 단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0세기 이전까지의 유럽 내 주도적인 사상을 비판할 때나 자신이 생각하는 새로운 이상적 정치 체제를 설명할 때 도 그에게 사회라는 단위는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했다. 대표적으로 전간기(inter-war period) 국제정치 일반을 논한 1939년도 저서에서 카는 마지막 결론에 다다랐을 때 국제적 차원의 사회 단위 적용을 암시하면서 작위적인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이나, 국가별로 보유한 힘의 정도를 균일화해 버리는 세계정부(world government)와 비교했을 때 사회나 공동체라는 개념을 국가 간 관계에서 적용하는 것이 평화를 위한 방책으로 더 적합하다고 주장한다.¹⁸⁹⁾ 그는 국제정치에서 사회 내지는

187) 그 대표적인 예가 19세기 러시아의 사상가들과 그들의 사상이었다. E. H. Carr, *Studies in Revolution* (New York: Grosset & Dunlap, 1964), pp. 95~97.

188) E. H. Carr, “An Autobiography,” in Michael Cox (eds.), *E. H. Carr: A Critical Appraisal*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0), p.xxi. ;Deutscher. 1983. p.86.

189) E. H. Carr, *The Twenty Years' Crisis 1919-1939* (London: Macmillan, 1939), pp. 264~307.

공동체라는 의식을 함양해야지만 궁극적으로 전쟁이 억제되고 평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국제사회, 국제 공동체 주장은 그가 국제 정치에 대해 논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한다.¹⁹⁰⁾

국내정치적인 차원을 다루고 있는 카의 저서에서도 사회에 대한 방점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프랑스 혁명이 “정치적”이며 최초의 “세속적”인 혁명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혁명 이후 시대가 사회적 의식의 결여로 나아갔기 때문에 “사회적” 혁명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그의 평가나, 특정 계층의 특권만을 인정해 주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벗어나 사회 구성원이 모두 진정으로 정치적 평등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민주정체를 확립해야 한다는 그의 이상, 그리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라는 의식보다는 사회에 대한 구성원들의 책임 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도덕에 대한 그의 지향을 보아도 그렇다.¹⁹¹⁾ 카가 유럽 근대사의 흐름 및 전개에서 러시아 혁명이 가진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분석하고 이후 확립된 소비에트 체제의 초기 역사와 소비에트 러시아가 서유럽에 미친 영향력을 제시했던 이유도 사회 단위에 대한 그의 강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¹⁹²⁾

카의 사고 속에서 러시아 혁명과 소비에트 러시아의 등장은 세계사에서 서유럽이 갖는 주도적 위치 그리고 서유럽 사상이 가진 정당성을 기저에서부터 위협한 20세기적 전환의 대표적인 사례였다. 카는 전환의 시기를 맞이한 유럽의 현실을 현실로 인정함과 동시에 그곳에서 서유럽이 나아갈 새로운 이상을 발견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카의 현실 인식과 이상을 기반으로 했을 때, 그가 1940년대 분석한 바 있었던 생시몽(Saint-Simon), 피에르-조제프 프루동(Pierre-Joseph Proudhon), 알렉산드르 게르첸(Alexander Herzen) 등의 사회주의자들과 그의 관계는 어떠한가? 카가 자신의 이상을 사회주

190) E. H. Carr. *Conditions of Peace* (New York: Macmillan, 1943), pp. 241~280; *Nationalism and After* (London: Macmillan, 1945), pp. 38~70.

191) E. H. Carr, *The Soviet Impact on the Western World* (New York: Macmillan, 1947), p. 98; 1964. p. 13.

192) E. H. Carr, “The Russian Revolution: Its Place in History,” *The October Revolution: Before and After* (New York: Alfred A. Knopf, 1969), pp. 1~33.

의적이라고 인정했을 때, 그것은 사회주의자라는 자각 아래 행해진 진술인가? 카의 혁명 연구가 사회 단위를 우선시하는 사회주의자(socialist)로서 자각 아래 진행된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카를 사회주의자로 명명하는 것도 가능할까?

실제로 사회 단위에 대한 강조라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를 제외하고 더 이상 카와 사회주의자 간의 공통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마르크스 이후의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와 카의 사회 중심적 사고 사이에는 더욱 큰 괴리가 존재한다. 마르크스 이전의 초기 사회주의나 무정부주의라고 해서 카가 특별히 더 공감을 표시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카의 혁명 연구를 대변하는 사회주의적인 특징이 곧 “카는 사회주의자”라는 전제를 반드시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즉, 사회주의 사상 및 여타 사회주의자들과 카의 관계가 무엇인지는 조심스럽게 다루어질 주제다. 특별히 이 문제가 이 논문을 통해 자세히 다루어진 적도 없고 그러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이 논문이 표방한 적도 없으므로, 카와 사회주의 사상 간의 관계에서 아주 낮은 수준의 교집합을 도출하는 것에서 서술을 멈출 수밖에 없다.

카가 사회주의자가 아니라면 그의 혁명 연구는 사회주의 혹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열정 외에 어떤 동기에서 비롯된 것인가? 카는 왜 다양한 사회주의 사상가에게 관심을 가졌고 또 러시아 혁명과 소비에트 러시아에 대해 방대한 저술을 남긴 것인가?

카의 전체 연구 활동을 통해 혁명(가) 연구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다음 두 가지로 요약 가능하다. 첫째, 카의 혁명(가) 연구는 자유주의 혹은 개인주의와는 다른 사상적 계보와 그 역사를 찾아가는 작업이다. 그 결과 자유주의 내지는 개인주의를 상대화하고 그 사상 자체를 극복하거나 혹은 그 사상에서 유래하고 있는 허점과 폐단을 포착하여 개선할 여지가 발생한다.

둘째로 카의 혁명(가) 연구는 곧 러시아 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단순히 러시아의 경제적, 정치적 제(諸) 조건 아니면 서유럽적인 영향력들 중 한 곳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광범위한 공간과 시간대

의 역사적, 사상적 맥락을 하나로 하여 그 속에서 확보할 수 있게 도와 준다. 결국 카의 혁명(가) 연구는 20세기 유럽의 현실과 이전 시기 역사를 일정하게 해석하고 그 속에서 러시아 혁명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려는 의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그의 혁명 연구는 그런 이유로 현실 분석에만 치우쳐 있을 수는 없었으며, 직간접적으로 자신의 이상 그리고 도덕에 근간을 둘 수밖에 없었다. 이상과 도덕 없이 당대 현실을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은 모겐소가 1948년도 제기했던 카 평가와는 상충할 수밖에 없다. 모겐소는 마찬가지로 카를 이상주의자로 결론 내리지만, 다만 카의 이상은 순수하게 권력 그 자체였다고 언급하고 있다.¹⁹³⁾ 그는 권력과 힘만이 존재하는 비현실의 이상 세계에 빠져버렸다고 카를 비판하고 윤리와 도덕 기준을 상실한 카의 권력 지향적 태도에 우려를 표했다. 카의 혁명 연구를 접한 후에도 이와 같은 모겐소의 비판과 경고는 유효한가?

카의 혁명 연구는 권력에 대한 카의 태도를 재고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한다. 분명, 카의 역사 분석과 이상적 역사 전개에 서술에서 권력의 측면이 중요성을 갖지 않는 것은 아니다. 카는 세계대전기와 이후 시기 국제질서에 관해 서술할 때나, 아니면 국민국가의 현황과 미래를 제시할 때도 권력의 역할과 중요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¹⁹⁴⁾ 카의 소비에트사 서술이나 역사 전반에 대한 인식에서 권력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낮았더라면, 포스트모더니즘 역사학의 등장 이후 카의 역사관을 재평가하는 현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¹⁹⁵⁾ 그럼에도 카가 권력만이 작용하는 비현실의 세계에 빠져버렸다는 모겐소의 평가는 과하다는 인상을 준다.

그 이유는 러시아 혁명과 소비에트 체제에 대한 카의 해석을 다시금 상기하면 명확해진다. 카의 역사 해석 및 분석은 러시아 혁명이 보여

193) Morgenthau. 1948. p.134.

194) Carr. 1939. pp. 131~185; 1945. pp. 51~50.

195) 김택현, “E. H. 카와 지식/권력으로서의 역사(학),” 『영국연구』 제9권, 제0호, (2003년 6월), pp. 219~240.

준 혁명 정신과 이후 초기 소비에트 체제가 서유럽 사회와 비교했을 때 갖는 도덕적 정당성 및 우월성을 강조한다.¹⁹⁶⁾ 권력 관계와 권력이라는 요소 그 자체에 대한 분석만큼이나 카는 도덕의 요소를 충분히 존중하고 강조한다. 사회적 민주주의(social democracy), 대중 정치의 확산, 계획 경제의 효율성만큼이나 도덕 분야에서 제시된 복지국가(welfare state), 사회적 평등, 사회적 책임감의 정당성은 카의 자유주의적 서유럽 비판에서 중요한 논거로 활용된 바 있다.¹⁹⁷⁾

물론 이후 소비에트 체제는 독일의 나치 정권과 나란히 전체주의 국가의 또 다른 전형이 되었다.¹⁹⁸⁾ 그런 점에서 모겐소는 소비에트 체제에 감히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붙여서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카의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었다.¹⁹⁹⁾ 모겐소가 카를 권력이라는 이상향에 빠져버린 이상주의자라고 비판했던 이유도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소비에트 체제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카의 태도가 그가 당시 소비에트가 과시한 힘과 권력에 경도되었다는 증거로 그에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해 볼뿐이다.

그러나 그가 소비에트의 초기 체제가 지닌 도덕적 정당성을 기존 서유럽이 주도한 자유주의 및 개인주의 사회 제도 및 사상에 대한 반발과 국민 복지에 대한 강조, 국민국가 형태로부터의 탈피 등과 같은 근거에서 찾고 있는 점을 보았을 때, 카가 소비에트사 연구를 통해 단순히 권력 현상과 힘의 작용에만 침전했다는 분석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물론, 카의 도덕관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철학적 기반 없이 지나치게 현실 지향적이고 실용적인 차원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 점에서는 모겐소의 비판을 전면 수용할 수밖에 없다.²⁰⁰⁾ 이는 카가 시대 현실을 반영하는 도덕을 추구했기 때문이며, 절대적이고 보편적이

196) Carr. 1947. pp. 103~113.

197) Carr. 1943. pp. 15~38, pp. 70~128.

198) Hannah Arendt,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San Diego: Harcourt, 1973), pp. 305~479.

199) Morgenthau. 1948. p.133.

200) Morgenthau. 1948. p.134.

며 또한 추상적인 도덕 원칙을 찾는 것은 그에게 우선하지 않는 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었다.²⁰¹⁾

그런 의미에서 카가 자유주의 원칙 중 예를 들면 경제 영역의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나 이익 조화설을 비판할 때 보여주는 주요한 논조도 결국 시대착오적이고 시의적절성을 상실했다는 점이었지 그 자체가 태생적으로 문제를 내포한다는 점은 아니었다. 즉, 그의 도덕관은 상대주의적이며, 그의 도덕은 같은 시공간 안에서도 시대적 조건에 따라 변화하면서 동시에 구시대적인 도덕은 상대화되고 격파되었다. 카의 상대주의적 도덕관은 이미 그의 1939년도 저서가 발간되었을 때 주요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²⁰²⁾ 그의 상대주의적 도덕관은 그의 현실주의에서 유래한 것이다. 무던히 변화하는 현실을 준거로 삼아 언제나 도덕은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그의 현실주의적 태도는 한편으로는 카가 여전히 현실주의에 속한다는 주장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나 그의 현실주의를 국제정치학적인 의미에서의 현실주의로 재단하기에는 무리가 많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논란을 낳는 카의 이상과 도덕을 함께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답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카를 정당하게 읽어주기 위해서는 그의 이상과 도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그의 현실 분석만이 아니라, 그중에서도 권력 현상에 대한 강조와 함께 그가 지향하는 이상과 그가 제시하는 20세기적 도덕이 무엇인지 함께 읽으면 그만큼 카를 이해하는 스펙트럼과 결이 다양해진다.

다음으로 카를 분석하는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다. 카의 이상과 도덕을 살펴봄으로써 마침내는 카의 글에 비판적인 자세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카의 현실 분석과 역사적 해석에만 집중한다면 그

201) Deutscher. 1983. p.84.

202) Peter Wilson, "The Myth of the 'First Great Debate' ," in Brian C. Schmidt (eds.),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First Great Debate* (New York: Routledge, 2012), pp. 16~31.; "Carr and His Early Critics: Responses to The Twenty Years' Crisis, 1939-46," in Cox. 2000. pp. 165~197.

것이 마치 20세기 서유럽과 러시아가 실제로 경험한 역사적 사실인 양 받아들여지기 쉽지만, 그가 어떤 이상과 도덕을 전제하였고 지향하였기에 그와 같은 분석 및 해석을 도출해냈는지 이해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카의 해석을 절대화하거나 기계적으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카를 읽으려는 사람들에게도 카의 이상과 도덕은 언제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참 고 문 헌

1. 1차 자료

- Carr. E. H. 1937. *International Relations between the Two World Wars 1919-1939*, New York: Harper&Row.
- . 1939. *The Twenty Years' Crisis 1919-1939*, London: Macmillan.
- . 1943. *Conditions of Peace*, New York: Macmillan.
- . 1945. *Nationalism and After*, London: Macmillan.
- . 1947. *The Soviet Impact on the Western World*, New York: Macmillan.
- . 1951. *The Bolshevik Revolution 1917-1923 Vol. I*, New York: Macmillan.
- . 1961. *What is History?*, London: Penguin.
- . 1964. *Studies in Revolution*, London: Macmillan.
- . 1966. *The New Society*, Boston: Beacon Press.
- . 1969. *The October Revolution: Before and After*, New York: Alfred A. Knopf.
- . 1979. *The Russian Revolution*, New York: The Free Press.
- . 1980. *From Napoleon to Stalin and Other Essays*, New York: St. Martin' s Press.
- . 2001. *The Twenty Years' Crisis/reissued with a new introduction and additional material by Michael Cox*, New York: Palgrave.
- . 2004. *The Russian Revolution From Lenin To Stalin 1917-1929*,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Machiavelli. Niccolo. Harvey C. Mansfield (trans.). 2010. *The*

Prince, Illinoi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에드워드 H. 카 저. 김택현 역. 2010. 『역사란 무엇인가』, 서울: 까치.

E. H. 카 저. 石上良平訳. 1965. 『カール・マルクス, その生涯と思想の形成』, 東京: 未來社.

2. 2차 자료

1) 저서

Arendt. Hanna. 1973.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San Diego: Harcourt.

Cox. Michael. (eds.). 2000. *E. H. Carr: A Critical Appraisal*, New York: Palgrave Macmillan.

Haslam. Jonathan. 2000. *The Vices of Integrity: E. H. Carr 1892-1982*, London: Verso Books.

Kubalkova. Vendulka, Nicholas Onuf, and Paul Kowert (eds.). *International Relations in a Constructed World*, New York: M. E. Sharpe.

Long. David and Peter Wilson (eds.). 1995. *Thinkers of The Twenty Years' Crisi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Schmidt. Brian C. (eds.). 2012.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First Great Debate*, New York: Routledge.

Smith. Michael J. 1986. *Realist Thought from Weber to Kissinger*,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Weber. Max. Gordon C. Wells and Peter Baehr (trans.). 1995. *The Russian Revolutions*, Massachusetts: Polity Press.

- 사카이 데쓰야(酒井哲哉) 저. 장인성 역. 2010 『근대 일본의 국제질서론』, 고양: 연암서가.
- 이용희. 1958. 『정치와 정치사상』, 서울: 일조각.
- , 1994. 『미래의 세계정치』, 서울: 민음사.

2) 논문

- Ashworth. Lucian M. 2002. “Did the Realist–Idealist Great Debate Really Happen? A Revisionist Hist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Relations*, Vol. 16, No. 1 (April)
- , 2014. *A History of International Thought*, New York: Routledge.
- Babik. Milan. 2013. “Realism as Critical Theory: The International Thought of E. H. Carr,”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 15, No. 4 (December)
- Booth. Ken. 1991. “Security in Anarchy: Utopian Realism in Theory and Practice,” *International Affairs*, Vol. 67, No. 3 (July)
- Cox. Robert W. 1981. “Social Forces, States and World Orders: Beyo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10, No. 2 (June)
- Deutscher. Tamara. 1983. “E. H. Carr—A Personal Memoir,” *New Left Review*, Vol. 0, No. 137 (January)
- Falk. Richard. 1997. “The Critical Realist Tradition and the Demystification of Interstate Power: E. H. Carr, Hedley Bull, and Robert W. Cox,” in Stephen Gill and James H. Mittelman (eds.). *Innovation and Transformation in*

- International Studi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ox. William T. R. 1985. "E. H. Carr and Political Realism: Vision and Revision,"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11 No. 1 (January)
- Goldfischer. David. 2002. "E. H. Carr: A 'Historical Realist' Approach for the Globalization Era,"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8, No. 4 (October)
- Howe. Paul. 1994. "The Utopian Realism of E. H. Carr,"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0, No. 3 (July)
- Johnston. Whittle. 2007. "The Relevance of E. H. Carr's Realism in the Post-Cold War World," in W. David Clinton (eds.). *The Realist Tradition and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 Jones. Charles. 1996. "E. H. Carr: Ambivalent Realist", in Francis A. Beer and Robert Hariman (eds.). *Post-Realism: The Rhetorical Turn in International Relations*, East Lansing: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 Kaufman. Robert G. 1995. "E. H. Carr, Winston Churchill, Reinhold Niebuhr, And Us: The Case For Principled, Prudential, Democratic Realism," *Security Studies* Vol. 5, No. 2 (December)
- Kenealy. Daniel and Konstantinos Kostagiannis. 2012. "Realist Visions of European Union: E. H. Carr and Integration,"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41, No. 2 (December)
- Kostagiannis. Konstantinos. 2013. "Mind the gap between nationalism and international relations: Power and the nation-state in E. H. Carr's realism," *International*

- Politics*, Vol. 50, No. 6 (November)
- Lamb. Peter. 2014. "The British Left in the Problems of Peace Lectures, 1926–38: Diversity that E. H. Carr Ignored," *The International History Review*, Vol. 36, No. 3 (September)
- Linklater. Andrew. 1992. "The Question of the Next Stage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 Critical–Theoretical Point of View,"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1, No. 1 (March)
- . 1997. "The Transformation of Political Community: E. H. Carr, Critical The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3, No. 3 (July)
- Mearsheimer. John. 2005. "E. H. Carr vs. Idealism: The Battle Rages On," *International Relations*, Vol. 19, No. 2 (June)
- Molly. Sean. 2003. "Dialectics and Transformation: Exploring The International Theory of E. H. Carr,"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tics, Culture and Society*, Vol. 17, No. 2 (December)
- Morgenthau. Hans J. 1948. "The Political Science of E. H. Carr," *World Politics*, Vol. 1, No. 1 (October)
- Nishimura. Kuniyuki. 2011. "E. H. Carr, Dostoevsky, and the Problem of Irrationality in Modern Europe," *International Relations*, Vol. 25, No. 4 (March)
- . 2009. *Politics at its Demise: E. H. Carr, 1931–1939*,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Florida.
- Smith. Keith. 2017. "The realism that did not speak its name: E. H. Carr 's Diplomatic Histories of The Twenty Years' Crisi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February)

- Weiss. Jeremy. 2013. “E. H. Carr, Normal Angell, and Reassessing the Realist–Utopian Debate,” *The International History Review*, Vol. 35, No. 5 (August)
- Wilson. Peter. 2001. “Radicalism for a Conservative Purpose: The Peculiar Realism of E. H. Carr,”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30, No. 1 (January)
- Woolf. Leonard. 1940. “Utopia and Reality,” *The Political Quarterly*, Vol. 11 No. 2 (April)
- 김택현. 2003. “E. H. 카와 지식/권력으로서의 역사(학)” , 『영국연구』 제9권, 제0호, (June)
- 박원용. 2015. “E. H. 카와 소비에트 러시아” , 『역사교육논집』 제56권, 제0호 (August)
- 전재성. 2013. “E H. 카아의 비판적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 , 『한국정치학회보』 제33집 제3호 (December)

Abstract

Revolution as E. H. Carr' s
Leitmotif in the 20th Century
Transitional Europe

HeeWeon Woo

Dept.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Edward Hallett Carr(1892–1982) is a well-known historian to the public as well as to other historians for his famous book about generic discussions on historical issues, *What is History?*. On the other hand, he was a famous Soviet historian during the Cold War era. From the 1950' s to the 1980' s he finished 14 volumes of the Soviet History, which occupies the biggest portion of his *œuvre*. Besides his critical achievement in a history department, in an international relations department, he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eorists because he was one of the founding fathers of the nascent realistic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in the early 20th century where the trend of utopianism once dominated in Europe.

However, it can be said that, without any hesitation, after he became a member of an academia he actually devoted most of his time and effort to researching and writing on the Soviet history and the Russian Revolution.

Carr, who has multi-faceted reputations and careers as a professional diplomat,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st and Soviet historian, wrote various topics and generous amount of writings. Due to these changes in his careers and research areas, however, neither international relations scholars nor historians have tried trespassing each others' boundaries and each of them ended up reading only the limited number of books which is relevant for each of their studies. As a result, international relations scholars never actually knew what Carr was arguing in his books regarding the Soviet history or the revolution nor do historians pertaining to Carr's writings o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hitherto incomplete studies on Carr in both departments result from lack of perusing Carr's various writings.

This study recognizes and points out this situation as a huge obstacle to fully understand Carr and treats his entire collection of writings properly regardless of research areas or topics. That means this study also may not separate Carr's lifetime as a scholar into different and exclusive phases or discriminate certain books of his depending on departments or research areas. Rather, this study is more likely to focus on his most nascent and original research theme that encompasses his entire collection of writings and to which his individual writings are related and on how his leitmotif initiated his actual writings.

Then, what is the original leitmotif that triggered Carr's

research in the first place? Narrowly, it could be the Russian Revolution as a critical event in history and the subsequent course of the Soviet history while, in a much broader perspective, it must be a transition, or revolution, which was in progress in the context of the 20th century Western Europe. The latter is what his writings share, repeat and base themselves on most importantly. To reinvigorate and supplement the previous studies on Carr, this study will shed light on Carr's studies in revolution in the context of the 20th century transitional Western Europe where all his writings were initiated.

Through this work, it can be possible to catch his original leitmotif and to see how his diverse books are related to it, as well as to each other. Finally, not only can we more thoroughly understand Carr, but also, from his writings, we can finally grab a chance to engage ourselves in the 20th century Europe, a historical background where international relations studies were first initiated.

Specifically, this study introduces its conclusions as research achievements as follows: first, the crisis of the liberalistic capitalism initiated by the Russian Revolution was, according to what Carr wrote, a phenomenon of a transition from the previous era of liberalism to the new era, second, under this notion, the 20th century was a transitional period in the Western Europe, the centre of liberalistic capitalism and Carr argued that the Western Europe adapt to the new historical direction, third, with these premises, Carr studied revolutionaries, especially in 19th and early 20th century Russia, and the revolution as a historical event and then changed his research topic from those early ones to the outbreak of the Russian Revolution and the

early Soviet history which happened under the impact of the Russianized Marxism, and finally, Carr stressed the moral legitimacy and supremacy of the Russian Revolution and the early Soviet regime, which promotes the reevaluation on the importance of moral and utopian aspect of Carr' s research.

keywords : E. H. Carr, revolution in the 20th century, transitional period in Western Europe, the Victorian Age, social democracy, mass democracy

Student Number : 2015–20135